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2008년 3·4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2008년 3·4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Review

3

1주차

| 03.03-03.09 |

1. 대내정세 — 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군사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주차

| 03.10-03.16 |

1. 대내정세 — 14
가. 정치 관련
나. 경제 관련
다. 군사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3주차

| 03.17-03.23 |

1. 대내정세 — 32
가. 정치 관련
나. 경제 관련
다. 군사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4주차

| 03.24-03.30 |

1. 대내정세 — 50
가. 정치 관련
나. 경제 관련
다. 군사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5주차

| 03.31-04.06 |

1. 대내정세 — 6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9
가. 북·중 관계
나. 북·러 관계
다. 기타 외교 관계

2. 대외정세 — 24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일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2. 대외정세 — 40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북·러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2. 대외정세 — 56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2. 대외정세 — 75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1
가. 대남 보도
나. 남북 교류

3. 대남정세 — 26
가. 대남 보도
나. 남북 교류

3. 대남정세 — 45

3. 대남정세 — 60
가. 대남 보도
나. 남북 교류

3. 대남정세 — 77
가. 대남 보도
나. 남북 교류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4

1주차

| 04.07-04.13 |

2주차

| 04.14-04.20 |

3주차

| 04.21-04.27 |

4주차

| 04.28-05.04 |

1. 대내정세 — 84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93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북·러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99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 104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11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15

1. 대내정세 — 118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군사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33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38

1. 대내정세 — 144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54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57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제2권 제2호 · 2008
월간 **북한동향**

인 쇄 2008년 5월
발 행 2008년 5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편집간사 권혜진 연구원

등 록 제2-02361호(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대인인쇄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3.3-3.9

3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군사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중 관계
- 나. 북·러 관계
- 다.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여성의 날 축하공연 관람(3/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8국제부녀절'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간부들과 함께 국립교향악단 및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은 극장에 입장해 여성의 날을 맞은 여성간부들을 축하하고 “조국의 융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 완성을 위해 헌신분투하고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냈다고 통신은 보도, 또 공연 후에는 큰 만족감을 표하면서 “전체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여 공화국(북한) 창건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쳐나가는 당원·근로자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했다”고 소개
 - 통신은 공연 무대에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고 소개했으나 공연장이 어느 극장인지는 밝히지 않음.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에는 김격식 군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당 비서, 김정각 군정치국 제1부국장,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박순희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장 등이 동행
- ※ 김 위원장은 1970년대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선출된 이래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간부들을 대동하고 공연을 관람하기는 처음임.

나. 정치 관련

■ 외세가 아닌 동족과 공조(3/8, 통일신보; 3/9,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통일신보는 남북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면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동족과 공조해야 한다”며 남한 새 정부의 대외관계 강화 행보를 간접 겨냥
- 또 “동족보다 외세를 더 믿고 자기 민족이 아니라 외세와 공조하게 되면

민족 내부에 불신과 갈등밖에 생길게 없다”며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예측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언급하고 “오늘의 시대는 6·15민족자주통일의 시대”이고 “지금 북남관계에서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져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민족공조의 위력을 보다 높이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

■ **여성의 날 맞아 ‘애국적 헌신’ 주문(3/9,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을 맞아 북한 여성들에게 “애국적 헌신”을 거듭 주문, 신문은 ‘여성들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 여성들은 선군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위력한 역량”이라며 “혁명과 부강조국 건설에서 역사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여성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강조
- 또 “수령 결사옹위는 조선 여성운동의 생명선이며 최대의 애국”이라면서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은 우리 여성들이 지닌 숭고한 의무”라고 언급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북한에서 지난 10년간 40여명의 여성 교수와 170여명의 여성박사를 배출했다고 강조

■ **TV방송국 사유화되면 사회주의 붕괴(3/7,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노동신문은 TV방송국을 포함해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과 같은 “사상문화 수단”이 사유화되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사상적 혼란”을 불러오고 사회주의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사상문화 수단에 대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노동신문은 ‘사상문화 수단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중요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상문화 수단을 사유화했다가 내부분열이 촉진됐다고 설명하고 “사상문화 수단들에 대한 노동계급의 당의 지도체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며 “사상문화 수단들이 당의 지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곧 계급적 원수들에게 자기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를 내어주는 멍텅구리 행위”라고 주장

- 신문은 “사회주의의 위력과 그 원천은 사회주의 사상에 있으며, 노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사상문화 수단들을 틀어 쥐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덧붙임.

■ 北, 키 리졸브에 ‘핵전쟁 불구름’ 주장(3/6, 노동신문)

- 한·미 합동 군사연습인 ‘키 리졸브’를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며 비난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한반도 전쟁위험을 집중 거론하면서 “반미·반전 투쟁”을 촉구
- 노동신문은 “내외 반통일 호전세력의 악랄한 전쟁책동을 저지하지 않고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성과적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위업에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

■ 北, 경제강국 = 과학기술 + 애국주의 + 관료(3/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헌신적인 애국주의와 관료들의 분발을 촉구
- 신문은 ‘부장조국 건설은 전인민적인 애국위업이다’ 제목의 편집국 논설에서 “현시대에는 과학을 알고 그에 의거해 끊임없이 새 것을 창조하는 과학기술의 능수가 자력갱생의 선구자”라며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최대한으로 중시하고 아끼고 내세우며 인재에 의거하여 자력갱생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애국주의는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무엇을 하나 보아도 자기 조국과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여도 자기 조국의 부강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면 풀씨 하나라도 구해오는 것이 애국자의 본태”라고 강조, 마지막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깃발을 들고나가야 할 선구자들은 우리 일꾼(관료)”이라며 “일꾼들은 자기 단위의 이익보다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앞에 놓고 모든 사업을 전개하고 인민들에게 당의 혜택이 더 잘 가닿게 하겠는가를 늘 생각하고 스스로 짐을 지는 애국가 경제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다. 군사 관련

■ 北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전쟁 막았다고 주장(3/8, 민주조선;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 평양방송)

- 북한 언론매체들은 8일 한미합동 키 리졸브 군사연습과 연합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종료된 데 맞춰 논평 등을 통해 이들 훈련이 “북침”용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그러나 자신들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
- 민주조선은 한미합동 훈련의 종료 사실을 지적하고 “이번에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미국이 북침전쟁 준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해서가 아니다”며 “만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전쟁억제력을 튼튼히 다지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이미 전에 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고 주장

■ 한미 군사연습은 6자회담에 배치(3/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미국의 반공화국(반북) 전쟁연습 강화 책동”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와 북·미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없다고 주장, 방송은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답이요, 관계 개선이요, 뭐요 하는 소리를 곧잘 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화 상대를 위협하는 모험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6자회담이 계속 이어지자면 대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하며 유관측들이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극력 자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 北외무성, 한미군사연습에 모든 억제력 강화(3/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한미 합동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북침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모든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라. 사회·문화 관련

■ 최영·허준 기념우표 발행(3/8, 조선신보)

- 조선우표사가 최근 고려 명장 최영(1316~1388)과 조선시대 명의 허준(1546~1615)의 초상을 담은 기념 우표를 발행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교향악단장, 세계 진출이 목표(3/8, 조선신보)

-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김병화(72) 수석지휘자는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공연에 대해 “그들이 우리나라(북한)를 방문하게 된 것은 의의가 있고, 조선(북한) 인민과 미국 인민 사이의 호상(상호)이해와 신뢰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평양 감자음식 품평회(3/7, 조선중앙TV)

- 평양 창광봉사관리국이 '세계 여성의 날' (3.8)을 맞아 '감자음식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품평회에는 창광봉사관리국 산하 17개 식당이 200여 종의 음식을 출품했으며 “이번 품평회는 감자음식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적극 보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언급

■ 장마 6월말~7월초 시작, 농업부문 대비책 당부(3/7,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올해 장마가 6월 말이나 7월 상순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보,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연구소 김문옥 실장은 조선중앙TV에 출연, “여름철 장마가 6월 말 혹은 7월 상순에 시작되겠고 여름철에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농업부문에서 적절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당부

■ 北, 60여년간 지도급 여성 8천명 배출(3/7, 조선중앙통신)

- '3·8국제부녀절(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60여년간 북한에서 사회 지도급 여성 8천여명을 배출하는 등 “여성들의 지위와 존엄이 높은 경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북한)에 마련된 여성존중의 법률적 환경'이라는 기사를 통해 “지난 60여년 동안에 수만명의 평범한 여성들이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으로 선거되고 8천여명의 여성영웅, 명예칭호, 학위학직 소유자들이 배출”됐다고 보도

■ 北, 문방구 유물 200점 전시회(3/7, 조선중앙통신)

- 올해 첫 문방구 유물 전시회가 열려 “우리 민족의 슬기로움”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평양 조선민속박물관에서 2월 10일 시작한 전시회는 4월말까지 전시, 전시회에서는 주로 조선 시대에 쓰였던 문방구 유물 200여점을 붓, 종이, 먹, 벼루를 뜻하는 ‘문방4우’와 ‘보조 문방구’, ‘문방가구’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보임.

■ 작가들은 “땅·기름냄새에 폭 젖어야”(2008년 1월, 조선문학)

- 문학월간지 조선문학 최근호(2008년 1월)는 작가들에게 북한 정권 수립 60돌을 맞는 올해 문학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며 농촌이나 공장 등에서 “현실 체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조선문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한 후 “생활은 결코 작가들의 머리 속이나 책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벽찬 생활 속에 있다”고 말한 것을 상기할 것을 촉구

■ 남성양복 ‘슬림룩’ 인기(3/6, 조선신보)

- 북한의 20~30대 남성들 사이에서 봄철을 맞아 “늘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양복이 유행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은 “봄 계절에 들어서면서 새 형태의 양복을 해 입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평양 동안양복점의 책임자이자 재단사인 정광석씨의 말을 인용, “20~30대 남성들 속에서 3알 단추(쓰리버튼)의 제끼깃 양복과 달깃깃 양복 제작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소개
- 정씨는 또 이달 들어 넉달분에 달하는 주문을 받았으면서 “제작 봉사(서비스)에서 신용을 지켜 더 많은 단골을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교수·학생들, 英원어민 강사들의 회화 강습 수강(3/6, 연합뉴스)

- 북한에서도 영어 회화강습 수요가 늘면서 영국 정부와 미국 및 캐나다 민간 단체들이 ‘원어민’ 영어강사들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북한의 영어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특히 정부 예산으로 북한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영국은 2007년 말에도 영국 문화원을 통해 2명의 영국인 영어강사를 북한에 파견, 현재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김형직사범대학 등 평양의 주요 3개대 교수와 학생 등 모두 450명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교육법을 강의(영국 외교부와 문화원은 2002년부터 북한에서 '영어교사 훈련 사업'을 진행)

■ 민간요법 소개 책들 출간(3/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의학과학출판사에서 낸 '민간요법과 건강'이 도·시·군 인민병원과 진료소에 도입되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보였던 민간요법을 소개했다고 보도, 이 책은 한약을 식물성과 광물성으로 구분해 관련 상식을 알려주고 한약으로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

■ 양봉 과학화 위해 강습회 개최(3/6, 조선신보)

- 양봉의 과학화를 위해 기술강습 및 발표회와 새로운 양봉기구 전시회를 개최, 이번 행사는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열려 전국의 양봉과 수의 과학자, 기술자, 꿀벌 관리공, 꿀벌 산물을 이용하는 제약과 식료부문 기술일꾼들이 참가

■ 北, 베이징 올림픽 기념우표 발행(3/6, 조선신보)

- 조선우표사가 오는 8월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평양에 체육 공원 신설(3/6, 조선신보)

- 평양에 체육 경기장과 민속놀이 시설, 산책로 등을 갖춘 공원이 들어선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평천구역에 들어서는 '평천강안공원'은 배구장 4개와 정구장 2개, 농구장 1개 등 체육시설과 씨름, 그네, 널뛰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시설을 갖추게 됨.

■ “유용동물 보호” 운동(3/4, 조선중앙통신)

■ 초등학생들에게 새 디자인 '멜가방' 공급(3/4,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새 학년도 개학에 맞춰 '소학교(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새로운 디자인의 '멜가방(어깨에 메도록 멜빵이 달린 가방)'을 공급키로 함에 따

라, 북한 전역의 가방공장들이 가방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선철학전사' 15권 완간(3/3, 조선신보 인터넷판)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가 고대철학부터 “주체사상”까지 묶은 ‘조선철학전사’ (전 15권)를 완간했다고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보도

2 대외정세

가. 북·중 관계

■ 北, 中저우언라이 띄우기(3/5, 노동신문)

- 북한이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의 110회 생일(3.5)을 계기로 ‘저우언라이 띄우기’에 나서 눈길, 북한 언론은 저우 총리를 특히 ‘북중친선의 창시자’라고까지 평가
- 노동신문은 5일 저우 총리의 110회 생일 기념 논설에서 “주은래는 조·중 친선역사 창조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혁명동지이고 전우이고 친근한 벗”이라며 “우리 인민은 주은래 동지가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여를 한 데 대해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

나. 북·러 관계

■ 北김영남, 러 대통령 당선인에 축전(3/4, 조선중앙통신)

- 김 상임위원장은 3일 보낸 축전에서 “나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으로 선거된 당신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낸다”며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밝힘.

다. 기타 외교 관계

■ 北외무성, 대만 유엔가입 반대 천명(3/8, 연합)

- 북한 외무성은 대만이 유엔 가입을 위해 3월 22일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만이 어떤 형식으로든 유엔에 가입하려는 데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다”고 8일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또 “우리(북한)는 대만 당국의 시도를 규탄”한다면서 “우리 공화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한 나라, 두 제도’에 기초한 중국당과 정부의 통일정책을 일관하게 지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

■ 北외무성, 이스라엘은 중동평화 파괴하는 암적 존재(3/5, 외무성 대변인)

- 북한 외무성은 5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비인간적인 학살만행”이라며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 대변인은 이어 “이스라엘이 야말로 중동지역에서 평화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암적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

■ 北, 유엔 인권대표단 방북 거부(3/4, 연합)

- 루이즈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리철 북한 대사를 만나 북한 인권관련 대표단을 북한이 수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리철 대사는 이를 거부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 RFA는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아버 판무관(OHCHR)이 발표할 예정인 ‘유엔의 인권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리철 대사는 북한이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활동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은 파쇼 독재정권의 후예들(3/6, 조평통 담화)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 “(남한 새 정부는) 지난 시기 세인을 경악케 하는 파쇼통치로 남조선을 참혹한 인권의 불모지로, 민주의 폐허지대로 만들었던 독재정권의 후예들”이라고 언급
- 조평통은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해 “최근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은 있지도 않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 들었다. 6·15공동선언 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북남 관계를 대결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망발로 낙인하면서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힘.
- 북한이 공식 입장에서 남측 새 정부를 ‘보수집권세력’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한 것은 처음임.

■ 北, 南보수집권세력, 6·15공동선언 부정(3/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얼마 전 남조선(남한) 외교통상부의 한 실장이라는 자”가 유엔 인권이사회 제7차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를 걸고들며 ‘북 인권 상황’이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러한 망발과 관련해 ‘정부의 기본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맞장구를 쳤다”고 지적
-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의 보수 집권세력의 외교관이라는 자들이 감히 있지도 않는 우리(북한)의 인권문제를 걸고 국제무대에 나가서까지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해 나선 것은 신성한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또 다시 대결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

나. 남북 교류

■ 17일부터 자가용 타고 금강산 간다(3/7, 연합)

- 현대아산이 출시한 자가용 이용상품은 오전 11시 30분에 자가용으로 화진포 휴게소에 집결해 관련 서류를 배부받고 오후 1시 30분에 남측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며 오후 2시 10분에 북측 출입국 사무소에서 검문을 받은 뒤 오후 3시 30분에 금강산의 호텔에 주차, 하루 20대 한정

■ 개성공단에 첫 외국계 공장 착공(3/5, 연합)

- 독일계 자동차부품업체인 한국프레틀(주)이 5일 개성공단 내 외국기업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 중 처음으로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발표, 착공식은 이 회사의 롤프 프레틀 회장, 김형만 한국프레틀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10여명과 신언상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

■ 北, 南 민간지원단체방문 잠정 중단요청(3/3, 통일부)

- 북한이 남측 민간지원단체의 금강산·개성지역 방문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입장을 최근 통보한 것으로 3일 확인
-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에서 금강산·개성관광 업무를 총괄하는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이 ‘금강산·개성 대외협력 사업자의 방북을 즉시,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 지원물자는 현행과 같이 계속 반입 가능하다’는 내용의 팩스를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고 언급, 그러나 방북 중단을 요청한 이유는 밝히지 않음.

3.10-3.16

3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군사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北, 南대북방송 강화, 체제대결 야기(3/16,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변인 담화; 3/15, 통일신보)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16일 “남조선(남한)의 보수집권 세력이 미국과 일본의 우익보수세력과 결탁”해 대북 방송을 강화, “동족과의 사상대결, 체제대결”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난
- 조국전선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 방송을 확대하는 것은 “북남 관계를 6·15 이전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는 용납 못할 반통일적,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며 “동족과의 사상대결, 체제대결을 불러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대결 소동”이라고 언급
- 통일신보도 15일자 ‘대결을 불러오는 반복 모략 행위’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집권하기 바쁘게 언론을 틀어쥐고 신문, 방송을 통한 반복 모략 선전을 더욱 강화할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며 “대북모략 방송은 전적으로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
- 통일신보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소리방송’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심리 모략 선전”이라고 밝히고 “여기에 ‘한미 동맹 우선’을 떠드는 남조선의 보수 집권 세력이 맞장구를 치며 사태를 더욱 험악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은 더욱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

■ 北방송, 美인권보고서 중, 러 반발 소개(3/1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최악의 인권 위반국’으로 포함된 북한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미국의 인권문제 거론에 중국과 러시아 측이 강력히 반발한 소식을 소개
- 조선중앙방송은 중국 외교부장이 3월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냉전시대 사고방식’이라고 강력 비난한 발언 보도
- 평양방송도 “러시아 외무성이 12일 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

의 허황성을 비난했다”며 “보고서에는 무근거한 비난들과 고용된 소식통들의 왜곡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으며, 그것은 인권분야에서 미국이 이중기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고 성명은 지적했다”고 러시아 입장을 자세히 보도

■ 北, 청소년들에 “일당백 군대 될 준비 갖춰라” (3/1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사로청) 중앙위원회 리용철 제1비서는 15일 학생, 청소년들에게 “일당백의 인민군대가 되기 위한 정치사상적, 육체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라”를 촉구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 따르면, 리 제1비서는 15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린 ‘배움의 천리길’ 85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기념보고를 통해 “오늘 선군시대의 새 세대들인 학생, 청소년들 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영도 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이 언급
- 보고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태복, 김중린,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용진 교육상, 혁명사적·과학·문화예술·출판보도 분야 관계자와 청년동맹 일꾼들, 청소년 등이 참석
 - ※ ‘배움의 천리길’은 김일성 주석이 12세 때인 1923년 3월 중국 만주 바다오고우(八道溝)에서 포평을 거쳐 만경대까지 걸었다는 길로, 이를 기념해 1974년 5천여 명이 이 길을 행군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 청소년들의 답사가 이어지고 있음.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결성 80돌을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3/10, 조선중앙통신)

- 보고회에서 강창욱 농근맹 중앙위원장은 기념 보고를 통해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 보고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중린 당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

■ 반미·체제고수 사상교육 강화(3/10,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최근 주민들에게 반미와 사회주의 체제 고수를 내용으로 하는 사상 교육을 강화
- 조선중앙방송은 개성시에서 당위원회 주관으로 당원과 근로자들에게 ‘계급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표적인 ‘반미 교육장’인 황해남도 신천군의 신천박물관과 곳곳에 세워진 계급교양관 참관사업을 벌이는 동시에 참관 후에는 “복수결의 모임을 진행해서 계급의식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고 보도

나. 경제 관련

■ 오라스콤, 휴대전화서비스 5월 개시(3/13, 연합)

- 2008년 1월 북한의 휴대전화 운영권을 획득한 이집트 이동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은 5월에 북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4년 안에 ‘수백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12일 전망,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 최고경영자(CEO)는 전화회의에서 향후 3년간 이동통신 사업자 면허 취득과 설비투자 등을 위해 북한에 4억달러(약 3천9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오라스콤은 평양을 비롯한 북한 3대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2008년 북한 시장에서 연간 12~15달러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 오라스콤 텔레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내 최대 이동통신회사임.

■ 춘궁기 앞두고 전역서 쌀값 상승 중(3/13, 115호, 오늘의 북한소식)

- 춘궁기를 앞두고 3월 초 평북 신의주시의 쌀값이 2월 말에 비해 20% 이상 인상되는 등 “북한 전역의 쌀값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고 ‘오늘의 북한소식’ 제115호에서 보고, “2월 29일에만도 신의주 쌀값은 1kg에 (북한돈) 1천300원대였는데 3월 5일 현재 1천600원대로 경충 뛰었고, 함흥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1천300~1천400원대에서 1천500~1천600원대로 오르고 있다”고 설명
- 소식지는 “식량 부족으로 평양시 일부 구역은 3월부터 식량 배급을 중단하

기로 했다”면서 “현재 평양에서는 5월에 풀이 나기 전에 식량난이 전국 범위로 확산되면 각종 질병이 창궐하고 아사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평성시장에서도 식량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고 보고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2007년 곡물 생산량을 380만t 안팎으로, 농촌진흥청은 401만톤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의 2008년 식량 부족량은 120만~140만t에 달함.

■ 北인터넷사이트, ‘백두산 홍보 특집코너’ 개설(3/10, 려명홈페이지)

- “백두산관광이 시작된다! 민족의 기상, 민족의 녀이 깃든 백두로.” 오는 5월로 예정된 현대아산의 백두산 직항로 관광을 앞두고 북한의 ‘평양6.15정보기술사’가 홈페이지 ‘려명(<http://www.ryomyong.com>)’을 개설하고 백두산의 지도와 사진,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는 특집 코너를 마련
- 중국 선양(瀋陽)에 서버를 두고 있는 홈페이지는 북한의 도서나 미술품 등을 외국에 판매하고, 동포기업 상표를 북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 대행하는 기능을 수행

다. 군사 관련

■ 北, 주한 美사령관 ‘北미사일 위협’ 발언 비난(3/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고 남한의 미사일방어(MD) 참여 요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우리 공화국(북)에 대한 적대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의 방송보도를 인용, “남조선 강점 미군사령관이 미 국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라는 데서 남조선에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을 강요했다”며 “이 자는 북의 미사일 관련 군사장비와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려니 뭐니 하며 남조선이 그 누구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의 미사일 방위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와 완벽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떠들어 댔다”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은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는 티끌만한 변화도 없고

오직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야망이 골수에 차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北, 평화론은 술책, 국방력 강화 강조(3/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강대국들의 평화론에 대해 “위장평화 술책”이라고 비난하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평화타령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제목의 논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평화타령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사상정신적으로 무장해제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며 “그들은 위장평화 술책으로 저들의 침략적 정체를 은폐하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 또 “제국주의자들은 여론전에서 우세를 이용하여 저들의 침략책동을 평화의 보자기에 감싸 합리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제국주의자들의 평화타령에 귀를 기울이거나 거기에 속아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가 초래된다”고 주장
-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 침략과 전쟁책동을 벌이는 조건에서 자위적 군사력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며 “국방력이 강하면 제국주의자들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한다”고 강조

■ “3각 군사동맹 본격 가동” 비난 공세(3/13, 민주조선: 3/11, 노동신문: 3/8, 통일신보)

- 민주조선은 1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국방연구원(IDA), 일본방위연구소(NIDS)가 ‘제4차 한·미·일 안보워크숍’에서 군사분야 협력을 위한 ‘3국 조정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며 “미국, 일본, 남조선(남한) 호전광들은 교활하게 연구기관을 앞에 내세우고 그 막 뒤에서 군사적 공모 결탁을 강화할 쑥덕공론을 벌였다”고 주장
- 노동신문도 11일 “3각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통일과 번영의 새 민족사를 개척해나가는 우리 공화국(북)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난했으며, 통일신보도 8일 ‘3국 조정위원회’ 구성 합의가 “민족자주, 평화번영으로 나아가야 할 북과 남에 다 같이 이롭지 못하다”고 주장

■ 대화와 전쟁연습, 양립 불가(3/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한미연합 키 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 훈련(3.2~7)에 대해 “대화과 전쟁연습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

라. 사회·문화 관련

■ 김일성大, 다용도 미용마스크 개발(3/16, 내나라)

-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한경희 교수가 미생물 배양 기술을 적용해 피부 미백과 주름 개선 효과를 높인 미용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북한의 웹사이트인 ‘내나라’가 보도

■ 김일성大, 참나무 목초액 개발(3/15, 조선중앙TV)

-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들이 참나무 목초액(木醋液)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조선중앙TV가 소개, 목초액은 참나무로 숯을 만들 때 나오는 연기를 냉각, 액화한 다음 유효성분을 뽑아낸 것으로, 물에 타서 마시는 건강음료나 농작물 촉진제, 해충제, 닭 재생모이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설명

■ 김제원제주농업대학 식물성 농약 개발(3/15, 조선중앙통신)

- 김제원제주농업대학 일꾼과 교원 연구사들이 송충이 등 해충을 잡는데 효과가 있는 식물성 농약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농업 부산물을 주원료로 한 이 농약은 적은 원가로 어디에서나 손쉽게 제조할 수 있으며, 생태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도

■ 北체육단, 소속 축구선수 60% 세대교체(3/15, 조선신보)

- 북한의 각 체육단 소속 축구선수들에 대한 세대교체가 2007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60% 정도가 나이가 어린 신진선수들로 구성됐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선신보는 ‘신진 선수들이 대거 진출한 축구 지역별 경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첫 전국 규모의 축구 대회인 ‘축구지역별 경기’가 1부 팀들인 압록강, 리명수, 평양시, 기관차, 월미도, 경공업성 체육단과 김철주사범대학선수단 등 남녀 12개 팀이 참가해 3월 1일부터 열리고 있다고 보도

■ 北탁구팀, 외국인 없이 5명 올림픽 출전(3/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한국, 일본 등의 스포츠계 일부에서 국가대표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선수를 국적변경을 통해 영입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탁구 대표팀은 자기들의 힘으로 5명의 올림픽 출전 선수를 확보했다고 강조
- 북한은 3월 9일 홍콩에서 끝난 베이징 올림픽 탁구 아시아대륙 예선에서 남자부의 김혁봉, 리철국, 정성만과 여자부의 김정, 김미영 등 5명의 선수가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

■ 北, 인구센서스 준비작업 돌입(3/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금 조선(북)에서는 2008년 인구 일제조사를 위한 준비사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중앙통계국에서는 이미 시험조사 단계를 설정하고 2007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도에서 한 군을 선정해 그 군의 읍(邑)과 한개 리(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소개
- 조선중앙통신은 또 중앙통계국이 시험조사에 앞서 각급 통계기관과 해당 조사지역의 통계 관계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했다고 설명하고, 이 조사를 지원하는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의 대표단이 2007년 10월 시험조사 때 방북했었다고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2008년 10월 1일 북한 전역에서 동시 시작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 총인구수와 나이 및 성별, 지역별 인구분포 상태, 출생 및 사망률 변화 등 인구상태 분석과 인구예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
 - ※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위해 UNFPA 자문관 1명이 평양에 상주하고 있으며, 조사가 본격 시작되는 10월에는 북한 조사요원들을 돕기 위해 10명의 국제기구 관계자가 방북할 예정임. 이 인구센서스의 예상비용 약 550만 달러가운데 400만 달러는 남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

■ 홍당무 크기 풋고추 육종(3/14, 조선신보)

- 농업과학원의 중앙남새(채소)연구소에서 홍당무 크기의 대형 조생종인 ‘온실풋고추1호’를 육종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주로 온실에서 키우는 ‘온실풋고추1호’는 “보기 드문 대과종으로 홍당무와 비슷하거나 더 크며 대당

질량은 보통 100~120g, 최고 150g 이상 나간다”고 소개하고 매운 맛이 덜 해 다양한 요리 재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임.

■ 대동강맥주, 맛의 비결은 ‘공급 속도’ (3/14, 조선신보)

- 뉴욕필하모닉의 평양공연 취재를 위해 방북한 외국 취재진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북한 대동강맥주의 맛의 비결은 ‘공급속도’에 있었다고 조선신보에서 보도
- 한현철 대동강맥주 품질관리과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맛좋은 맥주의 실현은 생산공정이 50%,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봉사공정이 50%의 몫을 차지한다”며 “대동강맥주를 실은 차는 아이들을 위한 콩우유차와 같이 거리를 우선 통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밝힘. 여기에 대동강맥주는 맛있는 맥주 제조를 위해 공정별 온도관리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세계 수준의 맥주’ 생산을 목표로 해외에서 연수받은 기술자들로 구성된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 조선신보는 특히 “분석실은 대동강맥주와 일본, 남조선, 중국,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맥주들을 분석하여 추세를 알아내는 동시에 대동강맥주의 상시적인 상태관리를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소개
- ※ 대동강맥주 공장은 영국의 맥주 생산 업체인 어쉬스맥주의 가동 중단된 영국 현지 공장을 인수한 뒤 그 설비를 해체, 평양으로 옮겨 대동강맥주 회사라는 상호로 설비를 재조립해 2002년부터 생산을 시작

■ 교육도서출판사에서 학생 작품집 출판(3/13, 조선중앙통신)

- 교육도서출판사에서 ‘빛나라 김정일장군의 나라 7’을 출판했으며 작품집에는 72명 학생이 창작한 300여편의 동요, 동시, 작문, 서정시 등이 실림.

■ ‘봄철 위생월간’ 맞아 환경개선 총력(3/13, 조선신보; 3/1, 노동신문)

- 북한 당국이 3~4월 ‘봄철 위생월간’을 맞아 주택과 공장 등에 대한 환경미화과 개선, 녹지 조성 등에 힘을 쏟고 있음. 특히 2008년은 봄과 가을철에 벌이는 ‘위생월간’ 사업이 시작된지 50돌이 되는 데다 북한 정권수립 60돌(9.9)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더욱 독려
- 조선신보는 13일 “올해 건국 60돌을 맞이하는 조선(북)에서는 봄 계절에 진

행하게 되는 위생월간 사업에도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며 환경 미화와 개선을 위한 “균중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 노동신문(3.1)도 ‘봄철 위생월간사업에 적극 떨쳐 나서자’ 제하의 기사에서 올해 정권수립 60돌을 맞는 만큼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 겨울 난 흔적을 말끔히 가실 뿐만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게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

※ 북한의 ‘위생월간’ 사업은 고 김일성 주석이 1958년 5월 4일 ‘보건위생 사업을 전 균중적 운동으로 벌릴 데 대하여’라는 문헌을 발표하고 매년 봄(3~4월)과 가을(9~10월) 두 차례 위생문화사업을 벌이도록 함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 평양, 2011년 태권도세계대회 단독 후보도시로 선정(3/13, 조선신보)

- 평양이 2011년 제17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단독 후보지가 됐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2월 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에서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후보도시로 평양과 스위스의 바젤이 올랐으나 바젤이 연맹규약의 신청 요건을 맞추지 못해 탈락함으로써 평양이 유일한 후보도시가 됐다고 보도, 최종 결정 투표는 9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연맹 총회에서 실시될 예정

※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정하는 남한 주도의 세계태권도연맹(WTF) 주관의 국제대회와 별개로,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이 주관하는 대회임. 2년에 한번씩 열리는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는 2007년 4월 슬로베니아의 블레드시에서 제15차 대회가 열렸으며, 2009년에는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서 제16차 대회가 개최될 예정

■ ‘환경센터’ 설립, 청소년에 환경 교육(3/12, 조선신보)

- 조선자연환경보호기금(KEF, 이하 환경기금)이 청소년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환경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2005년 3월 설립된 북한 환경기금이 “광범위한 인민을 대상으로 계몽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다”면서 환경센터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보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겨울가뭄에 농사철 앞두고 ‘물 확보전’ (3/12, 조선중앙방송)

- 겨울 가뭄을 겪은 북한의 농촌에서 올해 봄 농사철을 앞두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올림픽 성화 4월 28일 평양 시내 봉송(4/12, 연합)

- 2008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4월 28일 평양 시내를 달릴 예정. 중국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는 11일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가 4월 27일과 28일 서울과 평양에서 거행된다고 보도, 베이징올림픽조직위 관계자는 올림픽 성화 남북 종단 여부에 대해 “성화는 27일 밤 특별기 편으로 북한으로 옮긴다”고 언급

※ 성화봉송로는 주체사상탑에서 출발해 5.1경기장-김일성종합대학-조중우의탑-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보통문-인민문화궁전-평양체육관-김일성광장-천리마동상-개선문-김일성체육관까지임.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가 북한에서 진행되는 것은 올림픽 사상 이번이 처음이며 남북한에서 잇따라 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임.

- 또 삼성, 코카콜라, 련상(聯想) 등 후원 3사(각각 6명)와 국제올림픽위원회(2명), 중국대사관(4명)이 선발한 24명 등 모두 80명이 250m씩 모두 2km를 달리게 됨.

■ 조선적십자병원, 설립 60주년(3/10, 조선중앙방송)

-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과 함께 북한의 3대 종합병원으로 꼽히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이 창립 60돌을 맞이함. 조선중앙방송은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이 10일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를 열었으며, 최태복 노동당 비서가 참석해 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을 전달했다고 보도

■ 北남성들, 여성의 날에 화장품 선물(3/11, 조선신보)

- 북한에서 ‘세계 여성의 날’ (3.8)을 전후해 화장품 매장에 여성용 화장품을 찾는 남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 이슬람회의기구 美특사 임명 비난(3/15,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노동신문은 미국이 최근 이슬람 국가들의 최대 기구인 이슬람회의기구(OIC)에 대해 미국 특사를 처음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위선적인 외교 놀음”이라고 비난
 - 노동신문은 ‘검은 속심(속셈)이 비낀 위선적인 외교놀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반 이슬람교적인 행동은 이슬람교 세계에서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슬람교 세계를 기만 우롱하는 위선적인 외교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

나. 북·중 관계

-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베이징시위원회 대표단(단장: 류검 서기) 방북 후 귀국(3/15, 평양방송)
- 김정일, 中후진타오에 재선 축전(3/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중국의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재선출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북·중 친선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후 주석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다시 선거된 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조(북)·중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이어 “전통적인 조·중 친선 협조 관계가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당신(후 주석)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보냄.
 - 김 위원장은 “조선 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축전을 보냈음.
 - 한편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후 주

석과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재선출된 우방귀(吳邦國) 위원장에게 “이 기회에 조·중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계속 공고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축전을 보냄.

다. 북·일 관계

■ 對日 비난 지속(3/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일본이 북한의 핵확산과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테러지원국 해제를 일본인 납치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은 “스스로 제 눈을 찌르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

■ 日 과거청산은 ‘국가 배상’ 방식돼야(3/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일본의 과거청산은 일제의 침략행위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국가적 배상”이 돼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경제협력’으로 될 수 없다”고 강조
- 노동신문은 이날 ‘황당한 궤변’ 제하의 논평을 통해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이 최근 NHK TV에 출연해 “북한이 할 바를 하면 경제적으로 ‘협력’ 하겠다”, “과거청산이란 거대한 경제협력”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 “우리 인민의 감정을 심히 자극하는 온당치 못한 언동”이라고 주장

라. 북·러 관계

■ 북·러, 하산-라진 철도개선 합의문 채택(3/1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알렉세이 메르시아노프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철도공사 대표단이 방북, “조(북)·러 두 나라 철도 기관들이 빠른 시일안에 하산-라진 사이 철도와 라진항의 개진(개선)에 관한 합의문건을 채택하고 착공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회담록이 조인됐다”고 보도
- 메르시아노프 부사장은 방북기간 김용삼 철도상, 림경만 무역상 등 북한측 고위 관료들과 만나 “대상 협조를 적극 추진하는 데서 관심사로 되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하산-라진 사이의 철도와 라진항의 개진을 위한 사업은 가까운 시기에 실천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방송은 보도
- 러시아 철도공사는 북한의 라진과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현대화에 17억5천

만 루블(미화 약 1억달러)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라진항의 화물접수를 위한 컨테이너 처리장도 건설하게 됨.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총리, 신임 淸聯 총리에 축전(3/12, 조선중앙통신)

- 김영일 내각 총리가 재집권한 압둘라 아흐마드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김 총리는 축전에서 북·말레이시아 사이의 관계 강화를 강조

■ 英·北 의회그룹, 문화교류 확대 논의(3/12, 조선중앙통신)

- 영국·북한 의회그룹이 3월 4일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양국간 문화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이번 양국간 “제정당의원단 회의”에서 데이비드 알톤 영·북 의회그룹 위원장이 “양국 사이의 문화교류 확대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회의에는 양국 의회그룹 관계자, 영국 상원의원들과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 북한 외무성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자성남 영국 주재 북한대사도 초청됐다고 보도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北박길연 대사, 南새정부 두고 볼 것(3/10, 연합)

- 박길연 유엔 주재 대사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북한측에 3월 중으로 핵신고를 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단지, 힐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박 대사는 남북관계에 관해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남과 북의 수뇌부(정상)가 상봉해서 공표한 약속은 실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명박씨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두고 볼 것”이라고 언급, 또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완료가 “시

간 문제”일 정도로 북한은 6자회담 합의를 잘 이행했지만 미국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중유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먼저 약속을 이행해야 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

■ 남북문학지 南반입여부가 10·4선언 이행의지 시금석(3/11, 조선신보)

- 북한 문학인들이 남북 첫 공동 문학지인 ‘통일문학’의 남한 보급 문제를 “올해 2월 출범한 남조선 새 정권의 10·4선언 이행의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1일 보도
- ※ 남·북·해외 문학인의 모임인 6·15민족문학인협회는 2월 11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통일문학’ 창간기념회를 가진 뒤 2월 하순 2천부의 창간호를 육로로 남측에 들여올 계획이었으나 통일부가 북측 작품에 ‘수령님’ 등의 글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나. 남북 교류

■ 대북 농업지원물자 4월 첫 전달(3/16, 연합)

-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북 농업 지원에 나서기로 한 충북도가 첫 지원 물품을 4월 중순 북한에 전달할 예정,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정수 도농정본부장이 3월 11일 황해도 봉산군을 방문해 북한측과 대북 농업 지원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충북도는 4월 15일께 첫 농업 지원 물품을 봉산군에 보내기로 함.
- 인천항에서 남포항을 통해 북한으로 가는 지원 물품은 비닐하우스 10동 분량의 자재와 10ha의 밭에 파종할 수 있는 옥수수 종자, 비료 70t, 직파기 8대, 분무기 60대, 경운기 5대, 관리기 6대 등이며 물품 전달에는 정우택 충북지사와 이기동 도의회 의장, 농업 전문가 등 20여명이 방북할 예정, 방북단은 지속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비닐 하우스 설치 요령과 농기계 작동 및 관리 요령 등을 북한측에 전수할 계획임. 충북도는 이번 물품 지원을 계기로 해마다 2억~3억원 규모의 농업 물자를 북한에 지원할 예정

■ 대북지원단체 평양·금강산 방문 이어져(3/14, 연합)

- 한미 연합 '키 리졸브' 군사연습(3.2~7) 기간 중단됐다 재개된 남측 민간 단체들의 평양, 금강산 방문이 이어지고 있음.
- 나눔인터내셔널은 기술자 5명으로 구성된 1개 대표단은 1주일간 평양에 체류하면서 강남군 인민병원과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등에 X-레이 기기와 의료장비용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설치하고 단층촬영(CT)장비와 수술실 자동문 운영 상황을 점검
- 어린이재단(전 한국복지재단) 관계자 7명도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아동 복지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논의
-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14일 오전 금강산 온정리를 방문, 연탄 5만장을 전달한 뒤 대북 협력사업 계획을 북측과 논의 중이며 국제보건의료재단도 14~16일 금강산 온정민병원에서 주민 진료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방북
 - ※ 북한의 금강산과 개성관광 업무를 총괄하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키 리졸브'를 하루 앞둔 3월 1일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금강산, 개성 방문을 중단시켰다가 이 훈련이 끝난 7일부터 다시 방북해 달라고 초청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음.

■ 대북 경공업 원자재 130만불 상당 출항(3/1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에 따라 북한에 제공키로 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중 25번째 항차분이 13일 출항했다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발표
- 협회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30분께 비누, 신발과 관련된 130만달러 상당의 원자재를 실은 배가 인천항을 떠났다”면서 “14일 중 남포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이번 배송을 마치면 북측과 합의한 경공업 원자재 공급의 이행률이 96%가 된다면서 오는 26일께 마지막 항차분이 출항할 예정”이라고 언급

■ 월드비전·농기계업체, 北에 농기계 12대 지원(3/12, 연합)

- 대북지원 단체인 월드비전과 농기계 생산업체들은 감자, 채소 농사에 필요한 트랙터 등 농기계 7천여만원 어치를 북한에 전달할 예정, 월드비전 관

계자는 12일 “익산농기계와 LS전선을 비롯한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개성을 방문해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실무접촉을 갖고 감자 파종기, 수확기와 트랙터, 비료살포기, 병충해 방제기 등 모두 12대의 농기계를 채소육종 협력사업 대상인 평양 미림남새연구소에 제공기로 했다”고 발표, 월드비전은 농기계를 19일 인천항을 통해 남포항으로 보낼 계획

■ 북한 결핵어린이 지원 의약품 인천 출항(3/12, 연합)

- 북한 결핵어린이돕기 범국민운동본부(총재 이윤구)는 12일 인천항 1부두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결핵약 출항식’을 가짐. 운동본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물품은 결핵약과 종합영양제 등 3억원어치 의약품으로 1만명분임.

■ 국제백신연구소, 북한 어린이에 접종 지원(3/12, 연합)

- 국제백신연구소(IVI)는 4월과 5월에 북한을 방문해 남포직할시에 있는 어린이 3천여명에게 수막염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12일 발표, 이번 접종은 북한 의학과학원(AMS)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통일부의 기금 지원과, 글로백, 산타바이오테크닉스, GSK백신 등 백신 개발업체의 기부로 실시

■ 경남 시민단체, 평양에 양묘온실 조성(3/10, 연합)

- 경남의 민간 통일운동단체가 평양시내에 양묘온실을 짓기로 합의하고 북측 산림을 푸르게 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나섬.
- 사단법인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 (이사장 박창균 신부)은 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양시내에 990㎡ 규모의 양묘온실 2채와 관리를 지은 후 9천900㎡ 규모의 노지 양묘장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3.17-3.23

3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군사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북·러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 경계 촉구(3/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의 자그마한 요소도 철저히 경계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이 이른바 원조와 협력의 간판을 들고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는 척 하는 것은 이 나라들에 침략의 손길을 깊숙이 뻗치며 예측의 쇠고랑을 채우려는 데 속심(속셈)이 있다”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완화 전술, 유화 전락을 쓰고 있는 데 각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그들의 술수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 또 “부르주아 사상문화는 극단한 개인 이기주의에 근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쪼먹는 유해로운 독소”라면서 “부르주아 사상문화에 물 젖게 되면 사회와 집단의 이익보다 자기 개인의 이익과 안일만 추구하게 되며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비판
- 신문은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감수성이 빠른 청년들을 사상문화 공세로 녹여내는 데 특별한 힘을 쏟고 있다”며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육의 중요성을 지적

■ 노동신문, '한미동맹 강화' 직접 비난(3/22,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해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해치는 매국반역적인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난
- 노동신문은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 동맹 강화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요즘 남조선(남한)의 친미 호전세력들이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강화'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그것을 이른바 외교면에서 '최대의 과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어 “남조선의 친미 보수세력들이 미국과 동맹을 남조선의 안보와 이익을 위한 것처럼 떠벌이지만 그 반민족적 성격은 결코 가릴 수 없다”면

서 “역사적으로 볼 때.. 남조선의 친미사대 매국노들이 미국과 동맹을 악랄하게 추구한 결과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북침전쟁 발발의 위기가 끊임없이 고조돼왔다”고 경고

- 평양방송은 남한에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결국 미국은 미·일·남조선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압력과 군사적 봉쇄를 보다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

■ 10·4선언이행 전민족 투쟁 역설(3/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그 어떤 역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휘날리며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10·4선언이야말로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지침”이라고 거듭 역설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회의 개최(3/20, 조선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회의가 4월 9일 평양에서 개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3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을 채택,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를 주체97(2008)년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상임위원회는 4월 7일과 8일 양일 간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등록을 진행한다고 발표

■ 리룡남 무역상 승진 기용(3/18, 조선중앙통신)

- 내각의 무역상(장관)에 리룡남 부상(차관)이 승진 기용된 것으로 확인,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내용의 영문기사에서도 리룡남을 무역상(Minister of Foreign Trade)으로 언급
- ※ 리룡남은 1998년 무역부 보좌관을 거쳐 2001년 4월부터 무역성 부상을 맡아왔으며, 2004년 10월부터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겸직

나. 경제 관련

■ 北기계설비전시회, ‘입체 설계’ 인기(3/23, 조선신보)

- ‘트락토르(트랙터)의 3차원 설계자료’, ‘기계를 3차원의 CAD(컴퓨터설계) 도면으로 그리는 프로그램’, ‘컴퓨터와 작도기(제도기)를 이용한 발전설비 설계’, 조선신보는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과 기계공업성 기계설계지도국이 3월 19~21일 평양 중앙경공업제품건본관에서 공동 주최한 제4차 전국기계설계부문 경연 및 전시회에서 기계설비 도면을 입체적으로 도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다고 소개
- 신문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북한 각지의 기계설계, 과학연구, 교육부문과 공장, 기업소 등 200여개 단위에서 1천여명이 참가했으며 400여건의 설계전시품이 전시

■ 평양 중심도로 재포장 공사 개시(3/21, 조선중앙방송)

-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 중심 도로들에 대한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시작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재포장 공사는 평양의 서북쪽에 위치한 비파거리, 모란봉거리, 영웅거리, 봉화거리, 낙원거리 등 중심 도로와 빙상관 앞 도로, 보통문 가로, 서성역 가로 등에서 이뤄진다고 방송은 설명
- 방송은 공사에 “군인 건설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드높은 애국적 열의에 의해 머지않아 시안의 중심 도로들의 면모는 더욱 일신돼 봄 기운이 약동하는 수도의 풍치를 한껏 돋구게 될 것”이라고 보도
- ※ 앞서 노동신문은 2007년 10월 24일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시 도로의 전면 재포장 공사를 지시했으며 공사를 “군인 건설자들”에 맡겨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고 시멘트 등 공사자재는 내각과 성(省), 평양시 관계기관과 기업소에서 책임지고 조달하도록 했다고 보도

■ 보온못자리 뽕씨 파종 시작(3/20, 조선중앙TV)

- 황해남도 연안군 오현협동농장에서 ‘벼 냉상모판’ (보온못자리) 씨 뿌리기를 시작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 북한은 통상 3월 중순에 벼 냉상모판에 씨를 뿌려 5월 초순부터 모내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옥수수는 4월 초순에 포토에 파종한 뒤 4월 하순에 이앙

■ **상품 광고도안 발전 강조(2008년 1월호, 조선예술)**

- 월간 예술잡지 '조선예술' 최근호(2008.1)는 “물질문화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상업미술, 특히 상품 광고도안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광고도안의 중요성을 강조

■ **北협동농장, 인력지원없이 자력농사 바람(3/17, 조선신보)**

- 최근 북한 각 지역 농촌에서는 북한 당국의 인력 지원없이 협동농장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모내기와 추수를 위해 인력지원을 받게 되면 상응한 대가를 지출해야 하지만, 자력으로 해결하면 그만큼 농장과 농장원에게 돌아오는 분배몫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다. 군사 관련

■ **한미 공중훈련 “北선제타격 목표” 비난(3/22,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연일 공중훈련을 함께 벌이고 있다며 “유사시 우리 공화국(북)을 불의에 선제 타격하기 위한 극히 위험한 불량난 소동”이라고 비난
- 조선중앙방송은 ‘군사소식통’을 인용, “19일과 20일 미제 침략군과 남조선군은 20~30대의 각이한 기종의 비행기들로 타격대를 편승하고 남조선의 태백, 영월, 평창 일대 상공을 작전무대로 지상목표물을 순차적으로 공습하는 연습에 광분했다”고 주장, 또 “17일과 18일 해외기지에서부터 출동한 E-3의 종합지휘 밑에 4천500여대의 미제와 남조선군 전투폭격기, 습격기, 추격습격기, 무장직승기(헬기)들이 공중목표 포착과 공중전, 지상대상물 기습 타격, 근접 항공지원, 공수작전 등 종합적인 공중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면서 이미 짜놓은 조선전쟁 시나리오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 분별없이 돌아쳤다”고 비난

■ **김룡연 인민군 차수 사망(3/20, 노동신문)**

- 북한의 ‘혁명 1세대’ 인 김룡연 인민군 차수가 92세로 사망했다고 노동신문

이 20일 부고를 통해 보도

- 량강도 혜산 출신으로, 일제시대 김일성 항일유격대에서 전령(연락병)으로 활동했으며 북한 정권수립 후에는 제1집단군 정치위원, 외교부 국장, 평양 방어사령관 등을 거쳐 ‘혁명 유자녀’ 전문 교육기관인 만경대혁명학원장을 지냄.

라. 사회·문화 관련

■ 北올림픽위원장에 박학선 임명(3/23, 중국외교부웹사이트)

- 북한올림픽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북한 체육계의 수장인 박학선 내각 체육 지도위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23일 확인됨. 중국 외교부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신임 박학선 위원장을 면담해 평양에서의 올림픽 성화봉송 준비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사실을 공개
 -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월 제17차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개막식에서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이 개막사를 했다고 보도해 박 위원장이 체육지도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공개, 그는 1985년 청년조직인 사회주의노동청년연맹 중앙위원회 체육부 부장을 지냈으며 2006년부터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 한편 2004년부터 체육지도위원회를 이끌었던 문재덕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2007년 12월 26일 ‘오산덕상’ 체육대회 폐막식에 참석한 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

■ 베이징올림픽 메달 10개 이상 목표(3/23, 교도통신)

- 북한이 베이징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해 메달을 10개 이상 따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
- 조선올림픽위원회 기술훈련 분과 정해만 부위원장은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북측 선수 50여 명이 10개 종목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으며 “우리의 메달 목표는 10개 이상”이라고 언급, 정 부위원장은 여자축구, 역도, 유도, 복싱, 마라톤에서 올림픽행 티켓을 확보했고, 앞으로 레슬링과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에서도 출전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베이징올림픽에 북한은 10개 종목 50여 명만으로도 최근 보기 드문 규모의 선수를 파견할 예정, 북한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10개 종목 32명,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는 마라톤, 유도, 역도, 레슬링, 복싱, 다이빙, 체조, 탁구, 사격 등 9개 종목에 36명을 출전시킨바 있음.

※ 북한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금 4, 동메달 5개를 따내며 종합 16위에 올랐지만 1996년 애틀랜타에선 금 2개, 은 1개, 동 2개에 그쳤고, 시드니(은 3개, 동 1개)와 아테네(은 4개, 동 1개)에선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함.

■ '4월의 봄축전' 연례서 격년으로 바뀌 개최(3/23, 조선신보)

- 북한이 고(故)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을 맞아 1982년부터 해외예술인들을 초청해 연례적으로 치러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2008년부터는 격년으로 개최

- 조선신보는 '제1차 태양절기념 전국예술축전' (4.10~18)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축전을 2년 주기로 정례화해 기존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번갈아 열 것이라고 밝힘.

- 국제행사인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격년으로 줄어든 것을 의식한 듯 북한은 전국예술축전을 성대하게 치를 계획으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예술축전'이 "전인민적인 예술축전"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종전의 관례를 벗어난 매우 성대한 축전"이라고 강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버금가는 성대한 예술행사라는 점을 강조

※ 북한은 김 주석의 70회 생일을 계기로 처음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개최한 이후 이듬해인 83년을 제외하고는 2007년까지 25회에 걸쳐 세계 각국의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을 대거 초청해 진행, 2007년 축전에는 영국의 유명 성악가 수잔나 클라크가 참석했고 미국의 인기 가스펠 그룹인 '캐스팅 크라운즈'도 초청돼 유명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북한의 인기곡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등을 불렀음. 가수 김연자씨도 2001년과 2002년 잇달아 초청돼 공연한 바 있음.

■ 위성기상자료 수신시스템 새로 도입(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07년 세계기상기구(WMO)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위성자료 수신

시스템을 갖췄다고 북한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연구소의 류기렬 소장이 22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류 소장은 '세계기상의 날'(3.23)을 맞아 "최근 세계기상기구와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기상기구의 자원 협조계획의 틀 안에서 지난해 위성자료 수신체계가 새로 도입돼 위성자료를 통한 기상감시 체계가 세워져 나라의 기상위성 이용이 더욱 활발해지게 됐다"고 언급

- 이와 관련, 폴 가우드 WMO 공보관은 2007년 12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기상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며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이로 인해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 농업현실에 맞는 기상정보를 제공하려면 현대화된 첨단 기상 장비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첨단장비 운영을 배우지 않고, 연례회의 등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 장비 지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힌바 있음.

■ 평양산원 28년간 세쌍둥이 371쌍 출산(3/22, 평양방송)

- 북한 최대의 산부인과 병원인 평양산원에서 28년간 371쌍의 세 쌍둥이, 네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거리에 자리잡은 평양산원은 연건평 6만㎡에 1천 500개의 침상을 갖추고 있으며 '산과' 및 '애기과' 외에도 산부인과 질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임상연구소와 의료진 양성소를 갖추고 있음.

■ 北, "수질좋은 샘물을 식수로 이용" 자랑(3/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평양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천연 샘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수질을 자랑, 통신은 "오늘 조선에서는 많은 양의 천연 샘물이 인민들의 먹는 물로 공급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발견된 수질이 좋고 물량이 풍부한 샘들만 해도 수천개나 된다"고 보도

■ 올해 북한전역 양로원 개보수(3/21, 조선신보)

- 북한이 2008년 평양시인민위원회 양로원 창립 60돌을 맞아 북한 전역의 양로원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들어간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북한이 "노인들에게 보다 윤택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전국의 양로원 시

설 개보수 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 사업이 “국가적 투자로” 진행된다고 보도

- 신문은 평양시인민위원회 양로원의 창립 60돌을 맞아 3월 12일에는 조선 연로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전국의 양로원장들이 이 양로원을 견학하고, 양로원 개보수 추진과 노인들의 식생활 수준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 그러나 북한의 양로원 운영 실태나 구체적인 개보수 일정은 소개하지 않음.

■ 北, 유럽인엔 15일, 미국인엔 5일 관광 허용(3/21,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북한 관광을 하는 유럽인들에겐 최장 15일 동안 체류를 허용하면서도 미국 국적 관광객에겐 4박 5일로 제한하는 등 유럽인보다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스웨덴의 북한전문 여행사인 ‘코리아 콘설트’의 줄리아 달라드 대표가 언급
- 달라드 대표는 또 “유럽 관광객들은 연중 어느 때나 방북할 수 있지만 미국인 관광객들은 아리랑 축전때만 북한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

■ 베이징올림픽 北최고령 성화주자는 박두익(3/21, 연합뉴스; 3/20, 신화통신)

- 오는 4월 28일 평양에서 베이징올림픽 성화를 들고 달릴 북한측 최고령 주자로 1966년 런던월드컵의 영웅 박두익이 선발된 것으로 확인, 고철호 북한올림픽위원회 서기국 집행서기는 20일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양 성화봉송에 참여하는 북한측 성화주자 56명 가운데 최고령은 박두익이라고 언급
 - ※ 박두익은 1936년 12월생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70세인 것으로 소개, 그는 런던월드컵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였던 대 이탈리아전에서 결승골을 넣어 북한의 8강 진출 신화를 만들어낸 주인공
- 고 집행서기는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라 500여명의 지원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가 번영 및 건설에 공헌을 한 공무원, 노동자, 농민, 체육분야 종사자로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명 선수와 지도자 등을 성화주자로 선발했다”고 설명

■ 北, 결핵발병률 높지만 관리는 양호(3/21, 연합뉴스)

- 북한의 결핵환자 발병률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당국의 결핵 환자 관리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 WHO는 최근 발표한 '세계 결핵통제 보고서'를 통해 2006년 기준으로 북한 결핵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178명 꼴로, 발병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평가

■ 北올림픽족, 베이징올림픽 대책 논의(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20일 평양에서 연차총회를 열고 오는 8월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곡창지대서도 식량배급 중단(116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에서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곡창지대인 황해남도를 포함, 곳곳에서 쌀 배급이 끊겼을 뿐 아니라 평양에서조차 일부 중하위 간부들은 3월 현재 식량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보고

■ 평양시내 보건소 일제히 현대화(3/18, 조선신보)

- 북한이 오는 6월중으로 평양시내 종합진료소와 리(里) 인민병원들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완료한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北박길연대사, HEU·시리아 핵협력 의혹 부인(3/20, 연합뉴스)

-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및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을 전면 부인, "북한은 HEU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시리아에 준 것도 없으며, 미래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엔 관계자가 언급

■ 北 김계관 부상, 제네바 북미 회동 마치고 귀국(3/18, 연합)

- 북핵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18일 제네바 북미 회동을 마치고 평양으로 귀국

나. 북·미 관계

■ 美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응해야”(3/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미국에 대해 “침략과 전쟁을 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에 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

다. 북·중 관계

■ 北 외무성, 티베트 유혈사태 中 입장 지지(3/20, 북외무성대변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중국 티베트자치구 라싸에서 발생한 분리독립 요구 유혈시위 사태와 관련, “티베트의 사회적 안정과 법률, 티베트 인민들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표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혈시위 사태를 “티베트의 독립을 꾀하고 당면한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를 파탄시키려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이라고 규정

■ 北, 티베트사태 中 주장만 보도(3/1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9일 티베트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를 “폭력범죄 사건”으로 주장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만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

■ 北 박의춘 외무상, 中 양제츠 외교부장 유임에 축전(3/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유임된 양제츠(楊潔지중국 외교부장에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라. 북·일 관계

■ 후쿠다정권 대북적대정책 추구, 연일 비난(3/19, 민주조선)

- 북한은 일본 후쿠다정권이 북한인권 상황을 문제삼으면서 대북제재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연일 비난 공세
- 민주조선은 ‘아베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던 18일에 이어 19일에도 ‘불순한 목적을 노린 인권소동’ 제하 논평을 통해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 연장을 주장한 것을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후쿠다 정권도 선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

마. 북·러 관계

■ 北철도상 방러...러사와 합영계약 체결 예정(3/21, 연합; 조선신보)

- 북·러 양국이 하산-라진 철도구간 및 라진항 개보수 공사에 합의한 가운데 북한의 김용삼 철도상이 오는 4월 중 러시아를 방문, 합영회사 설립을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복수 대북소식통들은 21일 “현재 북러 철도당국이 하산-라진 간 물류수송을 담당할 합영회사 설립을 위한 검토 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4월 중 김용삼 철도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계약서에 서명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
-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러시아철도주식회사 대표단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 하산-라진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수송을 담당할 합영기업 창설을 위한 법적, 기술적 문제에 합의하는 회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합영회사는 앞으로 한국 등으로부터 외자를 끌어 들여 하산-라진 철도와 라진항 3호 부두를 개보수하고 향후 라진항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계하는 국제화물 수송을 담당할 예정
- 한편 조선신보는 21일 “조선과 러시아 철도기관은 빠른 기일 내에 하산-라진 사이의 철도와 라진항 개건에 착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올해 중에 라

진향으로부터 유럽까지 시범 화물수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

■ 북·러 협조관계, 더욱 발전할 것(3/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북·러간 경제·문화협조협정 체결 59주년을 맞아 게재한 논설에서 북한과 러시아 양국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

바. 기타 외교 관계

■ 北김영남, 나미비아 전 대통령 면담(3/23, 조선중앙통신)

- 나미비아를 방문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2일 샘 누조마 전 나미비아 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자리에는 박의춘 외무상과 안희정 나미비아 주재 대사가 배석
- 김 상임위원장 일행은 20일 나미비아에 도착해 포함바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21일에는 북한의 기술지원으로 건설된 나미비아 대통령궁 준공식에 참석

※ 박의춘 외무상, 리룡남 무역상, 최창식 보건상, 리경식 농업상 등 내각의 경제분야 각료들을 비롯해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이번 사절단의 아프리카 순방은 2005년 4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 최대 규모, 북한 매체들은 18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나미비아, 앙골라, 우간다를 공식 친선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으나, 뒤늦게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일성大 대표단 독일 방문(3/22, 조선중앙통신)

- 성자립 총장을 단장으로 한 김일성종합대학 대표단이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22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 쿠바여성연맹대표단 평양 방문(3/22, 조선중앙통신)

- 수리나 아코스타 브룩스 쿠바여성연맹 산티아고데쿠바주(州) 총재를 단장으로 한 쿠바여성연맹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

■ 베를린 北대사관 호스텔로 사용 예정(3/21, 산케이신문)

- 독일 베를린에 있는 북한대사관이 올봄부터 대사관 건물 두 동 중 한 동을 호스텔(간이호텔)로 꾸며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할 계획이라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 산케이에 따르면 호스텔로 사용될 건물은 대사관 대지 8160㎡(2468평)의 남측 5층짜리 건물로, 2008년 1월 개장 공사를 시작, 1층은 10개실, 2층은 27개실로 1박에 20유로(약 3만1000원)를 받을 예정
- 산케이는 독일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텔로 사용하는 남측 건물은 외교 사무를 보는 북측 건물과 분리돼 이용됐기 때문에 치외법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도, 북한대사관은 옛 동(東)베를린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냉전시대에 서방 국가들의 대사관 건물을 압도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건설됐다고 알려짐.

■ 인도공산당 대회 참석(3/20, 조선중앙통신)

- 리영수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20일 인도공산당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 대표단은 인도와 함께 이란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보도

■ ‘파키스탄의 날’ 을 기념 북·파키스탄 친선모임 개최(3/20, 조선중앙통신)

- ‘파키스탄의 날’ 은 20일 평양6월9일대성제1중학교에서 열렸다고 보도, 이날 모임에는 누를라흐 한 파키스탄 대사와 북·파키스탄 친선협회 위원장인 길철혁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등이 참석

■ 북·쿠바 단결위원회 연례회의 개최(3/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쿠바 단결위원회 연차회의가 19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회의에는 단결위 부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 연락위원회 부위원장과 호세 몬타노 주북 쿠바 대사 등이 참석

■ 평양교예단, 북·몽골 수교 60주년 기념공연(3/19, 조선중앙통신)

- 평양교예단이 북·몽골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몽골을 방문, 울란바토르에서 공연 중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3 대남정세

■ 10·4선언 이행 강조(3/23, 연합)

- 중소기업인 참관단과 함께 방북해 평양에서 만난 북측의 대남 관계자들은 이산가족 상봉 등 향후 남북간 인도적 사업에 관해 문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작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합의된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
- “인도주의 사업은 10·4(남북정상)선언에 명시된대로 하면 된다.” 림용철 민족화해협의회 참사는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미 10·4선언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며 “선언에 나와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남한의 새 정부가 아직 '10·4선언' 이행에 대한 검토를 끝내지 못한 것 아니냐면서 “당분간 시간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함. 실제로 림 참사는 “'10·4선언'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며 “남북 양측 정상간 합의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백짓장이 된다면 앞으로 남측의 누구와 무엇을 합의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

■ 아천글로벌, 北남포 배수리공장 이용권 확보(3/23, 연합)

- 김윤규 회장의 아천글로벌코퍼레이션이 북한의 남포시에 있는 령남배수리공장의 이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아천은 이곳에 선박수리공장, 용접기능공 양성센터, 철구조물 제작사업 등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곳을 경제특구로 개발할 계획
- 아천측은 령남배수리공장 사업에 대해 아직 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초기엔 용접기 조립 사업 등을 임가공 형태로 진행하면서 앞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면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힘.
- 아천은 4월 5일 개성에서 남측 500여명, 북측 100여명이 참가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갖기로 북측과 의견을 모으고, 이 행사를 위한 실무교섭을 계속해 나가기로 함.

■ 올림픽 성화, 전세기로 서울-평양 직접 봉송(3/21, 연합)

- 2008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4월 27일 서울에서 평양으로 특별전세기 편으

로 직접 봉송되는 것으로 확인됨. 21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대한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올림픽 성화는 4월 27일 서울 봉송을 마치고 밤 늦게 인천공항에서 서해 직항로를 거쳐 다음날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 대한올림픽위원회 관계자는 “베이징올림픽 성화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평양에 도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언급
- 평양에 도착한 성화는 봉송주자 80명의 손에 들려 주체사상탑부터 김일성체육관까지의 2km구간을 이동하며 삼성과 코카콜라, 렌샹 등 올림픽 후원 3사에 한해 차량 광고가 허용돼 평양 시내에서 삼성의 광고판도 볼 수 있게 될 예정

■ 평화항공여행사, 평양관광 신중히 추진(3/21, 연합뉴스)

- 평화항공여행사는 6월 평양골프관광과 8월 평양 아리랑축전 관광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
- 평화항공여행사 관계자는 “6월과 8월의 평양관광은 준비하는 기획 단계”라면서 “아직 통일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북측과의 협의에 따라 통일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 그는 평양관광의 예약 상황에 대해 “우리 여행사를 통해 그동안 평양을 방문한 사람이 3천명을 넘는다”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재방문 희망자들이 2005년 평양관광 이후로 꾸준히 선예약을 하고 있어 현재 3천여명의 예약을 받았다”고 밝힘.

■ 김문수 경기도지사 개성에서 식목행사 예정(3/20, 연합뉴스)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월 북한 개성을 방문, 식목행사를 가질 예정,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4월 10일에서 12일 사이 개성시 개풍을 하루 일정으로 방문, 식목행사를 하기로 하고 조만간 실무진을 북한에 파견, 방문 시기와 일정, 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계획

■ 코레일 전북지사, 금강산 관광열차 운행(3/20, 연합뉴스)

- 코레일 전북지사는 오는 4월 25일 기차를 이용해 금강산을 찾아가는 ‘금강산 관광열차’를 운행한다고 20일 발표, 이 상품은 오후 9시 30분에 전주역을 출발해 다음 날 새벽 강원도 춘천의 김유정역에 도착한 뒤 버스로 금강

산에 들어가 만성정, 안심대, 망향대 등을 둘러보고 금강산 온천을 하는 무박 3일 코스

■ 개성관광 안내 책자 발간(3/18, 조선신보)

- 남한 주민들의 개성관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사회과학원이 개성의 문물을 소개한 도서 '개성의 역사와 문화'를 펴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선신보에 따르면,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펴낸 이 책은 개성의 유적과 유물, 전설, 민요시가, 풍속, 천연기념물,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개성의 자연과 역사, 문화 전반을 체계적으로 소개

■ 새 정부 첫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3/18, 통일부)

-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이뤄짐.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2008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 참가중인 북한 선수단의 숙박비와 식대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1천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남북이산가족 1분기 상봉 전망 불투명(3/18, 연합뉴스)

- 남북이 제9차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을 연간 400명씩 만나게 하기로 합의했으나 2월 초부터 남북 적십자간 대화가 끊어져 1분기 상봉 전망이 불투명
- 남북은 2007년 12월 제9차 적십자 회담에서 올해부터 연간 400명 정도씩 이산가족이 상봉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2월 5일 영상편지를 교환한 이후 북측 적십자와 대화가 끊기면서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3.24-3.30

3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군사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北 ‘북한인권보고관’ 연장 결의 “전면 배격”(3/29, 외무성대변인;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9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결의한 것은 “미국의 사측(사주)을 받은 EU(유럽연합)와 일본의 반공화국(북한) 정치모략 책동의 산물”이라며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 그러나 외무성 대변인은 이 결의에 한국이 찬성한 사실은 거론하지 않음.
- 대변인은 결의안이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에 편승한 EU와 일본이 주동이 되어 일부 불순 세력들을 굽어모아 겨우 강압채택”됐으며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버리려는 데 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
- 대변인은 이어 “이번에 강요된 ‘결의’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우리 사이의 협력을 파괴하고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후과는 전적으로 그들 자신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여맹 새 위원장에 로성실 선출(3/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7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제52차 전원회의에서 박순희 위원장을 “해임 소환”하고 로성실 부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신임 로 위원장은 2002년 2월 여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2007년 1월 여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랐으며 2002년 5월과 9월 여맹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과 스위스를 잇달아 방문, 2000년부터 여맹을 대표해온 전임 박 위원장의 거취는 확인되지 않음.
- ※ 여맹은 1945년 북조선민주여성동맹을 전신으로 한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로 다른 단체에 속하지 않은 31~55세의 여성이 가입할 수 있음.

■ 농근맹 토끼사육 열성자회의 개최(3/27, 평양방송)

-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26일 평양에서 토끼기르기 열성자회의를 개최, 회

의에는 김종린 당 중앙위 비서와 리경식 농업상, 강창욱 농근맹 위원장 등이 참석

나. 경제 관련

■ 北 SW개발 언어처리, 인공지능에 강점(3/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북한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수준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랐으며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 목표로 삼은 2012년이면 “전면적인 개화기”를 맞을 것이라고 김책공업종합대학교 정보과학기술대학의 류순렬 학장이 언급했다고 보도
- 조선신보는 북한의 정보산업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발전,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수준이 됐다고 하며, 북한이 최근 외국의 최신설비를 들여다 공장과 기업소를 현대화할 때 “이들 설비의 조종에 관한 기본프로그램 이외에는 그 공장과 기업소의 실정에 맞게 모든 프로그램을 새롭게 짚다”고 소개
-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정보산업지도국 산하에 조선컴퓨터센터(KCC), 평양정보센터(PIC)를 비롯한 전문기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 그리고 성, 중앙기관에 구성된 정보센터 등이 망라되어 프로그램을 개발

■ ‘친환경 농약’ 개발, 전국 보급(3/29, 조선중앙방송)

- 농업과학원이 최근 다양한 생물농약을 만들어 전국 각지에 보급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조선중앙방송은 농업과학원 식물보호학연구소 과학자들이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기술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농업 생산 실천에서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했다”고 보도

■ 北 ‘700리 물길’ 통수 시작(3/27, 조선중앙통신)

- 봄 농사철을 맞아 ‘700리 물길’인 평양북도 백마-철산수로에 물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 당국이 2003년 3월 착공해 2005년 10월에 완공한 뒤 “웅대한 대자연 개조”로 부르고 있는 백마-철산 수로

의 이번 통수(通水)로 “평안북도의 여러 시·군의 관개용수가 보장되고 있다”고 통신은 언급

- 총 연장 279.3km인 백마-철산수로는 평북 백마저수지에서 피현-룡천-염주-동림-철산 등 5개 군, 22개 리와 신의주시 일부 지역의 농경지 4만6천여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경제재건 위해 ‘천리마’ 정신 강조(3/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사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후 천리마 대고조 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 것은 찾아내어 있는 노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언, 그러나 신문은 김 위원장이 언제, 어디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음.

■ 경제연구, 자본주의시장 진출위해 수출구조 개선 촉구(2008년 1월호, 경제연구)

-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 뚫고 들어가야 하며 그에 맞게 수출입 구조와 무역방식을 우리 식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경제연구’ 최근호(2008.1호)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북한)에 대한 제압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짓부수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 시장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

다. 군사 관련

■ 서해상서 미사일 발사 시도(3/28, 연합)

- 북한이 3월 25~26일 서해상에서 스틱스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려다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군 소식통은 28일 “북한군이 25일 오전부터 26일 낮 12시까지 서해 남포 해상 일대에 민간선박에 항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사거리 46km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150t급 유도탄고속정 1척을 대기시킨 것이 포착됐다”고 발표
- ※ 북한군은 2007년 말 시작돼 4월까지 진행되는 동계훈련에서 전투기 출격과 전차 포사격 훈련은 물론 일부 미사일부대의 훈련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서해상에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3/28, 연합뉴스)

- 북한이 28일 오전 10시30분쯤 서해상에서 옛 소련제 스틱스 함대함(艦對艦) 미사일(사정거리 46~50km) 3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 북한이 함정에서 상대방 함정을 공격하는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8년 만의 일임.
- 정부 소식통은 28일 “북한이 황해남도 비파곶·초도 인근 해상에 있던 미사일 고속정에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북서쪽으로 발사했다”며 “미사일들은 최대 사정거리를 모두 날지 않고 20여km쯤 날아간 뒤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 ※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6월 KN-02 단거리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사정거리 120km) 발사 이후 9개월 만임.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국제기구와 결핵 퇴치 공조(3/29, 조선신보)

- 북한이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으로부터 결핵 진단 장비를 지원받기로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해 국제기구와 공조를 강화,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3월 24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에바 에릭슨 IFRC 동아시아지역 담당 국장과 테즈 왈리아 세계보건기구(WHO) 평양대표 등을 초청해 북한의 결핵 통제 현황을 소개하는 사진 전시회와 예술소품 공연 등을 진행
- 이 행사에서 에릭슨 국장은 “연맹(IFRC)이 조선(북한)에서 벌어지는 결핵 통제를 위한 활동을 계속 후원할 것”이라며 “각지의 전문 의료 봉사 기관들에 결핵균 검사용 현미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왈리아 대표도 “결핵 예방을 위한 2년간의 캠페니아(캠페인)를 국제적 판도에서 벌여나갈 기구의 계획”을 발표
- 보건성 리봉훈 부상은 행사에서 “결핵 퇴치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모든 보건 기관에서 결핵 예방을 위한 대중 계몽사업을 벌여 “가까운 앞날에 ‘결핵없는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언급

■ 평양 전체 주민 질병예방 건강검진(3/29, 조선신보)

- 평양시 보건 당국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벌

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이번 건강 검진은 “질병들을 제때에 찾아내 조기에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모란봉구역과 락랑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보건기관들에서 주민 검진이 시작됐다”고 신문은 보도

- 신문은 보건 당국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종양과 등 전문과별로 검진을 실시한 뒤 발견된 질병과 환자상태에 따라 종합진료소와 구역·시급병원으로 보내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

■ 北, 제주 아레슬링대회 금1, 은1, 동2 획득(3/2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08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3.18~23)에서 금, 은 각 1개와 동메달 2개를 따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이번 대회가 제주에서 열렸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아시아 18개국과 지역에서 48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양춘성 선수가 자유형 66kg급에서 우승했다고 보도

■ ‘전염병과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4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3/26, 조선중앙통신)

- 김일성 주석의 논문 ‘전염병과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40주년 기념보고회가 25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행사에는 리광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김정웅 보건성 부상 등이 참석

■ 함북 청진서 여성 1만명 집단항의(117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의 나이를 5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 때문에 3월 초 함북 청진에서 1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장사를 하게 해 달라”고 ‘집단항의’를 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의 주간 북한소식지가 주장

■ 北문학자, 운동주는 반일 애국시인(2008년 2월호, 조선문학)

- 월간 문학지 ‘조선문학’ 최근호(2008.2)는 시인 운동주(尹東柱, 1917.12-1945.2)를 “해방전 진보적 시 문학의 마지막 시기를 장식한 애국 시인”이라고 평가

■ 9월부터 초등3년 영어·컴퓨터 조기교육(3/26, 조선신보)

- 2008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영어 및 컴퓨터 조기교육을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조선(북한)의 교육부문에서도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는 인재 양성에 관심을 돌리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중학교(중·고등학교)에서 배우던 기초부문을 소학교(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

※ 북한의 소학교는 4년제이므로 학생들은 종래보다 2년 앞당겨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게 됨.

■ 北여성지, 에이즈 예방 홍보(2008년 2월호, 조선여성)

- 조선여성지는 북한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없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에이즈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독자들에게 주문

※ 북한은 2007년 12월 평양에서 WHO, 유엔에이즈기구(UNAIDS),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관계지들과 각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세계 에이즈의 날’ 국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에이즈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북한은 1988년 ‘국가에이즈위원회(National AIDS Committee)’를 창설했으며 에이즈예방사무소를 중앙위생방역소에 통합, 각 도(道) 위생방역소에서 에이즈 검역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피임기구 사용 등 에이즈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음.

■ 고구려 ‘자주외교’ 역사서 출간(3/25, 조선신보)

- 북한이 고구려의 자주적 대외정책 등을 다룬 역사서 ‘조선단대사’ 제3권을 펴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새 학년도 개학준비 분주(3/25, 조선중앙방송)

- 4월 1일 새 학년도 시작을 앞두고 개학 준비에 분주한 모습

※ 북한은 1996년부터 새 학년도 개학일을 9월 1일에서 4월 1일로 바꾸었으며, 이에 따라 3월을 ‘학교지원 월간’으로 정해 교재 준비와 교과과정 점검, 교과서와 학용품 공급 등 개학 준비로 바쁨.

■ 개성인삼 화장품품 외국여성에 인기(3/25, 조선중앙통신)

- 개성인삼을 원료로 한 북한 화장품 '봄향기'가 북한에 있는 러시아인 등 외국인 여성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아리랑 공연 관광객 모집 사이트 개설(3/25, 연합뉴스)

- 집단체조인 아리랑 공연을 소개하고 참관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인터넷 사이트(www.dprk-tour.com)가 최근 개설

■ 北잡지에 '영문법 강좌' 등장(2008년 1월호, 예술교육)

- 북한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영문법 강좌'가 등장, 북한 2.16예술교육출판사가 발행하는 계간지 '예술교육'은 24일 입수된 최신회(2008년 1월호)에서 예술관련 다양한 지식을 소개하는 '강좌'라는 코너에 김태화 부교수의 '영어동사 do의 문체적 특성의 활용문제'라는 글을 실음.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남북, 6자회담 에너지 실무접촉 '정상 진행' (3/28, 연합뉴스)

- 남북한은 28일 판문점에서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접촉 이틀째 회의를 개최, 10·3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집중 협의
-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우리측은 비(非)중유 지원용 설비자재의 품목과 사양을 제시했으며 북한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 우리측에서 권용우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이, 북측에서는 진 철 국가계획위원회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4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남북한과 중국간 3자협약에서 최종 결정되며 북한의 불능화의 대가로 각종 설비 자재 등을 제공

나. 북·미 관계

■ 北, 美 주장 고집하면 核무력화 심각한 영향(3/28, 외무성대변인 담화)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 등과 관련,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우기면서 핵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어 온 핵시설 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고 언급
- 대변인은 담화에서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우라늄농축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핵협조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런 꿈도 꾀본 적이 없다.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 또한 “미국측은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한사코 죄인으로 몰려는 너절한 요술에 매달리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부시 행정부의 그릇된 주장을 정당화해주는 희생물로 될 수 없다”고 주장
- 미국이 제기한 UEP 문제에 관해, 담화는 “미국측이 수입알루미늄의 행처만 밝혀주면 ‘우라늄농축 의혹’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기에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미국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시편(실험재료)도 제공하는 특례적인 조치를 취해주었다”고 자신들이 양보했다고 주장
-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서도 담화는 “시리아의 해당 대상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돼 이 문제는 더 해명할 필요도 없게 됐으니 그저 핵전파를 하지 않는다는 조선(북한)측의 공약을 재확인 해주면 되겠다고 (미국이) 요청했다”고 담화는 주장
- 담화는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이 미국의 처사로 하여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북한이 이미 2007년 11월 핵신고서를 작성해놓고 미국에 통보한 바 있음에도 미국과 협상에 응한 이유는 “부시 행정부의 체면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특히 부시 행정부가 2002년 우라늄농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북미관계를 파탄시키고 정세를 악화시켜 “결국은 우리를 핵보유어로 떠밀었다”고 주장

■ 노동신문, 美의 ‘北 위협설’은 날조(3/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 설 등을 제기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패권과 주한 미군의 영구주둔을 위해 꾸며낸 “자작 날조”라고 주장

다. 북·중 관계

■ 신임 北 무역상, 中대사와 경협 현안 논의(3/27, 평양주재중국대사관 웹사이트)

- 북한의 대외경협을 책임지고 있는 리룡남 무역상이 취임하자마자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나 양국 경협을 논의, 27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리 무역상은 3월 14일 평양의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류 대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구체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

※ 리룡남 무역상은 최근 무역상 부상에서 승진한 인물로 2007년 9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차 양국의 경협협의체인 북중 경제무역협조회의에 북한측 대표로 참석, 천젠(陳健)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와 회담을 가졌던 인물, 2005년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회의부터 참가해 양국 경협 현안에 대해 아주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北, 中올림픽 보이콧 움직임 비난(3/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티베트 시위에 대한 중국의 무력진압 등을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를 정치화하여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세력들의 시도”라고 비난

라. 북·일 관계

■ 노동신문, 日대북제재 연장 추진 비난(3/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일본이 4월 13일로 기한이 끝나는 대북 제재조치를 연장하려는 것은 6자회담 참여국으로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유관국들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고 “누구든 회담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조선반도 비핵화과정이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김영남 상임위원장, 제20차 아랍연맹정상회의에 축전 발송(3/29, 조선중앙통신)
- 北김영일 내각총리, 벨기에의 이브 레테름 신임 총리에게 축전 발송(3/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 귀국(3/29, 평양방송)
 - 최상순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이 인도에서 열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30돌 기념행사에 참석 후 29일 귀국
- 北·우간다, 교육협력 합의서 체결(3/30, 조선중앙방송)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우간다를 방문한 가운데 북한과 우간다가 28일 교육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북한 주재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들과 친선모임 개최(3/27,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베트남 정부간 문화협조협정 체결 30주년을 맞아 북한 주재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들과 친선모임이 27일 금성학원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날 모임에는 레 반 꾸 베트남 대사와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 글린포드 유럽의회 의원 방북(3/27, 조선중앙방송)
 - 방북 중인 글린 포드 유럽의회 의원이 26일 만경대를 방문한데 이어 27일에는 금수산기념궁전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쿠바대사, 평양서 美감금자 석방촉구 회견(3/27, 조선중앙통신)
 - 호세 마누엘 몬타노 북한 주재 쿠바대사가 27일 평양의 대사관에서 미국에 감금된 쿠바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몬타노 대사는 “세계의 모든 진보세력이 앞으로도 쿠바 애국자들의 석방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달라”며 “쿠바 인민이 미국의 악랄한 봉쇄책동으

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굴함없이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대사가 북한과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기자회견의 내용이 ‘반미’를 소재로 한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임.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北, 김하중 통일부 장관 거듭 비난(3/29, 통일신보: 조선중앙방송)

- 통일신보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확장과 북핵 문제를 연계시킨 것을 “망발”이라고 비난하고, 개성공단 사업이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남조선 친미사대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
- 신문은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경제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민족공동의 변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내외에 선포한 것으로, 온 겨레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
- 조선중앙방송도 한미동맹 강화론에 대해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해치고 나가서 온 겨레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밀어 넣으려는” 것이라고 비난, 또한 남한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미·일이 최근 ‘3국 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조정위원회 구성을 다그치며 3각 군사동맹 조작 책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

■ 北, 김태영의장 핵공격대책 답변 취소·사과 요구(3/29,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은 29일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도
- 통지문은 특히 “우리 군대는 당면하여 군부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

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군대는 남측이 시도하는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보다 더 신속하고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이 “위임에 의하여” 이 같은 입장을 통지했다고 보도했으나, ‘위임’의 주체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러한 내용의 통지문을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에게 보냈다고 보도

■ 北, ‘한반도 대운하’ 첫 비난(3/29, 통일신보; 3/30,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통일신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아무런 실용가치도 없는 인기올리기 공약”이며 “민심 기만극”이라고 비난, 통일신보 최근호(3.29)는 한반도대운하 계획이 남한에서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다”며 이 계획의 모델로 제시된 독일의 MD운하(마인-도나우운하)의 성과와 현주소도 분석
- 신문은 아울러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허리를 펼 수 없는 세금부담을 들썩우고 생태환경 파괴로 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후대들에게 파괴된 터전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 중의 죄악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

■ 통일신보, 南의 인권문제 제기 거듭 비난(3/15,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정부 대표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한 것에 대해 “동족에 대한 적대적인 도발”이라고 비난, 신문은 ‘어울리지 않는 인권 타령’이라는 글에서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떠드는 인권문제라는 것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을 깎아내리고 제도를 흔들어버려고 꾸며낸 궤변이고 모략극”이라고 주장

■ 선제타격 개시되면 모든 것 잿더미(3/30,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의 군사논평원은 30일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북한의 핵공격 대책 관련 답변에 대해 취소·사죄하지 않으면 모든 남북대화가 전면 차단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리식의 앞선 선제

- 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
- 군사논평원은 ‘남조선군 당국자들은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김 의장의 발언이 “현 남조선당국의 새로운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대는 그에 대처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 논평원은 “그의(김 의장) 폭언은 곧 현 남조선 당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며 “현 남조선 당국의 이른바 대북정책에 대해 논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는 대세의 흐름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라고 지적
 - 논평원은 “지금 남조선 군당국이 선제타격 폭언을 놓고 잘못 보도된 것이라느니 순수 군사적 조치개념을 설명한 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여론의 확대를 막아보려고 구구히 변명해 나가고 있으나 쏟아놓은 물은 담지 못한다”며 김 의장의 발언을 “결코 우연적인 실언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 “우리 (북한) 군대는 호전광들이 선제타격을 가해올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혁명무력은 우리의 핵기지를 노린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하여서도 그보다 더 신속하고 그 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또 “대화 상대방에 대해 선제타격까지 거론하는 자들과 백번 마주앉은들 무엇을 토의하고 무엇을 합의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화와 전쟁이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드팀없는(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
 - 논평원은 “불질에는 불벼락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 나가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대응방식이며 고유한 전투적 기질”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아울러 “북남관계 발전에 초래될 엄중한 후과(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군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나. 남북 교류

■ 남북관계 경색 조짐에도 민간단체 방북은 계속 진행(3/29, 연합뉴스)

- 남북체육교류협회 등 3~4개 남측 민간단체 대표단이 29일 오후 3시께 중국 선양(瀋陽)의 타오선(桃山)국제공항에서 북한의 고려항공 JS-156편을 타고 평양에 입국, 이날 선양을 통해 방북한 민간단체 대표단은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짐.

■ 탈북자 12명 라오스 한국대사관에 진입(3/28, 연합뉴스)

- 탈북자 12명이 27일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 진입했다고 박재현 대사가 28일 발표, 박 대사는 28일 “여성 11명과 남성 1명의 탈북자 12명이 27일 오전 11시께 한국대사관에 들어왔다”고 밝히고 “인도주의와 국제 관례에 따라 이들의 희망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언급

■ 北, 경협사무소 퇴거요청시 “상부지침이라고만 설명”(3/27, 연합뉴스)

- 북측은 3월 24일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개성의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경협사무소)내 남측 당국자들의 철수를 요구할때 ‘상부의 지침’이라고만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 소식통은 27일 “리인호 북측 경협사무소장이 24일 처음 구두로 철수를 요구하면서 ‘상부의 지침’이라고만 설명했다”면서 “자신들은 해석의 권한이 없으니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언
- 이에 대해 우리 측 경협사무소 당국자들은 북측의 철수 요청이 남북간 합의 사항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서면으로 북측 입장을 정식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었음. 정부 소식통은 “서면으로 통보하라는 우리측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입장은 확고했다”면서 “24일 첫 퇴거 통보 후 25일까지는 별다른 독촉이 없었지만 자신들이 준 3일의 말미가 끝나가는 26일 재차 퇴거를 요구했다”고 설명
- 북한이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당국 인원의 철수를 요구, 11명 전원이 27일 철수
 - ※ 2005년 7월 남북이 채택한 ‘경협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 ‘경협사무소의 활동 보장’ 조문에는 ‘북측은 당국간 회담대표단

의 출입절차 및 신변 안전을 남측 경협사무소 인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고 돼 있음.

※ 2004년 1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채택한 개성공단·금강산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신변안전보장 조문에는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조사하고 (중략)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며 강제 퇴거 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 광주 기아차노조-농민회 통일쌀 공동경작(3/27, 연합)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북한동포에게 지원할 쌀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회와 공동으로 쌀농사를 경작, 기아차광주공장노조에 따르면 북한 동포들에게 보낼 쌀을 마련하기 위해 노조와 전남 구례군 농민회가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에 6만6천㎡의 논을 마련, 공동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
- 이들 두 기관의 통일쌀 공동경작 행사는 올해로 2회째로 작년에도 같은 논에서 40kg들이 50가마의 쌀을 수확, 북한에 보낸 바 있음.

■ 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찬성할 예정(3/25, 연합)

-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짐.

■ 비로봉 관광 4월 중순부터 실시(3/25, 연합)

- 내금강의 비로봉 관광이 4월 중순부터 실시,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내금강 관광을 4월부터 재개하는 대신 비로봉 관광은 4월 중순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 비로봉에 대한 최종 답사를 할 예정

■ 코레일, 北에 연탄 5만장 전달(3/24, 연합)

- 코레일은 (사)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와 함께 3월 26일 북한 개성 봉동역에서 북측에 연탄 5만장을 전달한다고 24일 발표

3.31-4.6

3월
5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기타 외교 관련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군부대 시찰...“전투력에 만족”(4/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350군부대 산하 중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시찰에서 중대의 임무수행 상황을 파악하고 군인들의 훈련 모습을 본 뒤 “중대의 모든 군인들이 적들의 침공을 일격에 격파분쇄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는 높은 군사기술과 전투 능력을 소유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으며 “중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
- 김정일 위원장은 “인민 군대는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를 철저히 구현해 훈련으로 밤을 밝히고 새 날을 맞는 혁명적 훈련 기풍을 확립한 결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면서 “위대한 일심단결의 전통과 역사를 빛내며 그 위력을 떨쳐가고 있는 이런 무적의 강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 위업은 필승불패”라고 언급, 그러나 김 위원장의 수행인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가장 최근의 일은 3월 1일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 방문에 이어 ‘3·8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간부들과 함께 국립교향악단 및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의 축하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약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냄.

나. 정치 관련

■ 南 MD 참여는 동족압살 책동(4/5,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남한의 “보수 집권 세력”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 참여하려는 것은 “동족 압살”을 노리고 남북 관계를 대결 시대로 되돌려 세우려는 책동이라고 비난
- 통일신보는 ‘군사적 대결과 긴장 격화를 불러오는 위험한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워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4월 3일 미 상원 군사

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남한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어 MD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한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핵미사일 선제 타격에서 결정적인 군사적 우위권을 가지자는” 목적이라고 주장

- 신문은 과거 미국이 남한에 MD 참가를 노골적으로 강요해도 “남조선 인민들의 강력한 반전반미,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 반대 투쟁”에 의해 무산됐으나, 지금은 “남조선의 보수집권 세력들이 동족 압살을 노린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 책동에 서슴없이 동조해 나서려 하고 있다”고 주장

■ 北, “南 위정자들”에 ‘선언’ 철저히행 촉구(4/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남조선(남한)의 현 위정자들이 북남 사이 화해와 협력을 바란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두 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구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발표 15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으로서, 그 이행을 떠나서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과 관련된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
- 그는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비핵이니 뭐니 하면서 북남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공공연히 부정해 나르고 있다”면서 “남조선의 현 위정자들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 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는 대결정책을 견어치워야 한다”고 주장, 또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 채택을 “조국통일 위업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켜 나가는 데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역사적 사변”이었다면서 두 선언은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강조
- 특히 두 선언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함께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 유훈”이 구현돼 있다고 말하고 남북정상선언이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의 연장선 상에 있음을 부각
- 김 부위원장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 보수 집권세력의 날로 우심해지는 반공화국 적대시 책동과 전쟁도발 책동에 대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응당한 자위적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

- 보고회에는 김 부위원장과 함께 류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이 참석

■ 조선신보, 논평원의 글은 北노동당의 목소리(4/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북한의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은 “노동당의 목소리”이며 “대외관계 면에서 볼 때 (북한의) 정부 성명이나 대변인의 성명보다도 더 권위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
- 신문은 ‘논평원의 글’ 제목의 기사에서 “오래전부터 노동신문은 요긴할 때 논평원의 글을 내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일찍이 논평과 논평원의 글을 갈라 내보내야 한다고 하시며 특별히 의의를 부여하는 글은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논평원으로 내보낼 데 대하여 가르치셨다”고 소개
- 조선신보는 “일반 논평에 비해 비중이 큰 논평원의 글은 조선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만 쓰고있다”며 “그 견해와 주장, 평가는 당보 편집집단의 견해와 입장을 직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그것은 곧 당(노동당)의 목소리로 된다”고 거듭 ‘논평원의 글’의 비중을 강조
- 신문은 남한의 “일각에서는 논평원의 글을 두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북측의 공식입장이 아닐 것이라느니 조국통일 부문 기구나 단체의 공식담화에 등에 비해 격은 낮을 것이라느니 하는 공론이 분분했다”고 지적하며 이 글의 중요성을 주장

■ 노동신문, “외세공조” 거듭 비난(4/4, 노동신문: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남조선(남한) 보수집권세력”이 외세 의존 정책과 외세와 공조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난
- 평양방송에 따르면 신문은 ‘6·15공동선언은 애국애족의 통일강령’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동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면서 외세와 공조를 추구하는 괴이쩍은 놀음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조선-미국 관계 우선론을 제창하고 과거청산을 배제한 남조선-일본 관계복원 놀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 거듭 “실용 불도저” 비난(4/3,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 를 통해 거듭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험하게 비난

■ 노동신문, 이대통령 실명 거론하며 비난(4/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남한 정부를 “이명박 역도(逆徒)”라고 비난하고 “(남측이) 지금처럼 북남 선언들과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를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대응을 달리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또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라며 거부
-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반복 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이름을 49번 직접 거론하며 “이명박 정권은 북남 관계가 동결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돼 파국적 사태가 초래되는 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 북한 공식 매체가 이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 비난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남한 대통령 이름을 거론한 것도 8년 만의 일임.

다. 경제 관련

■ 주민생활 향상이 최대 과제(4/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주민생활을 높이는 것이 “현 시대의 최대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기관들에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인민생활 제일주의’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 신문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 제목의 논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은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당조직들에서 인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적 지도에 화력을 집중해 모든 일꾼들이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혁명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
- 노동신문은 “당, 국가 경제기관들을 비롯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펼쳐나서고 있다”며 농업증산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과 경공업 혁명을 통한 생필품 증산, 주택난 해결 등을 강조

라. 군사 관련

■ 南군당국, 대화·접촉 중단 책임(4/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이 남측의 답신에 재답신을 보낸 사실을 보도하면서 “남조선 군 당국은 모든 북남대화과 접촉이 중지되고 통행차단 조치가 취해지게 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통신은 “남조선 군당국은 그 어떤 사소한 선제타격 시도에 대해서도 그 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한 우리식의 선제타격으로 대응한다는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임.

■ 北, “군사적 대응조치 취하겠다” 재답신(4/3, 연합)

- 북한은 3일 북측의 ‘긴장조성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불가침 합의 준수’를 재천명한 4월 2일 남측의 전화통지문의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 북한은 3월 오전 9시 25분께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김영철 중장) 명의로 된 전통문을 통해 “남측의 어제 (답신 전통문을 통해 밝힌)입장은 한갓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미 천명한 대로 해당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언
- 북측의 전통문에 대해 국방부는 관련부처와 협의 끝에 답신 전통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

마. 사회·문화 관련

■ 평양 국제마라톤대회서 北선수 1위(4/6, 조선중앙통신)

- 평양에서 6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공인 제21차 ‘만경대상’ 마라톤대회가 열렸으며, 북한 선수들이 남녀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일성 주석의 생일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이 대회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케냐

출신 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평양 개선문과 혁신-영웅-천리마-락원-광복거리 구간을 달렸다고 보도

※ 북한은 1981년 4월 김일성 주석의 69회 생일에 맞춰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를 시작, 1992년 4월 제12차 대회까지 개최한 뒤 7년 간 중단했다가 2000년부터 재개

■ 北, 10여 종목 올림픽 출전권 획득(4/5, 통일신보)

- 북한이 지금까지 사격, 양궁, 유도 등 10여개 종목에서 수십 명의 선수들이 2008 베이징올림픽 참가 자격을 얻었다고 통일신보가 보도
- 신문은 사격 종목에서 4.25국방체육단의 김정수, 채혜경, 김현웅, 류명연, 박정란, 조영숙 등 6명의 선수가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 참가 자격을 획득했으며 양궁에서는 4.25국방체육단 권은실, 압록강국방체육단 김꽃순 선수, 또 북한의 유도스타 계순희 선수도 모란봉체육단 안금애 선수와 함께 올림픽에 출전

■ 北여자프로권투, 김혜성·장성애 두각(4/5, 조선신보)

-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북한의 여자프로권투계에서 신인 유망주인 김혜성과 장성애가 3월 31일 평양체육관에서 끝난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프로권투경기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량을 재확인

■ 北청소년적십자 나무심기 한창(4/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청소년적십자가 '봄철 나무심기 기간' (3.27~4.6)을 맞아 각 지역에서 식목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매년 재난 방지를 위해 청소년적십자의 봄철 나무심기 운동을 벌여왔으며 올해도 각 도 적십자지부, 군 적십자위원회와 함께 "위험 요소가 큰 주민지대와 지역"에 많은 나무를 심고 있다고 보도
- ※ 남북한 적십자는 2006년부터 식목일에 즈음해 매년 4월 금강산에서 '남북 청소년 나무심기' 행사를 벌여왔으나 올해는 한적축이 당국간 긴장한 정세를 감안, 이를 제안하지 않아 무산

■ 김일성생일 분위기 띄우기 시작(4/4,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고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앞두고 본격적인 경축 분위기가 조성, 조선중앙TV는 4일 오전 9시부터 방송을 시작하고 해외 예술인이 대거 참여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기록영화를 방영했으며 '선군(先軍)이 펼쳐준 낙관의 무대', '만경대로 달리는 마음', '조선의 별'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
- 조선중앙방송은 4일 김 주석의 생일에 즈음한 "국가학위·학직" 수여식과 함께 조선우표사의 기념우표 발행 소식도 보도
 - ※ 북한은 4월 10~18일 평양에서 '제1차 태양절기념 전국예술축전'을 열고 앞으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격년으로 번갈아 개최할 계획

■ 생필품, 상표·외장 디자인 '봄' (4/4, 조선신보)

- 경공업공장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기관인 조선산업미술창작사가 상표와 제품의 외장을 지역 특색과 민족적 미감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 하느라 분주하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선신보는 "최근년간 경공업공장들에서 기술 개선(개선)과 현대화가 적극 다그쳐짐에 따라 새 제품의 형태도안을 작성하는 조선산업미술창작사가 많은 일감을 맡아 안았다"며 "창작사에서는 현재 기초식품 상표도안, 신발도안, 화장품도안 등 7개 대상의 제품 도안을 창작하고 있다"고 설명
 - ※ 내각 기계공업성 산하의 이 창작사는 기계제품 외형과 각종 상품의 상표·포장 등을 디자인하는 북한 유일의 산업디자인 전문기관

■ 평양 '네온사인' 절전기술 도입(4/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평양시에 설치한 "야경 불장식(네온사인)"에 사용되는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새 기술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불장식연구센터'가 새로 개발한 전기절약기를 이미 평양 시내 천리마 동상과 개선문 등에 설치해 절전 효과를 검증

■ 南교육열 방불 北소학교 개학식(3/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4월 1일 학부모 참관아래 진행된 평양팔골소학교(초등학교)의 1학년 첫 수업 표정을 보도, 신문은 3일 평양 광복거리에서 가장 큰 학교인

팔골소학교가 “실력 높은 상급학교에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해마다 보내고 있다”며 1992년 개교했지만 북한에서 뛰어난 예술인, 체육인도 다수 배출했다고 소개, 그만큼 학부모들이 학교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설명

- 신문은 북한 전역의 소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교복과 신발, 가방, 10여 가지의 학용품이 공급됐다면서 요즘에는 만화가 그려진 화려한 필통이 인기있다고 보도

■ 종합미술관 개관…외국인등에 주문판매(4/3, 조선신보)

- 북한 최고의 미술창작 단체인 만수대창작사가 각종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종합미술관을 개관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평양 통일거리에 문을 연 종합미술관 1층엔 미술관과 식당이 있고 2층에 상점, 지하에는 한증탕과 청량음료점이 있으며, 미술관에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의 조선화, 유화, 보석화, 출판화가 전시
 - ※ 미술관에서는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과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주문판매도 함.

■ 北, 왕건-공민왕릉 관광도로 조성(4/3, 평양방송)

- 개성시에서 왕건왕릉과 공민왕릉을 잇는 관광도로를 완공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방송은 두 왕릉이 민족의 귀중한 역사 문화유산이라며 개성시가 “노동당의 뜻에 따라” 직선 도로망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 “노력과 기계 수단을 집중시켜 시작부터 공사속도를 높였다”고 보도
 - ※ 왕건왕릉과 공민왕릉은 현대야산이 2007년 12월 시작한 개성관광의 ‘왕릉 코스’로, 북한은 두 왕릉을 포함한 개성시 10대 유적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줄 것을 신청

■ 평양도 배급 끊겨…北식량난 절망적(제118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전역에서 식량난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평양도 4월부터 6개월 간 “배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5월이면 대량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3일 주장
- 평양 시민들은 약간의 예비식량을 갖고 있는 데다 식량이 떨어질 경우 평남

평양, 남포, 황남 사리원 등지에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배급중단으로 인한 아사자는 별로 없지만 “보유 식량이 예전만 못한 데다가 식량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라 불안해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 소식지는 이어 평양의 한 간부가 “2006년과 2007년 연속된 홍수 피해와 비료 부족, 소토지 회수 등으로 공화국(북)은 사상 최악의 사태에 빠져 있다”며 “상황은 밖에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절망적”이라고 밝혔다며 평양과 함남 함흥, 함북 청진 등 주요 도시에서는 “4월부터 아사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주장

■ 조선천연기념물 도감 제3권 출판(4/2, 조선중앙TV)

- 조선문화보존사가 최근 북한의 동물 천연기념물 80여종을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분류한 ‘조선천연기념물 도감’ 제3권을 출판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조선우표사 우표 발행(4/2, 조선중앙방송)

-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5주년을 기념한 전지우표와 개별우표를 제작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류명옥, 26일 멕시코서 WBCF 방어전(4/1, 조선신보)

- 세계여자복싱평의회(WBCF) 슈퍼플라이급(52.16kg) 챔피언인 북한의 류명옥(25) 선수가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방어전을 갖는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WHO, 접경지역 에이즈 예방활동 합의(4/1, 연합)

- 북한 당국이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2008년 북·중 접경지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을 위한 감시와 기술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WHO 평양대표부의 테즈 왈리아 소장이 밝힘.
※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왈리아 소장은 북·중 접경지역이 북한내 다른 지역보다 에이즈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감시활동 일정과 지역에 대해 북한 보건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언급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북미회담과 제네바 '비공개 양해각서' (4/6, 연합)

- 북한과 미국이 시한(작년 12월 31일)을 3개월 이상 넘겨가며 힘겨루기를 해 왔던 핵 프로그램 신고협상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짐. 외교가는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같은 얘기할 것 이면 만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북측의 결정을 촉구해온 상황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싱가포르로 건너가 8일 힐 차관보와 회담한다는 점에서 일단 좋은 결과를 예상
- 북핵 현안에 정통한 정부 고위소식통은 6일 북·미가 이처럼 좋은 결과를 예상케하는 회동을 갖게 된 데에는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단초가 됐다고 전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밖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미묘한 내용을 비공개 양해각서에 담았으며 이는 대외에 공개된 기본합의문의 상세한 부분을 규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면서 "건설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외교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
- 이에 따라 북한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의사를 분명히하고 실제로 2007년 11월 중국에 제출하려던 신고서에 담겼던 30kg에 달하는 플루토늄과 영변 핵시설의 세부 내역 등은 '공개되는 문서' (성명 또는 합의문)에 포함시키고 우라늄농축과 핵협력 항목 등 미묘한 부분은 비공개 양해각서(또는 비밀합의록)에 담길 것으로 예상
- 비공개 양해각서라고 하지만 우라늄농축과 핵 협력 내용에 대해서는 이른바 '간접시인' 방식을 활용할 전망, '간접시인'은 미국이 자신의 이해사항을 기술한 뒤 북한이 이를 적절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중국이 1972년 미·중 간에 체결된 '상하이 공동성명'을 참고해 제안한 아이디어인 것으로 전해짐.
-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시리아 핵협력 의혹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양측은 비공개 양해각서를 만들어 각자 보관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는 정식 회담 등의 기회를 이용해 구두로 설명하면서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될 전망

■ 北, 美강경과 비난(4/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미국의 대북 강경과를 비난하면서 “미 강경보수 세력은 조(북)미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조차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 ‘혜택’ 이요, ‘자연’ 이요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무턱대고 우리 공화국(북한)에 넘겨썩워 사태를 6자회담 이전으로 되돌려 세우려”하고 있다고 주장

나. 북·중 관계

■ ‘이상기류설’ 북중관계 원상회복 시동(4/2, 연합)

- 최근 북핵 신고문제 해법의 주도권을 놓고 ‘이상기류’를 보였던 북한과 중국이 관계 원상 회복을 시도, 왕강(王剛)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은 1일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중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성숙해지고 있다고 애써 강조
- 왕 위원은 특히 “중국과 북한의 우호와 친선, 협력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개발하는 것은 확고하고도 변화할 수 없는 전략적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

다. 기타 외교 관계

■ 北방송인 2명, 獨방송국에서 6주 연수(4/6, 연합)

- 평양방송의 독일어 방송요원 2명이 2007년 11월부터 6주간 독일의 대외국제방송인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이들은 독일 외교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본에 소재한 도이체 벨레 라디오 본부에서 6주간의 방송연수 과정을 마쳤다”고 보도
- 도이체 벨레 산하 방송연수원 헬무트 오상 아시아 국장은 “북한은 대외방송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 들어 더 많은 북한 방송인들이 해외 연수에 참가할 것”이라고 언급
 - ※ 평양방송은 1967년 조선중앙방송에서 분리돼 조선제2중앙방송으로 출발했다가 1972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대남방송 뿐 아니

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의 언어로 대외방송을 송출

■ 김영남, 세네갈 대통령에 축전(4/3,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3일 세네갈 독립 48주년을 맞아 압둘라예 와데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친선협조관계 확대·강화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폴란드대사 연회 개최(3/3, 조선중앙통신)

- 로만 이바슈케비츠 주북 폴란드 대사는 2일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 궁석용 외무성 부상을 초청한 가운데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駐스웨덴 대사에 리희철 임명(4/1, 평양방송)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스웨덴 주재 대사에 리희철을 임명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전임자인 전인찬 대사는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지역 8개국을 겸임해 왔으나, 방송은 리 신임대사가 이들 국가를 모두 겸임하는지는 밝히지 않음.
- ※ 북한과 스웨덴은 1973년 수교했으며 무역협정(1973.11), 공업소유권 협력협정(1996.1), 경제 및 기술 협조에 관한 합의서(2002.4) 등을 체결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北, 전북지역 AI 발병 보도(4/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이 6일 남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전라북도에서 조류독감(AI, 조류인플루엔자)이 발생했다”며 한반도에서 AI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움.

- 북한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의 이동 경로를 연구하고 새로운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한편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각국의 AI 발병 소식을 속속 보도

■ 南 ‘영어몰입 교육’ 추진 비난(4/5,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남한의 “보수 집권 세력”이 영어몰입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광신적인 외세 사대 행위”라고 비난, 신문은 ‘극심한 친미 사대 의식의 발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남한)의 친미 보수 집권 세력은 ‘세계화’의 ‘추세’를 따른다면서 우리 민족의 재부이고 자랑인 민족어를 말살하려는 반민족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

■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비난(4/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대안 교과서’라고 만들어 내놓은 책을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무지막지한 왜곡”이라고 비난

나. 남북 교류

■ 개성공단 南기업, 공단밖 개성주민 고용확대(4/6, 연합)

-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업체가운데 개성 주민을 ‘간접’ 고용해 공단밖 북한 기업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음.
- 5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69개 가운데 5개 업체가 북측의 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임가공 계약을 맺고 개성 주민을 도급 방식으로 고용해, 이들이 공단에 출퇴근하는 대신 개성시내 북한 기업소에서 일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관계자는 “2006년 11월 이러한 방식의 임가공 계약이 처음 체결된 이후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기업이 1년여 만에 5곳으로 늘었다”라며 “전기요금과 같은 작업장 관리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한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언급
- 도급 형태로 고용된 개성 주민들은 주로 의류 봉제나 가전 부품 조립 등 비교적 단순 기능의 작업을 하며, 임금 수준과 지급 방식은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와 동일

※ 현재 개성공단단의 최저 임금은 사회보험료 15%를 포함해 미화 약 60달러이며 ‘공단외 공단 인력’은 남측 기업이 맡기는 물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북한 기업소의 작업소당 수십명에서 많게는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남북협력기금법에 처벌규정 삽입 검토(4/6, 연합)

- 정부는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의 종자돈인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이하 기금법)에 처벌 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짐.
- 통일부는 기금을 유용 또는 전용하거나 부당하게 챙긴 개인 및 해당 단체를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문을 넣는 방향으로 기금법과 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나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친 뒤 입법예고 할 예정

※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운영된 이래 2007년 11월말까지 정부출연금 및 운용수익 등으로 총 4조2천10억원이 조성됐으며 이 중 3조5천473억원이 사용

■ 울산시·지역교회, 北 결핵어린이 성금전달 (4/4, 연합)

- 울산시와 울산교회연합회, 울산교회가 4일 각각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성금을 전달,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범국민운동본부는 북한의 결핵인구가 100만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어린이가 30만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들을 도울 모금운동과 구호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0월 출범한 단체

■ 6·15북측총, 서울 공동행사, 당국 태도 지켜봐야 결정 가능(4/3, 연합)

-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측 위원회는 2~3일 금강산에서 위원장 접촉을 갖고 올해 6·15 기념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협의를 계속해나가는 등 남북간 민간교류를 지속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남측위 관계자가 3일 밝힘.
- 그러나 북측위원회측은 공동행사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남북한 “당국끼리 어떤 태도로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공동행사 개

최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임을 시사, 이에 따라 행사 시기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남측위 관계자는 설명

■ 정부, 식목일 북한 묘목보내기 사업 보류(4/3, 연합)

- 정부가 최근 북한의 잇단 '대남(對南) 위협' 을 감안, 오는 5일 식목일에 맞춰 추진하려던 '북한 묘목보내기' 사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 등대복지회, 北 최초 종합장애인재활센터 건립(4/1, 연합)

- 대복지원단체인 등대복지회가 북한 최초의 장애인 치료·재활기관인 '장애인 종합회복센터'를 평양에 설립, 이 단체 신영순 상임이사는 3월 26~29일 평양을 방문, 2011년 6월까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센터 건물 준공을 목표로 5월 29일께 대동강 구역 문흥2동에서 기공식을 갖기로 합의

■ 대북 경공업원자재 마지막 향차 출항(3/31, 연합)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에 따라 북한에 제공키로 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중 마지막(26번째) 향차분이 31일 출항
- 남측은 이번 향차분까지 배송 완료되면 8천만달러 상당의 원자재 제공을 마치게 됨. 이번 향차를 포함, 북한에 섬유 39개, 신발 48개, 비누 7개 등 총 94개 품목의 원자재가 제공됐다고 남북협회는 밝힘.

■ 농진청 관계자 등 北방북차단 발표 후 첫 방북(3/31, 연합)

- 북한 군부가 주말인 29일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할 것을 예고했지만 31일 오전 현재 남측 인사들의 방북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31일 오전 9~10시 지방 자치단체 및 농촌진흥청 관계자 8명과 1천600여명의 민간인들이 경의선·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육로로 방북
- 이들은 방북 과정에서 북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으며 방북 수속에 걸린 시간도 평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소식통은 전언

■ 대북 지원 충북 농자재 출발…내달 봉산 도착(3/31, 연합뉴스)

-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북한과의 농업교류에 나선 충북도가 지원하는 농자재가 31일 북송식(北送式)을 갖고 북한으로 출발
- 31일 오전 충북도청 광장에서 열린 북송식에서 정우택 지사는 “북한과의 농업교류는 통일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모아진 결과”라며 “화해와 호혜의 원칙, 실용성의 원칙, 공개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교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4.7-4.13

4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북·러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잇단 군부대 시찰(4/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337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김 위원장은 부대 군인들과 주둔지역 주민들 사이에 맺어진 유대관계에 대해 보고 받고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우리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참모습”이라며 “군대는 원민(援民)을 하고 인민은 원군(援軍)을 하면서 군민이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
- 연합부대 시찰에는 김격식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현철해, 김명국 대장 등이 수행
- 앞서 김 위원장은 인민군 제109부대 산하 포병중대를 시찰, 군인들에게 “군사복무의 순간순간을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 모두가 조국보위 성전에서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중대 군인들의 예술공연 관람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김정일, 군부대 중대 역할 강화 강조(4/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493군부대 직속중대를 시찰하고 군대에서 중대의 역할을 높일 것을 강조
-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5일과 6일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350군부대 산하 중대에 이어 제776군부대 산하 신입병사훈련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

나. 정치 관련

■ 최고인민상임위원회, 82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4/13, 조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8일 정령을 통해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와 전천음료가공공장에 ‘3중 3대혁명붉은기’ 를, 순안구역 안흥농장 제1작업반을 비롯한 16개 단위에 ‘2중 3대혁명붉은기’ 를, 평천부재공장을 비롯한 82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 를 각각 수여

■ 새 세대 혁명전통 교양 강화강조(4/12,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항일혁명 선열들이 물려준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잡고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 나가야 한다”며 새 세대를 대상으로 한 ‘혁명전통 교양 강화’를 강조
- 신문은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기둥이다’ 제목의 편집국 논설을 통해 “조국과 혁명의 전도는 새 세대들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이어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현대적 과학기술에 의거해 생산공정의 기술개선(개선)을 다그치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더 높 이 비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비핵·개방·3000은 상호주의의 재판(4/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에 대해 “네 떡이 하나면 내 떡도 하나라는 시골장사치의 유치한 사고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 “북남관계 발전과 통일운동을 가로막기 위해 들고나왔던 ‘상호주의’의 재판”이라고 비판
- 신문은 “북과 남이 서로 화해·협력해 북남관계 역사상 처음 보는 새로운 국면을 열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된 것이 그렇게도 달갑지 않은가”,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빈종잇장처럼 여겨지는가”라고 반문

■ 南의 인권공세는 남북대결 추구(4/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공세를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아가고 외세와 야합해 우리를 어찌보자는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친미주구의 가소로운 망동’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이명박 패당이 집권하자마자 미국 상전의 인권 나발에 적극 합세해 나서고 있다”며 “인권 타령은 우리 체제와 제도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이고 동족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을 고취해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 신문은 “이명박 일당이 인권소동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

의 존엄높은 체제를 혈투고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아가며 외세와 야합해 우리를 어찌보자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남관계의 발전도, 자주통일운동의 전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

■ 北총리, 존엄침해 사소한 행위도 징벌(4/8,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김영일 내각 총리는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북한) 적대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우리의 자주적 존엄과 이익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
- 김 총리는 8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5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연설을 통해 “미국의 강경보수 세력들은 대화의 막 뒤에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현대적 군사장비들을 연이어 증강 배비하고 남조선 호전세력과 야합해 대규모적인 북침 합동군사 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

■ 유엔 대북 인권결의는 내정간섭(4/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3월 27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내정간섭”이자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라고 비난, 그러나 이번 보도에서 한국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은 거론하지 않음.

■ 北, 사태 해결 여부 남측 당국에 달려있다고 주장(4/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8일 남측에 대해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선제타격’ 폭언을 취소하고 사죄하며 세상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반도에 “조성된 사태가 해결되는가 아니면 더 악화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
- 신문은 “북핵기지 선제타격 폭언이 현 집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주장

■ 노동신문, 北개방론은 南의 흡수 기도(4/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개방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흡수 통일’ 기도라고 반발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에 대한 용납못할 모독이고 도발이며 반통일 대결 책동”이라고 주장

■ 北, 유엔대사에 신선호 임명(4/7, 조선중앙통신)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임 대사에 신선호 전 차석대사를 임명했다고 보도

다. 경제 관련

■ 서해평야지대에도 감자 확대 재배(4/12, 조선신보)

- 량강도와 자강도 등 산악지대에서 주로 심던 감자를 쌀 생산지인 서해의 평야지대에서도 확대 재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그동안 벼농사가 기본인 서해안 일대에서는 감자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최근 “감자를 더 많이 심을데 대한 과제가 나서고 있다”며 이를 위해 2003년부터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협동농장에 감자생산을 일반화하기 위한 시험재배포전이 “내외의 협력밑에” 조성됐다고 언급
- 조선신보에 따르면 쌀농사가 기본인 서해안 지역에서 벼를 거둬들인 뒤 감자를 심어서 원활하게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기후 조건에 맞고 2모작에 적합한 우량 종자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도

■ 5년간 국제특허 출원 14건(4/11, WIPO 홈페이지)

- 북한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4건의 국제특허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한 것으로 집계, 11일 WIPO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2003년 3건, 2004년 3건, 2005년 2건, 2006년 4건에 이어 2007년 2건의 특허를 신청

■ 2008년 예산 전년대비 2.5% 증가(4/9, 연합)

-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회의를 열고 2008년 예산지출액을 작년 대비 2.5% 증액했으며, 내각은 2012년까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 로두철 내각 부총리는 예산보고에서 “올해 국가 예산지출 계획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으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결정적으로 치켜세우고 인민생활 향상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2007년에 비해 102.5%로 늘리게 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북한의 올해 예산은 4천515억원(미화 32억달러) 규모로, 국방비는 15.8%로 713억원(5억1천만달러) 규모로 추정
- 북한은 또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에 대한 지출을 2007년보다 49.8% 증액키로 결정해, 앞으로 기간산업에 투자를 집중할 것임을 시사, 대신 작년에 무려 60.3%나 예산을 늘렸던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지출 계획은 올해 6.1% 증가에 그쳤고, 농업부문 투자증액비도 작년 8.5%에서 올해는 5.5%로 줄어듦.
- 김영일 내각 총리는 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우리는 2012년까지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수행에 들어가게 된다”며 “우리는 이 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우리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발전된 수준에 올려세울 것”이라고 강조
- 최고인민회의는 강능수 문화상 겸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부의장에서 해임함. 이날 회의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춘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호 당 중앙위 비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김영대 사회민주당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등이 참석

■ 北, 경제부문 1분기 계획 달성(4/8, 조선중앙방송)

- 북한 전역의 각 경제 부문에서 1/4분기 계획을 달성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방송은 1~3월 전력, 석탄, 철강, 시멘트, 통나무 등 주요 경제지표의 생산이 늘어나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공업 총생산이 크게 성장했다며 전력공업성은 105%, 석탄공업성에서는 112%로 생산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보도
- 방송은 채취공업성 산하 생산단위가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배의 생산량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편직공업관리국 116%, 비단공업관리국 111% 등 경공업성에서도 1.4분기 계획을 완료했다고 밝힘.

라. 군사 관련

■ 北전투기 MDL 10km까지 근접 비행(4/11, 연합)

- 북한 전투기 2대가 4월 8일 세 차례에 걸쳐 군사분계선(MDL) 10km까지 근접 비행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11일 “북한 전투기 2대가 지난 8일 오전에만 세 차례나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10km나 이남으로 비행한 뒤 되돌아갔다”면서 “이번처럼 MDL에 근접비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힘.
- 전술조치선은 북한 전투기가 이륙 후 불과 3~5분 내에 수도권에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 군이 MDL과 북방한계선(NLL)의 20~50km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으로, 북한 전투기가 이 선에 근접하면 우리 전투기가 즉시 발진하도록 되어있음. 북한 전투기들은 올 들어 4월 8일까지 15차례나 전술조치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짐.

마. 사회·문화 관련

■ 대동문영화관 개축 준공식(4/13, 조선중앙통신)

- 평양시 중구역의 대동문영화관이 개축 공사를 마치고 13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준공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총리,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중린·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강능수 문화상 등이 참석

■ 김정일 생일기념(2/16) 제2차 전국 소묘축전 폐막(4/10, 조선중앙TV)

■ 北옥류관, 새단장 후 15일부터 영업 재개(4/12, 조선신보)

- 북한의 대표적인 음식점인 ‘옥류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에 영업을 재개한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옥류관은 2006년 본관을 개보수했으며 2008년 9월부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별관인 1관과 2관, 모란각 등에 대한 전면 개보수작업을 진행

■ ITF 아시아태권도대회 종합우승(4/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총재 장웅)이 주관하는 제4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선수단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17개국,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4월 2~6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북한 선수단은 금메달 2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

■ 김일성 생일(4/14)기념 제10차 '김일성화' 축전 개막(4/11, 조선중앙TV)

-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맞아 11일 제10차 김일성화 축전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강능수 문화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인도네시아 정부문화대표단과 북한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북한 주재 외교단, 경제·무역 참사단 등이 초대됨.

■ 김일성 생일 예술축전 개막(4/10, 조선중앙방송)

- 고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기념한 '제1차 전국예술축전'이 10일부터 18일까지 평양 시내 극장·회관에서 열린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북한은 이번 행사를 김 주석의 대표적 생일행사인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격년으로 번갈아 개최할 계획
- 방송에 따르면 예술공연은 평양시내 12개 극장, 회관에서 진행되며 김 주석 생일과 그 이튿날인 15~16일 인민문화궁전과 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평양역, 평양체육관 앞마당, 만경대 유희장 등에서 여러 단체들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
- 축전조직위 관계자는 "축전 폐막식은 전문예술 부문의 경우 청년중앙회관에서, 군중예술 부문은 인민문화궁전에서 동시에 열린다"며 "종합공연 형식으로 폐막공연을 진행하고 해당한 시상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대외봉사학원생 음식솜씨 경연(4/10, 조선신보)

- 호텔 등에서 근무하게 될 요리사와 접대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인 평양 대외봉사학원 학생들이 졸업 음식품평회에서 음식 솜씨 경연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아동영화 각색 인형극, 인기몰이(4/10, 조선신보)**

- 평양인형극단이 1970년대 이후 방영됐던 아동영화를 각색한 인형극이 최근 평양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1961년 창단된 평양인형극단은 모란봉구역에 전용극장인 평양인형극장을 갖고 있으며 해마다 5~6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음.

■ **백두산 봄기운 완연, 눈사태 장관(4/10, 조선중앙통신)**

-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도 봄이 찾아와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내리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백두산지구 연평균 기온은 장군봉이 영하 7.5℃, 해산 2.7℃, 백암 0.3℃, 대흥단 1.0℃ 등이며 겨울이 길어 8월 상순부터 첫서리가 내리기 시작해 이듬해 7월 상순까지 찬 날씨가 계속됨.

■ **쌀 1kg에 2천원...식량가격 급상승(제119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전역에서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일부 지역의 kg당 쌀 값이 2천원을 넘어섰고, 옥수수 값도 1천원에 이르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 단체인 좋은벗들이 10일 보도, 이 단체는 평안남도 남포에서 지난 달 말 쌀 1kg이 2천50원에 거래돼 북한 최초로 2천원을 돌파했다고 전언, 평양에서도 kg당 쌀 값이 지난 2월 1천400원대에서 3월 초순 1천600원, 하순 1천800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평안남도 평성과 황해남도 사리원, 함흥과 강원도 원산에서도 1천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소식지는 보도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5주년을 기념한 여성동맹원 경축모임 개최(4/8, 조선중앙방송)**

- 주체사상탑 광장에서 김중린 당중앙위 비서와 로성실 여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앞서 전국 직업동맹 웅변모임이 4월 7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농업근로자 경축모임이 7일 평북 정주시 신천농장에서 각각 개최

■ 개성 등 기상관측이래 당일 최고기온(4/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8일 “낮 최고기온이 평성 23.4도, 사리원 23.5도, 개성 22.5도로 당일 최고기온으로는 기상관측이래 가장 높았다”고 보도

■ 北떡집, 주문판매 활용 소비자취향 파악(4/8, 조선신보)

- 북한의 민속요리 전문점이 주문판매를 활용해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요리정보를 얻어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떡상품을 출시

■ 만경대상 마라톤대회 IAAF 공인(4/8, 조선신보)

-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북한의 ‘만경대상’ 마라톤대회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공인을 획득

■ 평양서 ‘세계 보건의 날’ 행사(4/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세계 보건의 날’ 인 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후변화로부터 건강을 보호하자’ 라는 주제로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행사에서는 리봉훈 보건성 부장과 세계보건기구(WHO) 평양대표부의 테즈 왈리아 소장이 연설했으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황사로 부터의 건강보호 등에 관한 토론회도 진행했다고 통신은 보도

■ 북한, 바코드법 제정(3/24; 3/18; 3/26, 민주조선)

- 북한도 상품유통의 정보화와 ‘사회주의 상업’ 발전을 목적으로 4개장 39 개조로 구성된 ‘상품식별부호(바코드)법’ 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짐. 민주조선 최근호(3/14, 3/18, 3/26)는 ‘법규해설’ 란을 통해 3차례로 나눠 상품식별부호법 내용을 상세히 소개

■ 민주조선, 봄철 옷차림·머리 단장 권장(3/28, 민주조선)

- 민주조선 최근호(3.28)는 ‘봄철 옷차림과 몸단장’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든 일꾼과 근로자들은 봄 계절에 맞게 산뜻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도록 해야 한다”며 권장하는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등을 소개하고 특히 남성들에게도 옷차림과 머리를 단정히 할 것을 요구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駐러 北대사, 곧 중국에 핵 불능화 신고 제출(4/11, 연합뉴스)

-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10일 “평양 당국이 곧 중국 정부에 핵 불능화와 관련한 책무를 이행했음을 신고할 것이고 중국은 차기 6자회담 조건에 대한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김 대사는 고(故) 김일성 주석 탄생 95주년을 맞아 대사관에서 가진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핵심 이슈는 “미국이 그들의 책무를 얼마나 충족하느냐 여부”라고 강조
- 그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양자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면서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핵 분야에서 시리아와 협력했다는 미국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들을 해결했다고 주장

■ 6자회담 4월내 개최 조정 중(4/11,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을 4월 내 재개하는 방향으로 관련국 사이에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1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핵폐기 ‘제2단계’의 핵심인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해서는 재개에 앞서 북한측이 14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정부에 신고 리스트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보도

나. 북·미 관계

■ 北, 유엔군축위서 美에 ‘적대정책 포기’ 촉구(4/13, 조선중앙방송)

- 북한 대표는 4월 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군축위원회 연례회의에서 “내외 반공화국(반북), 반통일 세력들의 무모한 책동”으로 한반도에 긴장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남한에 대해서는 ‘10·4선언’ 이행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북한 대표는 “대화과 협상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북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후 “미국이 진심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남조선(남한)과의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적대행위로 핵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공약한대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실천행동으로 보여 줘야할 것”이라고 주장, 또 “남조선 당국자들은 외세에 추종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요구대로 올바르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조선신보, 싱가포르에서는 3단계조치도 논의했을 것(4/11, 조선신보)

- 북한과 미국은 4월 8일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핵 10·3합의의 이행이 완결 다음에 ‘제3단계 조치’도 논의했을 것이며, ‘3단계’에서는 “조선(북한)의 핵포기 대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라는 동시행동이 보다 심화되고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선신보가 11일 주장
- 신문은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이 “미국을 앞질러 싱가포르 합의를 공표한 것은 10·3합의 이행의 완결과 ‘제3단계’의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 그러나 신문은 “더우기 우려되는 것”으로 “조선에 대한 대결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본과 남한을 들고 “동족대결을 일삼하는 남조선의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는 싱가포르 합의가 초래하는 변화의 흐름과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
- 신문은 “싱가포르에서는 부시 정권이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지고, 미국측은 대통령의 임기내에 비핵화 과정을 계속 진척시킬 수 있는 명분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해석

■ 北, 핵신고와 美의 정치적보상 합의(4/9, 북한외무성 대변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힐(Hill)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 간의 회담을 소개하면서 “10·3 합의 이행을 완결하는 데서 미국의 정치적 보상 조치와 핵 신고 문제에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밝히고 “이번 싱가포르 합의는 조·미 회담의 효과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덧붙임.
- 하지만 힐 차관보는 9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세부적인 계획(logistics)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미국으로 돌아가 라이스(Rice)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의회 청문회도 거쳐야 한다”고 언급

다. 북·중 관계

■ 北, 中에 옥수수 수출쿼터 15만t 할당 요청(4/13, 연합)

-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북수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정부가 올해 초 중국 정부가 식량수출 제한정책을 실시하자 옥수수 15만t에 대한 수출쿼터 할당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힘.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북한에 일단 옥수수 5만t의 수출쿼터를 할당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2월 중국의 옥수수 대북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수출 쿼터 할당에 따른 수출이 이미 개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
- 실제로 중국의 한 식량무역정보 웹사이트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중국의 식량수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2008년 2월에만 2만7천600t의 옥수수를 중국에서 수입,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입량이 무려 1천523.5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주중 北대사관, 김일성 생일 연회 개최(4/12, 조선중앙방송)

- 중국주재 북한 대사관은 11일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맞아 중국의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연회에는 중국의 정책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아부라티 아부두리시티 부주석, 중국 대외연락부 류홍차이(劉洪才) 부부장,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등 고위 인사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상무부, 인민일보사, 신화통신사 등의 간부들이 초대됨.

■ 北,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적극 지지(4/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일부 국가의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저지 움직임을 “올림픽 이념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며 4월 28일 평양을 통과하는 성화 릴레이는 “가장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꽃파는 처녀’, 中 12개 도시서 40회 공연(4/11, 연합)

- 북한의 대표적 혁명가극인 ‘꽃파는 처녀’가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12개 도시에서 40회 막을 올리는 것으로 일정이 확정, ‘꽃파는 처녀’는 4월 15일부터 베이징을 시작으로 텐진(天津), 선전(深圳), 우한(武

漢), 등완(東莞), 상하이, 닝보(寧波), 항저우(杭州), 우시(無錫), 난징(南京), 지난(濟南), 칭다오(靑島) 등 12개 도시에서 개최, 그러나 순회공연 일정에 동북지방은 포함되지 않음.

- 북한은 순회 공연을 위해 피바다가극단 소속 공훈배우와 인민예술가 등 총 180명으로 구성된 최정예 공연단을 중국에 파견할 예정

라. 북·일 관계

■ 김정일, 조총련에 2억엔 장학금 전달(4/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에 즈음해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재일동포 자녀들에게 일본돈으로 2억500만 엔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조총련에 보낸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154회에 걸쳐 462억1천122만3천 엔에 달한다고 보도

■ 조총련, 日 대북제재 연장 결정 철회 촉구(4/11,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는 11일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연장 결정에 대해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해결에 “백해무익”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총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통해 “6자회담의 10·3합의 이행을 완결하는데서 관건적인 고리로 되는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신고 문제에서 견해의 일치가 이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마치도 합의가 없었던 듯이 고아대면서 제재 연장을 결정한 것은 황당무계한 폭거”라고 비난
- 또 일본정부가 대북제재의 미명하에 조총련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의 식민지통치의 희생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동포들을 보호해야 할 도의적 책임을 포기하고 적대시와 배타, 정치탄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결코 용납 못할 악랄한 범죄적 행위”라고 규탄
- ※ 일본 정부는 11일 각의를 통해 4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제재조치는 북한의 화객선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와 북한의 모든 물품 수입금

지, 24개 사치품 수출금지가 핵심으로,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한 뒤 반년마다 연장해왔으며 이번이 3번째임.

마. 북·러 관계

■ 러시아 국제자선기금 '세기의 예술의 보호자들' 대표단 환영연회 개최(4/12, 조선중앙통신)

-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방북 중인 러시아 국제자선기금 '세기의 예술의 보호자들' 대표단을 위해 12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연회에는 러시아 자선기금 대표단 관계자,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등 러시아 측 인사와 북·러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관계 부문 간부들이 참석

■ 러 철도주식회사대표단 방북(4/8, 조선중앙통신)

- 아나톨리 월로진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대표단이 8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바. 기타 외교 관계

■ 북한 주재 쿠바 대사 김일성 생일축하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기념 연회 개최(4/12, 조선중앙방송)

- 김 주석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5돌에 즈음해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파노 북한 주재 쿠바 대사가 11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연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룡남 무역상, 김용진 교육상, 리용철 김일성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등이 초대

■ 北최태복, 남아공 IPU 총회 참석(4/10, 조선중앙방송)

-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4월 14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

리는 제118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10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김책공대, 세계컴퓨터경시대회 불참(4/10, 연합)

- 캐나다에서 열린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해 주목받았던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팀이 정작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

■ 시리아 대통령, 북한과 친선 강조(4/9,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의 핵협력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문을 보내 양국 간 친선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네덜란드 상의, 5월 대북투자설명회 개최(4/8, 연합)

- 네덜란드 상공회의소가 5월 말, 자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대북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
- 네덜란드 상공회의소는 빠르면 오는 9월, 늦어도 2008년 내 직접 북한을 방문해 판로를 개척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을 잡고 “현재 북한과 구체적인 방북 일정 및 규모등을 협상중이며, 북한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브라우어 공보관은 설명
※ 북한과 네덜란드는 지난 2001년 수교하고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가 네덜란드 주재 대사를 겸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설명회는 수교이후 처음임.

■ 유엔, 북한 내 올림픽 성화봉송 불참(4/6, 연합)

- 유엔이 4월 28일 북한에서 이뤄지는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에 불참하기로 함.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北, 총선 언급없이 정부 비난(4/10,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노동신문은 10일 '사기협잡꾼의 폰수없는 망동' 제목의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개혁·개방·3000 구상 중에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끌어올려 주겠다는 대목에 대해 “그따위 불순한 광고판을 들고 나와 놀아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고 모독”이라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는 등 북남선언과 합의를 짓밟는 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북남관계문제, 민족문제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실용외교의 농락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새 정부의 실용주의에 대해 “미 제국주의가 공식철학으로 삼고 있는 현대부르주아 주관 관념론으로서 ‘유익한 것이 곧 진리’라는 논리로, 자본주의 제도와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합리화하는 반동적인 사상조류”라고 주장하고 “민족문제에까지 ‘실용’의 잣대를 들이대려”는 것을 비난

■ 北, 대남입장 천명 ‘총선용’ 아니다 라고 강조(4/6, 민주조선; 4/8,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북한 당국은 최근 대남 강경조치들이 남한의 4·9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남한의 일부 관측을 “생억지”라고 반박하고 이런 말은 “보수세력을 규합하여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 보려는 속심(속셈)”이라고 주장
- 민주조선은 6일 ‘왜 생억지를 부리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측이 남측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남조선에서...우리측의 원칙적 입장이 ‘총선용’이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며 이는 “사실을 왜곡 날조하는 궤변”이라고 주장

나. 남북 교류

■ 무연탄 실은 북한 선박 울산항 첫 입항(4/13, 연합)

- 무연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13일 울산항에 처음 입항, 울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신연철)은 북한에서 무연탄 4천t을 실은 북한 국적선 창덕호(2천496t급, 선장 강철용)가 4월 13일 오전 10시 20분께 울산항 M-7 정박지에 정박했다고 밝힘.
- 북한산 무연탄은 서울 소재 기업인 대신자원(주)이 수입했으며 이번 1차분을 포함해 4월 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항차당 4천t씩 모두 1만2천t이 수입

■ 北, 南실무 당국자 방북 잇달아 불허(4/11, 연합)

- 남측 당국자들의 방북을 차단할 것이라고 공언한 북한이 최근 남북 당국간 대화 및 군사 분야와 무관한 실무 당국자의 방북신청을 잇달아 기각,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현장의 조달청 소속 상주 직원을 추방한데 이어 10일 밤 이 직원과 교대할 또 다른 조달청 직원의 방북 신청(11일 방북 예정)에 대해 '부동의' 방침을 우리 측에 통보, 이에 앞서 북측은 이번 주 초 개성공단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키 위해 방문하려는 조달청 사무관의 방북 역시 불허했다고 소식통은 언급

■ 남북간 의료·보건교류 잇따라 무산(4/11, 연합)

- 북한이 5월 평양에서 열리는 의학과학토론회에 재미 한인 의사들은 초청한 반면 남측 의사들은 아직 초청의사를 밝히지 않아 올해는 남측 참가가 무산될 전망
- 4월 8일 금강산 온정리를 방문해 닷새동안 북측과 기생충 검사와 기술 전수 방안을 논의하려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도 북측의 방북 초청을 받지 못해 관련 사업이 잠정 연기

■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문제없다고 밝힘(4/10, 연합)

- 현대아산은 10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현장에서 조달청 직원이 퇴거 조치됐지만 금강산 관광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힘. 현대아산측은 "조달청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발주해 현지에 감독관을 파견한 상태

며 현대건설과 현대아산이 시공하고 있다”면서 “조달청 직원의 퇴거와 상관없이 현장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 南·北·中, 3차분 대북 설비지원 방안합의(4/10, 연합)

- 남북한과 중국은 10일 베이징(北京)에서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3차 협의를 열어 제3차분 대북 설비·자재 공급방안에 합의,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협의에 따라 한국은 철강재 등 중유 3.5만t 상당의 설비를, 중국 측은 코크스탄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힘.
- ※ 이날 합의한 물량을 포함해 4월 현재까지 북한에 제공된 경제·에너지 지원은 중유로 환산해 한국이 7.1만t, 중국 7.1만t, 미국 10만t, 러시아 5만t 등 총 29.2만t에 달함.

■ 北결핵어린아이가 돕기 제약사도 동참(4/9, 조선일보)

- (주)녹십자는 8일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영양제 3,000상자(7,500만원 상당)를 북한결핵어린아이가 돕기 범국민운동본부(총재 이윤구, 상임대표 이광선)에 전달

■ 남북 체육교류도 ‘주춤’ (4/8, 연합)

-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북한올림픽위원회가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 총회에 나란히 참석했지만 8일 현재 베이징(北京) 올림픽 남북단일팀 및 공동응원단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 김정길 KOC위원장은 ANOC 총회기간 박학선 신임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양자 회동을 갖자고 2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해남 고구마 ‘통일 고구마’로 남북 교류협력(4/7, 해남군)

- 전남 해남의 명물 ‘호박 고구마’가 북한에서 통일 고구마로 거듭남. 해남군은 “고구마 재배 교류협력사업으로 오는 10일 북한을 방문, 현지에서 고구마 교류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힘.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4.14-4.20

4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금수산기념궁전 참배(4/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故)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맞아 인민군 지휘관들과 함께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군대의 지위성원들과 함께 김일성 동지께 경의를 표했다”며 이날 참배에 김격식 군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 인민군 장령들”이 동행했다고 보도
- ※ 김 위원장이 올들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것은 처음이며, 2007년에는 신년 첫날과 군 창건 75주년(4.25)을 맞아 참배

나. 정치 관련

■ 南, 대결 고수하면 더 강도높은 조치(4/20, 민족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최성의 책임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의 정신을 거부하고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반민족·반통일로 가며 지금과 같은 자세를 고수한다면 앞으로 더욱 강도높은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민족통신이 보도
- 최 책임참사는 4월 16일 민족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북한의 조치를 어떻게 예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현장의 조달청 소속 상주직원을 추방한 사실을 언급, 또 “요즘 남조선 여론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프로권투 선수의 연결타격’을 연상해 보면 그 예상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북남관계가 경색으로 가면 흩어진 가족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이고 “특히 이명박 정권이 북남관계 정상화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반통일의 길로 나간다면 민심을 얻을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살 수 있는 길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관철하는 길 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고 강조

- 최 참사는 “문제의 근원은 이명박 정권의 성격에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친미사대매국정권이자 반복·반통일정권”이라고 비난한 뒤 “입만 열면 한미동맹이요 하며 친미사대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며 미국과 공모” 하고 “특하면 ‘잃어버린 10년’ 인데 그 10년에 북남관계가 얼마나 진전돼 왔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정권은 이것을 뒤집어 엮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 또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 정신을 뒤집어 엮자는 것이며 우리 민족을 외세의 존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를 내비친 말”이라고 일축
- ‘비핵·개방·3000’ 과 관련, 그는 “개방이라는 말은 체제를 변화시키고 사회주의를 포기하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주제넘은 소리”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년 남북정상회담 때 개방이라는 말을 했다가 “우리에게 단단히 얻어맞고 다시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킴. 그럼에도 “외자를 도입하고 동남바가지를 차고 다니며 우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 코나 씻으라’ 로 말한다(대답한다)”고 언급

■ 北 ‘통일위업’ 에서 남북기본합의서만 제외(4/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 60주년을 기념한 ‘민족 대단결 실현에 바치신 고귀한 업적’ 제하 글에서 “1972년 7·4북남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제시,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의 제시, 1993년 전 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의 발표는 주석께서 지니신 민족 대단결의 이념이 연속 승화돼 펼쳐진 역사적 과정이었다”고 주장, 그러나 통신은 1991년 12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음.
- 조선중앙통신은 김 주석의 ‘민족대단결 위업’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면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마련돼 ‘우리 민족끼리’ 의 이념과 의지로 조국통일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는 새로운 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됐다”고 덧붙임.

■ 김하중 통일부 장관만 지목해 원색 비난(4/19,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만 지목해 “반통일 역적” 등의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집중 비난, 특히 “북남관계의 전도를 위해 반통일 대결 광신자인

‘통일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남조선의 민심”이라고 주장하고 김 장관이 “계속 통일부 장관 행세를” 하는 것을 “우리 민족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공세 방향을 예고

- 신문은 “그는 분명 통일을 하자고 장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 통일을 방해하고 북남대결 시대를 몰아오려고 그 자리에 틀고 앉았다”면서 “이런 자가 통일위업을 해치려고 날뛰는 한 북남관계는 대결의 심연 속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난

■ 北, 한나라당 과반의석에 연일 경계심 표출(4/18, 민주조선; 4/17,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제18대 총선과 관련, “남조선(남한) 국회가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길로 나갈 수도 있다”며 경계심을 나타냄.
- 민주조선은 ‘민심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보수언론들도... 마치 남조선의 민심이 보수세력을 지지하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구태여 그에 대해 시비하러 하지 않았”지만,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지지’를 받은 것이라느니, ‘실용주의 대북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느니... 심지어 ‘총선 결과에 대한 북의 침묵은 실망감의 표현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도발로서 절대로 참을 수 없다”고 주장
- 노동신문 17일자는 남한의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남조선 국회가 이명박 정권의 시녀가 되어 민족공동의 이익과 민심의 지향을 외면하면서 반민족, 반통일의 거수기 노릇을 하게 된다면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李대통령 방미 첫날 친미사대 비난(4/16, 노동신문; 조선신보)

- 노동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첫날인 16일(미국 현지시간 15일) “이명박 정권의 친미사대적인 정체가 그들의 언동과 내세운 정책으로 날날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 신문은 ‘친미사대, 외세추종 의식의 발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동족과는 ‘비핵, 개방’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면서 침략적인 외세에는... 추파를 던지는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본태라며 “민족의 넋이 있고 제 정신이 있다면 어떻게 동족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외세를

우선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

- 조선신보도 이날 ‘미·일 행각’이라는 제목의 촌평을 통해 이 대통령 방문 시 미국의 대한 예상요구와 이 대통령의 대미 예상기대를 비교하면서 “실리를 얻을 것은 없고 빼앗길 것이 너무 많을 뿐이라는 것이 내외의 일치된 분석”이라고 주장

■ 6·15, 10·4선언 부정하면 상종 불가(4/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남조선(남한)·미국 관계우선론과 실용주의, 비핵·개방·3000은 명백히 북남대결과 북침전쟁의 논리로서 털끝만치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이날 ‘남조선 당국은 판전을 부리지 말고 사태의 엄중성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우리 민족끼리’에 기초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떠난 그 어떤 논리도 북남관계의 기초가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
- 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그 무슨 ‘협력’ 문제를 내세워 우리를 녹젓히고(누그러뜨리고) 북남관계 문제를 흥정해보려는 기미까지 보이고 있는데 천만의 말”이라며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존중하지 않는” 측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흥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다. 경제 관련

■ 내각회의 열고 식량문제 논의(4/20, 신화통신: 민주조선)

- 중국 신화통신은 20일 민주조선을 인용해 북한 내각이 최근 확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 민주조선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회의에서 ‘인민생활 제일주의’의 원칙을 관철하고 식량문제와 소비품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의
- 한편 올 1분기 북한의 주요 품목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 등 공업총생산이 늘어나 북한 경제가 양호한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력과 석탄, 금속, 운수 등 국민경제 선행부문 발전에 역량을 계속 집중하기로 함.

■ 北 IT인력, 인도 기업에도 취업(4/16, 연합)

- 북한의 정보기술(IT) 산업이 남한에 비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세계적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컴퓨터 백신 등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거나 해외기업에 수출하고 있다고 네덜란드의 IT자문사인 GPI컨설팅시 폴 치아 대표가 주장
- GPI컨설팅사는 5월 13일부터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와 김책공대, ‘틴 밍 알란’ (동영상제작소) 등을 방문해 컴퓨터 게임과, 만화, 동영상 부문을 시찰하는 방북프로그램 참여사를 모집한 결과 남한과 미국기업들로부터도 참가신청을 받음. 그러나 “북한이 남한 신청자들에 대해선 문제삼을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남한과 미국기업을 제외한 유럽 기업들만 갈 것이라고 언급

■ 北김영남, 2012년에 강성대국 달성목표(4/1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4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 고 김일성 주석의 “한평생의 뜻”이었다며 김 주석의 출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 주석 96회 생일(4.15) 기념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생명선인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을 결정적으로 치켜세우며 농업혁명,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

라. 군사 관련

■ 北어선, 한때 NLL넘어 남측 수역 진입(4/18, 연합)

- 18일 오전 8시께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측 어선 1척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관할수역에 진입했다가 50여 분만에 회항
- 합참은 “북측 어선은 NLL 남쪽 1마일 해상까지 내려왔다가 50여 분만에 북측 관할수역으로 돌아갔다”며 “해경이 국제상선공통망의 통화 내용을 청취한 결과 항로착오로 남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합참은 “이 어선

을 보호하기 위한 북측 경비정도 없었고 단순한 항로이탈로 판단돼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발표

■ 北, 군장성 35명 승진인사(4/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고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맞아 군 장성 35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9호’를 통해 강국종과 백영철을 중장(남측의 소장급)으로, 최광준을 비롯한 33명을 소장(준장급)으로 승진시킴.
- 김 위원장은 이번 ‘명령’에서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앞으로도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굳건히 지키며...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언급
- ※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나 노동당 창당일 등 기념일을 전후해 노동당중앙위·국방위원회 ‘결정’이나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군 승진인사를 시행

마. 사회·문화 관련

■ 성화봉송주자에 런던월드컵 주역 박두익 포함(4/19, 조선신보)

- 4월 28일 올림픽성화 봉송 행사를 사상 처음으로 갖는 북한의 성화 주자에 1966년 런던 월드컵대회에서 북한팀이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진출할 때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박두익이 포함됐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평양 주체사상탑에서 김일성경기장까지 20km 구간을 달릴 성화 주자는 모두 80명, 이 가운데 북한측은 박두익을 비롯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우승자 정성옥 등 “체육부문에서 특출한 기여와 공헌을 한 사람들” 위주로 노동자, 학생, 사무원들, 재일교포 3명을 포함해 모두 56명이고, 나머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 류효명 대사를 비롯한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직원들, 북한주재 화교대표, 후원단체 관계자들이라고 보도
- 성화 봉송은 주체사상탑 광장-주체사상탑 거리-비파거리-영웅거리-천리마거리-영광거리-승리거리-김일성경기장으로 구성

■ 중국인 대상 ‘칠보산 관광’ 재개(4/16, 길림신문)

- 2007년 11월 중단됐던 북한의 청진·칠보산에 대한 중국인 대상 관광이 4월 초 재개됐다고 중국 동포신문인 길림신문이 16일 보도
- 칠보산 관광사업을 전담하는 연변해란강국제여행사는 1박2일의 회령·청진·경성코스와 3박4일의 회령·청진·경성·칠보산 코스를 관광객들에게 제공

■ 꽃파는 처녀 중국 나들이(4/15, 연합)

- 북한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15일 중국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중국 순회공연을 시작, 관객들의 상당수는 36년 전인 1972년 영화로 중국에서 흥행한 ‘꽃파는 처녀’를 잊지 못해 이번에 다시 공연장을 찾은 중장년층으로 구성

■ 평양음식점들, 김일성생일 특식 판매(4/15, 조선중앙TV)

- 평양의 유명 음식점에서 고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맞아 다채로운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고 조선중앙TV가 소개
-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만경대 천석식당은 평완자국수와 털게찜을 비롯해 비빔밥, 온반, 불고기, 전골, 부침개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

■ 김정일 지시로 강냉이국수 보급(4/15, 조선신보)

-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강냉이(옥수수) 국수를 만들어 파는 전문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조선신보는 15일 평양시민들 사이에서 강냉이 국수가 “별식으로” 주목
- 김 위원장은 강냉이로 만든 음식중에 강냉이 국수가 제일 좋이라며 “여러차례 걸쳐 강냉이 국수의 맛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까지” 설명해주고, 평양 시내 곳곳에 강냉이 국수집을 열고 이를 위한 국수집 운영을 위한 원자재 공급 대책도 세워주도록 지시했다는 것

■ 간판 여성앵커에 승용차 등 특급대우(2008년 4월호, 조선)

- 북한이 정부나 외무성 성명 등을 통해 비중있는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조선중앙TV에 단골로 등장하는 리춘희씨는 ‘인민방송원’과 ‘노력영웅’의 칭호를 갖고 북한TV의 메인뉴스인 저녁 8시 뉴스 앵커를

맡고 있으며 당국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는 등 ‘특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北 대중음식점 청류관 새 단장(4/1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평양의 대중음식점인 보통강변의 청류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14일 당·정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1982년 4월 개관한 청류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2007년 9월부터 현관홀, 종합식사칸, 대중식사칸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진행돼 왔으며, 이 공사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건축설계 연구기관인 백두산건축연구원과 공병부대가 동원
- 준공식에는 김 비서 외에 김영일 내각 총리,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등이 참석

■ 아리랑공연, 8월4일 개막(4/14, 연합)

- 북한이 2008년 아리랑 공연을 8월 4일부터 9월 말까지 할 예정이라고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여행사인 고려여행사가 14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
- 여행사는 홈페이지 공지에서 특별히 미국인을 위한 4박 5일 여행 상품을 소개, 이에 따르면 미국인 관광객은 8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차례의 방북 프로그램을 선택가능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美실무팀, 북핵신고서 내용·검증방안 집중협의(4/19, 연합)

- 4월 22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포함한 미 행정부 실무팀은 북한 측과 공식 핵 프로그램 신고서의 내용은 물론 핵심 쟁점에 대한 향후 검증 방안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미국내에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실무팀은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의혹 등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기된 주요 증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 ▲향후 우리농농축활동과 해외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방안 등을 분명히 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짐.

■ 北군부, 이례적으로 美방북단 면담(4/18, 자유아시아방송; 연합)

- 북한군의 이찬복 상장(중장급)이 최근 미국의 방북단을 맞아 북한군은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적성국교역법 적용의 해제와 테러지원국 지정 “정치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방북단에는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대사와 토니 남궁 뉴멕시코 주지사 수석 고문, 모턴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정보·연구담당 차관보, 미 사회과학원 레온 시갈 박사, 미 해군대학의 조나단 폴락 박사, 제럴드 커티스 콜롬비아대 교수,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명예교수, 스티븐 텔 로소 뉴욕 카네기재단 국제평화 안보담당 국장이 참여
- 보스워스 전 대사는 “북한군 고위인사들은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희망했다”면서 “특히 정치적 보상의 일환으로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을 가장 원했고, 그 다음으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원했다”고 주장, 이찬복 상장은 북한군이 미국과의 장기적인 정치적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한 군사적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 北, 美 달러위조설, 정세 악화용 궤변(4/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스텐우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담당 차관보가 최근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정세를 고의로 악화시키려는 궤변”이라고 주장하면서 “10·3합의 이행에 저축이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나. 북·중 관계

■ 베이징 올림픽에 김영남 참가(4/18, 연합)

- 북한은 8월 8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이 18일 전언

다. 북·일 관계

■ 민주조선, '로켓포 수출' 日언론보도 반박(4/1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비열한 자들의 유치한 모략 선전'이라는 논평을 통해 북한이 미얀마에 다연장로켓(MLAR)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상투적이고 유치한 날조 선전"이라고 반박
- 신문은 이런 보도가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 연장, "(조)총련 탄압" 강화 등과 함께 나온 것은 일본 정부가 "국민의 눈초리를 딴 데로 돌려 세우는 방법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 대일 비난 南정부 연계 비난(4/18, 노동신문: 4/17,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8일 한·일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일본의 대북 제재 연장은 "남조선(남한) 이명박 정권의 출현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주장
- 신문은 '불순한 목적을 노린 제재연장 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일본과 관계 회복을 표방하며 그의 과거 범죄를 눈감아주고 독도 강탈 기도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 또 일본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연장으로 "후쿠다 정권의 비이성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적 자세가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면서 "일본반동들은 이명박 패당과 작당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고 반공화국, 반총련 압살이라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제재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17일자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가 실용외교를 내세워 "동족을 반대하는 침략공조체계 수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남한에 "보

수 정권이 들어선 기회에 ‘일한공조’와 ‘관계복원’을 코에 걸고 독도강탈 음모를 실현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

라. 북·러 관계

■ 北철도대표단 러시아 방문(4/19, 조선중앙통신)

- 김용삼 철도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철도성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차 1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 기니 대사에 리경선 임명(4/20, 조선중앙통신)

- 아프리카의 기니 주재 대사로 리경선씨를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리경선 신임 대사는 최근까지 외무성 보도국 부국장으로 활동
※ 북한은 기니와 1960년 6월 수교한 뒤 대사관을 현지에서 주재시키고 활발하게 교류

■ 이탈리아, 4월 중 대북 식량지원 시작(4/18, 자유아시아방송; 연합)

- 유럽 국가들 가운데 이탈리아가 2008년 들어 처음으로 4월 중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나선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이탈리아가 100만유로 상당의 곡물 2천650t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여 보내기로 했다고 보도

■ 北대표단, 유엔무역개발회의차 평양 출발(4/17, 조선중앙통신)

- 리명산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12차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17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4월 20~25일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열리는 총회에는 100여개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참가할 예정

■ 김정일, 시리아와 관계 강화 확신(4/17, 연합)

- 미국이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

장은 17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보낸 독립 62주년 축전에서 양국간 협력관계의 강화에 대한 확신을 표시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우리 두 나라 인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며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당신과 귀국 인민이 앞으로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언급

■ 최태복, IPU 참석차 남아공 도착(4/17, 평양방송)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제118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다고 평양방송이 17일 보도

3 대남정세

■李大통령, 김정일은 대화해야 할 상대(4/19, 연합)

- 이명박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화를 해야 할 상대”라고 언급,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워싱턴 영빈관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남한과 북한은 실질적인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북한도 과거와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실하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 대통령은 대북인도적 지원과 관련, “핵 문제와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물론) 북한도 인도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 이어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관련국들 간에 긴밀한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
- 간담회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 부장관,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 재단 회장, 존 햄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 존 킬러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11명이 참석

■ 北에 연락사무소 설치 제의(4/17, 연합)

-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남북한 간에 고위급 외교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
- 이 대통령은 특히 “연락사무소의 책임자는 남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필요할 때마다 대화가 이뤄졌으나 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남북한 간에는 항상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

■ 정부, 남북 이산가족행사 韓赤 이양 추진(4/16, 통일부)

-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이산가족 관련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이양,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남북 간 이산가족 업무를 대한적십자사가 중심이 돼 이끌어가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이 문제를 적십자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

■ 새 정부 남북기금 집행액, 1천200만원(4/15, 연합)

-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지금까지 집행된 남북협력기금이 1천200만원에 불과, 15일 통일부와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따르면 지난 2월 통일부에 접수된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개별 민간단체의 기금 지원 신청은 모두 63건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기금이 지원된 사업은 전혀 없음.
- 통일부 담당자는 “대북지원 개별 민간단체들로부터 지난 2월 기금 신청을 받았으나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힘. 그런데 남북협력기금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아 기금 지원은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가능성 및 남북관계 활성화 등에 대비해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전년 대비 1천803억원이 증가한 1조2천198억원으로 편성

4.21-4.27

4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군사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南정부 대북정책 비난(4/27, 김일성방송대학; 4/26, 통일신보; 노동신문; 우 리민족끼리웹사이트)

- 27일 김일성방송대학은 두 편의 ‘문답실’ 코너에서 ‘핵완전포기’ 론에 대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발생 경위와 본질도 모르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핵 문제는 “미국이 남조선(남한)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를 핵으로 위협 해 산생된 것”이라고 주장,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절반짜리 비핵화가 아니 라 조선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비핵화”이며 “이것은 북남간의 문제가 아니 라 조(북)미관계 문제이고 남조선까지 포함한 국제적 문제”라고 강조
- 통일신보는 “‘북핵포기 우선론’은 미국의 강경보수 세력이 공화국 압살을 추구하며 내놓았던 ‘선핵포기’를 그대로 모방한 것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대북 개방 주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용 남 못할 도발”이라고 주장, 또 “6·15 이후...북남사이 대화와 접촉, 내왕이 활성화”됐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대한 봉쇄와 고립압살 책동”을 벌이는 것은 미국과 남한의 집권세력이라고 주장
- 통일신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한갓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하고 “북남 사이에는 이미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 령인 10·4선언에 의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은 접촉과 대화, 협력의 통로들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
- 통일신보는 “북남관계 문제,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연락사무소 같은 것 이나 설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정상선언을 “이용하고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길이 곧 북남관계 를 개선하는 길이요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 또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이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책” 이라며 “연락사무소 설치라는 것은 그 어떤 새로운 제안도 아니고, 북남관 계의 현실에도 전혀 맞지 않는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비난

■ 양형섭, 김정일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4/26, 연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라며 전체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촉구
- 양 부위원장은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린 립춘추 전 국가 부주석 사망 20돌 중앙추모회 추모사를 통해 전체 주민들은 “항일혁명선열들의 수령(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을 따라 배워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을 높이 모시고 결사옹위하는 참다운 혁명전사,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지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한 본새(태도)로 선군혁명의 천만리 길을 걸어 나가는 순결한 인간”이 되어 한다고 강조
- 또 “오늘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이라며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부문 등 이른바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결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경공업 부문에서 “혁명”을 일으켜 정권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보람찬 해, 기쁨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
- 추모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당과 군대, 국가 간 부들이 다수 참가, 항일혁명 1세대인 립춘추 전 국가 부주석은 1960년 발행된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 등 많은 항일유적대 회상기를 남김으로써 북한 정권의 ‘혁명전통’ 수립에 기여했으며, 1988년 4월 27일 76세로 사망

■ 北,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합의 비난(4/26,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우리민족끼리’는 26일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굴종적인 합의”라고 비난, 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통해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사까지 모조리 ‘조공보따리’에 담아 상전에게 섬겨 바치고 왔다”면서 “이 합의라는 것은 그 조공의 대가로 얻어낸 상전의 약속”이라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주한미군이 “민족분열과 조선반도 평화 파괴의 원흉”이라면서 “지금 이명박 일당이 떠드는 미군 철수의 동결 합의는 미군의 영구주둔 합의”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전쟁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언급

■ 김정일, 인민군 창설 76주년 기념 화환 증정(4/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민군 창설 76주년을 맞아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이날 열사릉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일 내각 총리,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최태복·김기남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서기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
- 김 위원장은 평양 만수대언덕에 있는 김일성 주석의 동상에도 꽃바구니를 전달

■ 남북관계, 10·4선언 정신에서 출발 강조(4/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조·미 싱가포르 합의 이후 사태발전이 남측 보수집권 세력이 우려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상황으로 되어 나가는가 어떤가는 결국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더 이상 북측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 한다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은 10·4(남북정상)선언의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통미봉남, 보수집권세력의 근심’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10·4선언에는 평화변영에 대한 민족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하면서, (동시에) 6자회담 합의 이행, 조선반도 비핵화와 같은 국제적인 관심사를 주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도가 명시돼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자주 이념은 외부에 대하여 문을 닫아내고,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어긋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이 아니다”면서 “민족을 중시하고 세계 속에서 북과 남이 민족의 이익을 위한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
- 이어 “북측은 국제사회와의 연계, 조화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의해 부정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외세추종, 외세의존의 관점과 입장”이라고 부연

■ 북TV, ‘비핵·개방·3000’ 집중 비난(4/23,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소속 연구

원들을 참석시킨 좌담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 가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내에 연간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올려주겠다'는 부분을 강도 높게 성토

- 4월 21일부터 시작돼 세번째를 맞은 이날 좌담회에서 진용부 책임연구원은 '국민소득 3000'의 재원에 대해 언급하며 "가관은 이명박과 그 패당들이 서방 나라들에서 돈을 빌려오고 심지어는 일본이 우리에게 물어주어야 할 과거청산 대가까지 저들이 먼저 받아서 그것을 보태서 그 무슨 대북지원자금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한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후안무치한 험잡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미국의 식민지 예측경제나 가지고 있는 주제에 감히 그 누구의 국민소득 문제를 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이야 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가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
- 조국통일연구원의 립재학 실장은 좌담회에서 북핵 우선 포기론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의 발생 경위와 본질, 핵위협 의 근원과 6자회담의 합의도 모르는 망발"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 누구의 선택포기에 대해서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저들 땅에 전개된 가슴스러운 미국의 핵무기부터 먼저 철수시킬 용단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
- 조선중앙TV는 같은 주제의 좌담회를 21~22일 두 차례로 나눠 개최

■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도 비난(4/22,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우리민족끼리'는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4월 11일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켜달라"고 말한 데 대해 "매국배족적인 망언"이라고 비난
- '친미주구의 본색을 드러낸 망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의 집에 뛰어 들었던 강도들의 죽음에 대해 '희생'이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며 "명색이 '외교'를 담당한 자라면 응당 민의를 대변해 미제의 죄행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

■ 안팎 시련 속 “우리식대로” 재강조(4/21, 노동신문)

- 노동신문 21일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0년전 제시했던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자’ 는 구호를 새롭게 상기시키면서 “남의 식을 따르면 온갖 불행과 재난”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강조, 이 구호는 김 위원장이 1978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 협의회에서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라는 연설을 통해 처음 제시
-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을 소개하며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고 강조, 신문은 “번영과 행복의 길이 자기 식을 고수하고 살리는 데 있다면, 온갖 불행과 재난은 남의 식을 따르는 데서 부터 온다”며 “우리는 역사의 이 교훈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나. 경제 관련

■ 사회주의적 소유 고수·발전(4/27,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우리민족끼리’ 는 27일 “인민 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하자면 사회주의적 소유를 고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고수를 강조
- 우리민족끼리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근로 인민대중이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 유린한다”며 시장경제의 폐해를 주장, 매체는 몰락한 사회주의국가의 예를 들어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경제분야에서 소유의 다양화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전 인민적 소유의 공장, 기업소들을 사유화했으며 농촌에서도 협동적 소유를 약화시키고 개인 소유를 늘렸다”면서 이렇게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경제생활 뿐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서 일대 혼란이 조성됐다”고 주장
- 이어 “사회주의적 소유를 고수한다는 것은 생산관계의 근로인민적, 집단적 성격을 튼튼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설명, 또 “만일 사회주의적 소유가 그 본성에 어긋나게 개인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되면 그것은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적합한 경제관리 방법은 집단주의적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

■ 노동신문, 식량위기 감자가 출로(4/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곡물가격 폭등 등 세계적인 식량위기 소식을 전하면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이 악화하고 있는 식량문제 해결의 출로를 감자 생산에서 찾고 있다고 자세히 소개
- 노동신문은 '감자 생산에 대한 높아가는 관심' 제목의 글에서 "세계적으로 식량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식량 재고량은 197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지구촌의 식량위기를 언급, 또 "국제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악화하는 식량형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감자라며 유엔이 올해를 '국제 감자의 해'로 정한 사실을 지적

■ 美 금융침투 철저 배격(4/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미국이 이란 등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세계 제패 야망"의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은 '금융망을 통한 미국의 세계 제패야망 실현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최근 "금지된 핵능력 추구"와 "테러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이란의 주요 은행과 기업, 개인들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취한 것을 들어 주장
- 통신은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저들(미국)의 조종을 받는" 국제금융기구들을 통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 제공시 언제나 미국식 시장경제체제 확산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차관 제공 등을 중단했다고 주장
- 따라서 이런 사례들은 "금융망을 통한 미국의 제재와 압력, 금융침투 책동에 각성있게 대하며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가"를 심각한 교훈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내각, 독립채산제·지방예산제 강화 촉구(4/23,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사설에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회의에서 채택된 올해 예산은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힘을 쏟으면서...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올 수 있게” 편성됐다고 강조, 또 신문은 “국가예산 수입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 제고 운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어 국가에 들여놓아야 한다”면서 “우리식의 기업관리 방법인 독립재산제가 은(성과)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

- 지방예산제는 각 지방 행정기관들이 자체로 벌어들여 살림해 나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1973년부터 시행해 온 예산제도임. 북한 내각은 2000년 지방예산 확보와 관련해 지방인민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예산제 규정’을 채택
- 신문은 또 “경제지도 일꾼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 이용하여 생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제품을 하나 생산하여도 단위당 원가를 최대한 낮추는데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사회 순소득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촉구, 이어 “올해 국가예산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는 데서 재정은행 일꾼들이 맡은 몫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기관·기업소들에 대한 원(돈을 의미)에 의한 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 기관·기업소들이 재정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덧붙임.
- 아울러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데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며 “국가예산은 국가의 법”이고 “그 누구도 마음대로 고치거나 어길 수 없으며 오직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고 강조

■ 北, ‘비즈니스 스쿨’ 매년 30명 경영 교육(4/23, 자유아시아방송; 연합)

- 북한 당국이 스위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서 소규모의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하면서 북한 관리들에게 경영학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평양 비즈니스 스쿨에는 현재 북한 관리 30명이 등록해 한달에 사흘간씩 열리는 단기 세미나에 참석하여 마케팅, 경영, 재무, 회계 등을 배우고 있다고 스위스연방 외교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처(SDC)의 젤 워거 평양사무소장이 설명
- 운영 2년째인 비즈니스 스쿨은 첫해에도 30명의 북한 관리를 교육했으며, SDC는 교수진으로 북한 교수 외에 홍콩, 스위스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도

초빙, SDC는 특히 이들 북한 관리들이 비즈니스 스쿨에서 배운 시장경제와 무역 실무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토록 4~10명으로 연수단을 구성,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 국가 등에 보내고 있다고 워거 소장은 밝힘.

- 스위스 SDC는 올해 580만 스위스프랑(약 57억원)의 대북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평양 비즈니스 스쿨 운영비를 포함한 개발협력 사업에 400만 스위스프랑을 집행할 계획

■ 北, 원산청년발전소 2단계 공사 시작(4/2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강원도 원산청년발전소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2단계 공사를 시작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 내각회의, 식량·소비품 대책 논의(4/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은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식량과 인민소비품 해결방안을 비롯한 올해 2/4분기 경제계획 실행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김영일 총리를 비롯한 내각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1/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정형총화(결산)와 2/4분기 계획 실행대책, 작년 국가예산집행 총화와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된 올해 국가예산 집행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제계획 안전에 대한 보고는 곽범기 부총리가, 국가예산 안전에 대한 보고는 로두철 부총리가 각각 맡았다고 통신은 보도
- 회의에서는 2/4분기 경제계획과 관련,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결정적으로 부양하는 데 힘을 집중하기 위한 대책들과 식량·인민소비품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
- 또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철저히 수행해 인민경제의 기술개선(개선)을 적극 실현하는 문제, 중요 건설사업을 다그치며 도시와 농촌을 훌륭히 꾸리고 온 나라를 수립화·원림화 하는 문제, 전 부문단위들에서 계획·노동행정 규율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도 강조
- 올해 국가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집단주의 원칙

을 철저히 고수해 경제관리와 재정관리를 실리가 나게 하는 문제, 경제·회계계산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지방예산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문제, 전 부문단위에서 재정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는 문제, 재정은행 일꾼들이 높은 책임감을 갖고 예산자금을 제정된 항목과 계획범위 안에서 극력 아껴쓰도록 하며,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통신은 소개

- 이번 회의에는 내각 직속기관 책임 간부와 관리국장들, 도·시·군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들, 중요 공장·기업소 지배인들도 방청했다고 보도

■ 北, 신발공장들에 원가절감 기술 보급(4/21, 조선신보)

- 북한 각 지역의 신발 생산공장들이 제조 원가를 낮추면서도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도입에 분주하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담긴 90여건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 중 생고무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함흥 신발공장의 '쌍축스크류의 효과를 이용한 재생고무의 재질과 그 운영' 과 장화 사출량을 50%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원 조정기계연구소의 '전용처리장치를 이용한 장화사출기 조정체계 구성' 논문 등 30여 편이 우수작으로 선정

■ 北, 세계 곡물가격 폭등에 우려(4/20,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0일 “세계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격히 뛰어 올라 커다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10일 발표된 한 국제 조사자료를 인용, “2006년 말 이래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평균 48% 인상됐다”고 보도
- 또 평양방송은 이날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서 식량가격이 폭등했다며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인용·보도

다. 군사 관련

■ 노동신문, 南·美 덩비면 단호한 타격(4/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인민군 창설 76주년을 맞아 게재한 사설에서 남한과 미국을 거론해 “적들이 우리에게 덩벼든다면 우리 군대는 단호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강위력한 혁명 무장력에 의거하여 전진하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제목의 사설에서 “오늘 미제는 국제무대에서 공공연한 침략행위와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남조선 집권세력은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출달음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
- 이어 신문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조직·진행하고 나라의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전체 인민이 항일혁명 선열들이 물려준 총대를 틀어잡고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보위해야 한다”며 “전 사회적으로 군사를 중시하고 성실히 배우는 기풍을 확고히 세우며 다음 해에 맞이하게 되는 노농적위대 창건 50돌을 계기로 민간무력을 강화하는 데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

■ 김일철, 선제타격엔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4/24, 연합)

-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24일 “인민군대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친미사대, 반북대결 행위와 군부 호전광들의 책동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으며 적들의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
- 김 인민무력부장은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북한군 창건 76주년 기념 중앙 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한나라당의 친미사대, 호전적인 보수집권세력은 ‘한미관계 우선론’이니, ‘북핵문제 완전해결’이니, ‘실용주의’니 하는 궤변을 내들고 6·15이후 북남 사이에 이룩된 모든 것을 뒤집어 엮으려고 하면서 자주통일 시대의 흐름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오고 있으며 지어(심지어) 군부 우두머리들 속에서는 우리에게 대한 ‘선제타격’ 폭언까지 공공연히 울

려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

- 미국에 대해서도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우리를 압살할 흉계 밑에 남조선·일본과 3각 군사동맹관계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도발적인 무력증강과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

■ 北, 인민군 창설 76주년 행사 개최(4/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인민군 창설 76주년(4.25)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잇달아 개최, 예비역들이 참가하는 “평양시 노병들의 경축공연”이 23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려 시와 합창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합창 ‘내 고향의 정든 집’, 남성 5중창 ‘손퐁금수 왔네’, 여성중창 ‘우리 님 영웅되셨네’ 등을 공연
- 또 북한군을 총괄 지휘하는 인민무력부는 23일 청사에서 북한 주재 각국 무관단을 초청해 연회를 개최, 각급 기관과 기업소에서는 군 창설일을 앞두고 사상교양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
- 금속공업성 리명학 국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강령과 해설담화, 영화감상 모임을 통하여 깊이 새겨주고 있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무원들 속에서 사상교양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정무원들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원군미풍을 적극 평가해주고 널리 소개 선전하고 있다”고 언급

라. 사회·문화 관련

■ 김정일 관심 속 평양 성화봉송(4/27, 중국국제방송)

- 류샤오밍(劉曉明) 평양주재 중국대사가 “김정일 총서기(노동당 총비서)의 관심하에 조선인민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에 동원됐다”며 “조선(북한)은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평양 봉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국제방송 인터넷판이 27일 보도
- 류 대사는 4월 26일 가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또 “올림픽 성화가 평양에서 봉송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또 올림픽 성화가 조선반도(한반도) 남과 북에서 봉송되기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 남한을 떠나 28일 오전 0시 40분 전용기 편으로 평양에 도착하는 성화의 평양 봉송행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 시작되며, 당일 오후 7시 전용기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이동

- 백두산 천지호반은 약용식물 ‘보고’ (4/27,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백두산 천지 호반에는 한약재로 쓸 수 있는 식물이 100여종에 달한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 北어학잡지, 유모아를 생활화하자고 권장(2008년 1호, 문화어학습)
 - ‘문화어 학습’ 최근호(2008년 1호)가 ‘유모아는 언어생활의 보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유머의 장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주민들에게 언어생활에서 유머의 사용을 적극 권장
 - 잡지는 “사회가 발전하고 전진하며 물질문화 생활이 유족해질수록 웃음은 많아지고 유모아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진다”며 “유모아는 인간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런 저런 매듭을 푸는 데서 아주 좋은 보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
 - 잡지는 유머 사용의 의의에 대해 ▲사회 전반에 “혁명적이며 낙천적인 문화정서 생활 기풍”을 채우고 ▲언어생활에서 환경과 정황, 조건에 맞게 임기응변적으로 말을 재치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인품을 높여주고 언어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것 등을 언급

- 도서관 비치 영어원전 닳을 정도 탐독(4/2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영어교육을 위해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원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아시아재단의 에드워드 리드 한국지부장이 재단 소식지를 통해 전언
 -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리드 지부장은 최근 방북시 만났던 평양외국어대학교 총장의 말을 인용, “평양외국어대학교는 아시아재단이 기증한 책을 활용해 과학, 기술, 경제학에 중점을 둔 영어교수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며 북한의 대학과 기관 도서관에 비치된 대부분의 영어책은 가장자리가 닳을 정도로 많이 읽고 있었다고 언급
 - 리드 지부장은 또 북한 대학의 영어토론 수업이 ‘미국의 은행체계’를 주제로 진행됐다면서 “북한 대학생들이 미국의 은행직원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사업가의 역할을 맡아 영어회화를 익혔는데, 영어실력이 너무 탁월해서 무척 놀랐다”고 회상

■ 北, 지적소유권 창조·보호 노력 경주(4/25, 조선중앙방송)

- 박성국 국가품질감독국 부국장은 “(북한에서) 지적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경제 생활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적 제품 창조와 보호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 박 부국장은 23~2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의 과학·교육·문화예술·출판보도 분야 관계자들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민족토론회의 개막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
- 행사에서는 북한의 지적소유권 보호 실태와 정책, 정부·대학·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적소유권 교육의 중요성, 특허·상표권 침해 개요, 외국의 지적 소유권 보호 및 관리 사례 등이 발표
- ※ 1974년 WIPO에 가입한 북한은 2005년 평양에 ‘지적 제품 봉사센터’를 세운 데 이어 2006년부터 WIPO 대표단을 초청해 ‘지적소유권에 관한 민족토론회’를 개최

■ 靑유도선수권 北선수단 제주 도착(4/24, 연합)

- ‘2008 아시아 유도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17명이 24일 제주에 도착, 단장인 석용범(49) 내각 체육지도위원회 국장을 비롯해 총감독인 박학영(44) 북한 유도협회 서기장 등 임원 10명과 김철수(26), 박옥성(24) 등 선수 7명으로 구성된 북한 선수단은 이날 낮 중국 베이징발 동방항공편으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 북한 선수단은 25일 심판강습회와 아시아유도연맹 회장이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며, 26~27일 양일 간 대회에 참석한뒤 28일 오후 1시 베이징으로 떠남. 아시아유도연맹이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개최하는 2008 아시아 유도 선수권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카자흐스탄, 몽골, 대만, 이란 등 모두 39개국 선수단 800여명을 포함해 임원, 심판 등 모두 3천여명이 참가
- 체급별 국가대항전으로 진행되는 대회 우승자 등에게는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경기 출전권이 부여

■ 北어학잡지, 한자·외래어 사용은 사대주의(2008년 1호, 문화어 학습)

- ‘문화어 학습’은 언어생활에서 아직도 한자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사대주의적 현상’이 남아있다고 비판하고 이를 척결할 것을 촉구

■ 北, 온천·약수 요양소 수용능력 확충(4/23, 조선중앙방송)

- 북한 각 지역의 온천지대나 약수가 솟는 지역에 '요양마을'이 조성되면서 치료나 건강 회복이 필요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2배가량 늘어났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2007년 4월부터 온천·약수지대의 요양소 건설·확장사업을 추진해 왔음.
- 이에 따라 황남 삼천군 종달온천, 자강도 동신군 원흥온천, 평북 운산군 운산온천, 강원 판교군 갈산온천, 함북 명천군 황진온천에 각각 40~75동의 요양마을이 조성

■ 北평균수명 72.2세, 인구증가율은 둔화(4/23, CIA홈페이지; 연합뉴스)

- 북한 주민의 평균수명은 2008년 7월 기준 72.2세로 2007년 보다 0.28세 길어질 것이라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추산, 북한의 총인구는 2천347만9천89명으로 2007년 2천330만1천725명에 비해 17만7천364명 증가, 0.732%의 증가율을 보임.
- 평균수명도 2005년 71.37세, 2006년 71.65세, 2007년 71.92세에 이어 72.2세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음. 북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2005년 0.90%, 2006년 0.84%, 지난해 0.78%로 둔화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조선중앙통신이 발행한 2007년판 '조선중앙연감'은 2004년 총인구를 2천361만2천명으로 발표해 같은 해 CIA의 추정치 2천269만7천553명보다 91만명 정도 많았음.

■ 北월향각, 가금류 요리로 인기몰이(4/22, 조선신보)

- 북한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전문식당인 월향각이 평양 관광 지방민들의 필수코스로 인기몰이, 조선신보는 22일 "조선(북)에서는 각지의 오리, 닭공장들이 개건돼 고기생산과 알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나라에서는 고기와 알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과 함께 오리, 닭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봉사의 폭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월향각도 그러한 봉사단위의 하나"라고 소개하고 특히 개선문 바로 옆에 있어 지방에서 상

경한 관광객들이 금수산기념궁전과 개선문 관광을 마치고 방문하는 코스가 되고 있다고 보도

■ 北 식량대란 가시화 조짐... ‘돈있어도 양식 못구해’ (4/22, 연합)

- 한국과 국제사회의 식량원조가 중단된 가운데 중국마저 올해부터 식량수출 제한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에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수입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선양의 한 중국인 대북무역업자는 “북한 사업 파트너로부터 ‘얼마를 줘도 좋으니 무조건 식량을 구해달라’ 는 부탁을 받았지만 중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제3국을 통해서도 식량수입이 가능한지 타진해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언

■ 北, 올해 AI 감염사례 아직 없다고 보고(4/22,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이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계획을 세우는 등 방역체제 강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WHO와 식량농업기구(FAO)에 북한내 AI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은 아직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

■ 北역사학술지, 中동북공정 거둬 반박(2008년 1호, 역사과학)

- 북한의 학술지가 “고구려의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조선 민족의 역사로 빛날 것”이라며 고구려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강력 비판
- ‘역사과학’ 최근호(2008년 1호)는 고구려를 거둬 “조선 민족의 나라”라고 못박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고구려의 역사를 조선역사 서술 체계에서 취급하는 것을 자명한 것으로 여겨왔다”고 강조, “그런데 일부 대국주의 사가들은 마치 고구려의 역사가 조선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어떤 주변 나라 역사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것처럼 그릇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학술지는 지적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고구려가 어느 민족의 나라이고, 그 역사가 어느 민족의 역사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바로 해명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라고 언급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외무성, 북미 협상에 전진 있었다고 밝힘(4/24, 북한 외무성; 조선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은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평양 방문에 대해 “협상은 진지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됐으며 전진이 있었다”고 언급
 - 대변인은 “협상에서는 핵심고서 내용을 비롯하여 10·3합의 이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언급

- 北최태복, 미국과 우방으로 지낼 수 있어(4/23,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북한은 “미국과 우방으로 지낼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 의장은 4월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18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해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우리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려 한다면 미국과 우방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공식 천명했다”고 언급
 - 의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은 IPU 총회 참석 후 22일 평양으로 귀환

나. 북·중 관계

- 박의춘 北외상, 취임후 첫 방중(4/26, 연합)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26일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중국에 도착, 3박 4일간의 공식 방중 일정을 시작,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방중한 박 외무상은 양 부장과 북중 외무장관 회담을 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과도 회동을 가질 예정, 박 외무상은 베이징 외에 금융 허브인 상하이(上海)도 방문할 예정

■ 평양에 北·中 합작 담배회사 설립(4/23,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636만 달러를 투자한 담배 합작회사 평양백산담배합영회사를 23일 평양에 설립, 회사는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간 경제협력 및 우의의 결실”이며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고 북한의 조정웅 경공업성 부상(차관)이 조업식에서 언급
- 중국 지린연초공업유한회사(연지담배공장)는 2000년부터 북한에 대동연 초유한회사와 라선신흥연초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평양백산담배회사는 이 회사의 두번째 대북 진출 사업으로 북한의 조선수출입상사와 합작

■ 방중 北공군사령관, 중국방장관 면담(4/23, 조선중앙통신)

-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리병철 공군사령관이 22일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을 예방하고 환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 이 자리에서 량 부장은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인방이고 중조 친선은 장기간의 혁명투쟁 속에서 피로 맺어진 친선”이라며 “김일성 동지께서 중국의 노세대 혁명가들과 함께 마련해주신 중조친선은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 “지난 시기 두 나라 군대들 사이에 고위급 내왕을 비롯한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 중조 친선관계가 확대·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면담에는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대사와 쉬치량(許其亮) 중국 공군사령관이 배석

■ 노동신문 ‘티베트 결의’ 美·EU 의회 비난(4/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유럽연합(EU)과 미국 의회가 잇따라 티베트 사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를 정치화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움직임”이라고 비난
- 티베트 사태를 “티베트자치구의 라싸시에서 범죄집단이 감행한 조직적인 폭력 범죄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그럼에도 올림픽을 “중국이 주최하는 데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서방 세력들은 티베트 문제를 걸고 계속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

다. 북·일 관계

■ 재일본 조선인대표단 방북 후 출국(4/26, 조선중앙통신)

- 리기석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재일본 조선인대표단이 26일 평양을 출발

■ 北군·인민, 日독도강탈책동 주시(4/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올린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라는 팸플릿을 비난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파렴치한 독도 강탈 책동에 커다란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그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파렴치한 영토 강탈 야망’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외무성의 문서는 “영토 팽창과 조선 재침에 환장한 일본 반동들의 파렴치한 탐욕을 세계 앞에 확연히 드러내 보이는 망동”이라며 “우리는 남의 영토를 제 것으로 만들려고 분별없이 날뛰는 일본 반동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
- 신문은 “일본 반동들의 무분별한 독도 강탈 책동은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고 그들의 독도강탈 책동은 조선 재침, 아시아 재침의 길과 잇닿아 있다”며 “일본 반동들이 한사코 영토 팽창의 길에 뛰어든다면 파멸과 치욕 밖에 차례질(돌아갈) 것이 없다”고 덧붙임.

■ 北, 원폭 피해자 기자회견 보도(4/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 살고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가 철저한 사죄와 조속한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일제시대 미군의 원자탄이 투하된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끌려갔다가 원폭 피해를 입은 이들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 주재 외국 특파원과 조총련 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
- 회견에서 원폭 피해자 모임인 ‘반핵평화를 위한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 서기장은 “우리 나라(북한)의 원자탄 피해자 문제는 일제의 군사적 강점이 빚어낸 산물”이라면서 “피해자들은 배상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 한편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는 회견에서 북한 거주 원폭 피해자가 총 1천 91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대부분이 사망하고 생존자가 382명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의 신화통신이 전언

■ 노동신문, 일이 동북아 군비경쟁 부채질(4/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08 동아시아전략전망' 보고서와 외무성의 군축백서를 거론, 일본 정부가 해외팽창과 군비 증대에 주력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

라. 북·러 관계

■ 북한 철도성과 러시아 철도공사 협조협정 체결(4/25, 조선중앙방송)

- 북한 철도성과 러시아 철도공사가 24일 모스크바에서 협조 협정과 합영기업 설립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계약서 조인식에 북측 김용삼 철도상과 김영재 러시아 주재 대사,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 아나톨리 월로진 러시아철도무역주식회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김영남, 토고 대통령에게 축전(4/27,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6일 파우레 그나싱베 토고 대통령에게 독립 48주년을 기념한 축전을 보내 친선협력 관계의 확대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매체들, 시리아와 친선관계 잇따라 보도(4/27, 조선중앙방송; 4/24,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북한과 핵협력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와 친선을 과시하듯 시리아의 '알 아흐드 알 와타니당' 총비서가 지난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보낸 축전 소식을 27일 보도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 당의 기사 가산 아부들 아지즈 오스만 총비서는 고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기념한 축전에서 김 주석이 "두 나라,

두 당 사이 관계, 그리고 호상 존중과 호혜에 기초한 국가들 사이 관계수립을 위해 정력적인 활동”을 벌였다고 하며 “우리 나라(시리아)의 투쟁과 민족적, 지역적, 국제적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귀당과 귀국 인민의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

- 평양방송은 24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시리아의 독립 62주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21일자 답전을 보내 “두 나라 인민들 사이 친선협조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소개

■ 외무성대표단 유럽 순방 출발(4/26, 조선중앙통신)

- 궁석용 부상을 단장으로 한 외무성 대표단이 체코,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을 순방하기 위해 26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불가리아 사회주의당 대표단 평양 방문(4/26, 조선중앙통신)

■ 루돌프 자이터스 독일 적십자사 총재 귀국(4/26, 평양방송)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아프리카 국가들에 축전발송(4/26, 조선중앙통신)

-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 시에라리온 대통령에게 독립 47주년을 기념해 축전발송, 또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게도 축전을 발송

■ 인도네시아에 북한 미술특별전 개최(4/2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미술 특별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립미술관에서 23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소개, RF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북한 미술 특별전은 양국 간 문화교류 협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

■ 北, UAE 대사에 허종 임명(4/2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2007년 9월 수교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사에 허종 쿠웨이트 주재 대사를 겸임 발령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허 대사는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한 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89.9),

유엔주재 차석 대사(90.3), 외무성 순회대사(95.12),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담 북측 단장(2003.6)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쿠웨이트에 주재하며 카타르와 바레인 대사도 겸하고 있음.

3 대남정세

■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 자금 부족으로 입주지연(4/27, 연합)

-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 중 상당수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입주에 차질을 빚거나 심지어 입주를 포기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7년 6월 개성공단 2차 분양을 받은 167개사 중 85개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입주 준비현황을 조사한 결과 62.4%가 시공사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음. 또한 분양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착공을 한 기업은 21.5%에 불과
- 입주예정 기업 중 59.0%는 '자금조달에 차질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 원인으로 '특례보증 지원한도의 축소' (64.1%)를 꼽음. 입주예정 기업들은 "2007년 개성공단 분양설명회 때 통일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0억원까지 시설자금의 70%를 특례보증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그만큼 보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또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의 공장부지와 시설들이 제대로 담보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대출의 주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
- 한편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비용은 평균 60억8천만원으로 집계, 입주예정 기업들은 '금융기관 대출' (57.2%)이나 '자체 자금조달' (39.4%)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분양업체들은 2009년 7월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면 분양계약이 취소된다"며 "입주예정 기업 상당수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남북관계 경색에 충북도 대북 농업지원 차질(4/26, 연합)

-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충북도가 대북 농업지원에 나섰으나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농업 기술자들이 북한에 가지 못하면서 차질

- 충북도에 따르면 26일 옥수수 농사법과 농기계 조작법 전수,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위해 황해북도 봉산군에 파견키로 했던 20여명의 농업기술자들이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과 맞물려 북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 바람에 방북하지 못했음. 충북도는 북측과의 일정 조정을 통해 5월 초 농업기술자들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
- 도는 이에 앞서 3월 11일 김정수 농정보부장이 봉산군을 방문해 북한측과 농업지원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한 뒤 3월 31일 10ha 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수수 종자 350kg과 비닐하우스 10채를 지을 수 있는 농자재, 비료 70t, 직파기 8대, 분무기 110대, 경운기 5대, 관리기 16대 등을 북한에 보냈으며 이들 농자재들은 4월 초 북한에 도착

■ 통일부, 금강산 청년학생대회 8명 방북 불허(4/25, 연합)

- 통일부가 4월 26~28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5차 남북 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 참가를 신청한 42명 가운데 8명의 방북을 불허,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상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 등과 관련해 불허했다"며 "불허한 8명은 법원 판결에 따른 이적단체 구성원이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이라고 설명
- 관계자는 "이렇게 8명이 한꺼번에 불허된 것은 근래에는 없었던 것 같다"면서도 "이번 행사를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행사 차질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안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 하에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
- 그러나 방북단을 구성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이호년 집행위원장은 "박지현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관계자 2명은 집행유예 상태로 법절차가 진행 중이라 (방북 불허를)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의장 등 6명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

■ 3월 중 북한산 모래 인천항 반입 크게 감소(4/25, 연합)

- 인천항을 통한 북한산 바닷모래 반입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2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인천항을 통한 북한산 바닷모래 반입량은 92만7천885t으로 2007년 3월의 118만2천523t에 비해 21.5% 감소, 지난 1~2월 반입량이 208만1천159t으로 작년 동기의 195만1천9t에 비해 6.7%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3월 들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감소

- 세관은 최근 충남 태안 해역과 전북 군산 배타적경제수역 등지에서 모래채취가 본격 허용되면서 북한 해주에서 모래를 채취하던 선박들이 국내 해역으로 이동, 북한산 모래 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음. 국토해양부도 이런 변화를 감안할 때 올해 북한산 모래 반입량은 지난해 1천495만6천m³에 비해 60% 가량 감소한 600만m³에 그칠 것으로 전망

■ 통일부, 남북경협 원스톱서비스 사이트 개설(4/25, 통일부)

- 통일부는 남북경협 사업과 관련한 민원인들의 애로 사항 및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남북경제협력통합지원센터(www.unikorea.go.kr/unicconomy)를 개설했다고 25일 발표
- 이 사이트는 남북경협 관련 법령 및 기금지원 제도, 남북경협 동향 등 정보와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통일부는 소개

■ 北경공업 공장 기술지원팀 방북(4/23, 연합)

- 북한 경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측 전문가팀이 4월 23~26일 북한을 방문, 남측 원자재가 제공된 신발 공장에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발표, 이번 방문은 남북간의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사업과 관련, 남측이 북에 8천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통일부는 설명

■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150병상 규모로 확대(4/22, 연합)

- 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는 개성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협력병원을 2010년까지 150병상을 갖춘 대학병원급 병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22일 발표
- 이 단체는 22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연 2008년 정기 총회에서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을 북한 남부지역 중추의료기관으로 육성하

는 것을 목표로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50병상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 상공인과 시민단체 등에 후원과 동참을 촉구

■ 北, 26일부터 개성공단에 닭·계란 반입 금지 통보(4/22, 통일부)

- 북한 당국이 22일 남한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 4월 26일부터 개성공단에 닭, 계란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힘.
- 개성공단에는 공단 직원들의 식재료로 매달 생닭 8.5t과 계란 12만7천개 가량이 반입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
- 통일부 측은 “북한이 서면으로 조류 등 반입금지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에도 남한 내 AI 발생보도 등이 있을 때 북한은 구두로 조류 반입 금지를 요청했다”면서 “가깝게는 2007년 3월에 북측의 구두 요청에 따라 조류 반입을 중단했다가 7월 반입을 재개한 바 있다”고 설명

■ 해남 황토고구마 내달 중순 평양 ‘입성’ (4/21, 연합뉴스)

- 전남 해남 황토 고구마가 5월 중순 북한 평양에 뿌리를 내리게 됨. 군 관계자는 “4월 11일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신삼식 소장과 농발협 사무총장이 개성을 방문, 고구마 적응 시험재배, 육묘 및 저장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4월 27일 농업용 기계 및 자재를 남포항으로 수송하게 된다”고 밝혔음.

■ 금강산 온정각 일원에 봉축 연등(4/21, 연합뉴스)

-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는 부처님오신날(5월12일)을 맞아 금강산 온정각에 봉축등을 밝히고, 쌀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4.28-5.4

4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강원도 과수농장 시찰(5/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원도 고산군에 위치한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농장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유리한 키낮은 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수종과 품종들을 배치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절따라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 올과일과 늦과일을 합리적으로 잘 배합하고, 오래된 과일나무를 계획적으로 갱신하고, 빈 그루를 제때에 보충해 과수원을 영원히 시들지 않는 청춘과원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언급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을 수행한 인물에 대해서는 미언급

■ 김정일, 軍의 대민지원 강조(5/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720부대의 직속중대를 시찰하고 군인들의 대민지원에 대해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제720부대 직속 중대가 인근 주민들을 돕는데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인민들과의 혈연적 연계는 인민의 군대인 우리 군대의 본성적 요구이고 존재방식”이라며 군인들의 민간부문 지원에 대해 강조
- 김 위원장은 또 제409군부대 산하 중대를 시찰, “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전투력을 높이는 기본담보”라고 강조하고 “중대를 일당백의 전투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에는 현철해, 리명수 대장이 동행

■ 김정일, 노동절 맞아 합창단 공연 관람(5/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1절을 맞아 군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공연에 만족을 표시하고 공훈국가합창단에 대해 감사를 전했으며 공연된 관현악 합창곡 ‘눈이 내린다’에 대해 “주체음악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특출한 기념비적 대결작”이라고 평가했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소개

- 공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이 동행해 주묵, 현철해, 김명국, 리명수 군 대장들도 김 위원장과 함께 공연을 관람

나. 정치 관련

■ '6·15-10·4선언' 관철 강조(5/4, 노동신문; 5월호, 금수강산)

- 노동신문은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6·15선언의 기치 밑에 힘차게 전진해온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위업은 지난해 역사적인 10·4선언의 채택으로 새로운 발전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 북한의 대외 홍보잡지인 '금수강산' (5월호)도 '북남협력사업은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 논평에서 "북남협력을 떠나서 그 무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말하려는 것은 빈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북남협력사업을 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북남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며...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

■ 제국주의 민심교란 책동 봉쇄 강조(5/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의 "민심교란 책동과 심리 모략전, 사상 문화적 침투"를 "첫째가는 격파대상"이라며 "자그마한 요소도 묵과하지 말고 철저히 짓밟개 버려야 한다"고 강조
- 노동신문은 2면 전면에 게재한 '제국주의 심리전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제국주의의 오랜 침략의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심리전이 전면적으로 감행되고 그 도수(정도)가 절정에 이른 적은 없었다"면서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적들이 퍼뜨리는 부르주아 사상문화에 물젓지 않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

■ 새 통일교육안은 반통일안(5/2,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우리민족끼리'는 통일부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를 반영해 내놓은 통일교육 기본 계획안에 대해 "통일부 아닌 분열부만이 내놓을 수 있는 반통일안, 대결안"이라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통일교육인가 대결교육인가' 제목의 논평에서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등 안보관련 내용과 북한 인권실상 등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통일교육 기본 계획안을 거론, "우리의 체제와 존엄에 대한 용납못할 비방·중상과 대결논리로 일관돼 있다"고 반발
- 논평은 통일교육의 3대목표중 하나인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북한이 비핵·개방을 하지 않는 한 통일이 없다는 '반통일관'이라고, '건전한 안보관'에 대해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한 '전쟁관'으로, '균형있는 북관관'은 실용적이고 상호주의적인 남북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대결론'이라고 해석

■ 北, "남북관계 경색, '경제살리기' 도움안돼"(5/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 외교에 대해 "사대매국 행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로 남북관계가 파국을 예고하고 있고 이는 새 정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미·일 정상의 지지를 얻은 데 대해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못할 도발"이라며 "'비핵·개방 3000'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떠맡기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발상"이라고 주장

■ 평양방송, "대북경협 4원칙은 대결 선언" 반발(4/30,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30일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경협 4대 원칙'에 대해 "사실상 북남 사이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수작"이라고 반발
- 방송은 '이른바 실용정부의 범죄적 정제'라는 제목으로 내보내고 있는 논평 연재물의 4번째에서 대북경협 4원칙은 "6·15 이후 북남 사이 이룩된 모든 성과들을 뒤집어 엮기 위한 대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

■ 北, 방북불허에 “반통일정책 산물” 비난(4/30,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우리민족끼리’는 4월 26~28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5차 남북 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 참가 신청자중 8명에 대해 통일부가 방북을 불허한 것을 “반통일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 ‘우리민족끼리’는 30일 ‘극악한 반통일정책의 산물’이라는 논평에서 통일부의 조치에 대해 “북남 사이의 사소한 통일 움직임도 전면 차단하려는 기도를 드러낸 반통일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사소한 통일 의지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주장

■ 노동신문, 사회주의 고수 강조(4/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사회주의 길에서 이탈해 사회주의 깃발을 내리면 인민들은 불행과 재난을 당하고 노예가 된다”면서 사회주의 체제 고수를 강조
- 신문은 “사회주의로 길은 자주와 평화의 길이며 민족번영의 길”이라면서 “발전도상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의 후과를 가시고 자주적 발전과 민족번영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 길 밖에 없다”고 주장

■ 北, 6·15선언, 10·4선언, 정치흥정 불가(4/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은 결코 정치적 흥정물이 될 수 없으며, 일개 정상배가 부정한다고 그 민족사적 의의가 훼손될 수도 없다”고 주장
- 신문은 또 “남조선(남한)의 보수 집권세력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자주통일 시대에 이룩된 모든 성과들을 뒤집어엎기 위해 노골적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 정상선언이 “북남관계 발전과 통일 위업 실현의 기초”라고 거듭 강조

다. 경제 관련

■ 北, 국가별 개발능력 강화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5/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제64차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원유와 식량가격의 상승,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 현 시기 직면한

세계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적 행동계획을 세워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북한 대표는 아태지역 각국이 “자기의 구체적 조건과 환경에 부합하는 민족경제와 사회를 건설하도록 추동하는 것과 함께 그 능력을 강화하는 데로 지역협조가 지향”돼야 하고, “남남협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천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나라(북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천년기(밀레니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지역 나라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개발’이란 주제로 열린 ESCAP 제64차 총회에는 남·북한을 비롯해 62개 회원국 각료와 실무자들이 참석

■ 4월 각 부문 경제계획 달성(5/4,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4일 전력, 석탄, 철도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4월 계획을 “빛나게” 수행했다고 주장, 평양방송은 전력부문에서 “허천강, 강계청년, 장자강, 서두수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들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고(수립하고) 물관리와 구조물관리 설비운전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수력발전관리국적인 월 전력생산계획을 109.6%로 수행했다”고 보도
- 석탄부문에서 각 지역 탄부들의 “증산투쟁”에 힘입어 내각 석탄공업성 차원에서 월 석탄생산계획을 101.1%로 끝냈으며, 금속공업 부문에서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은률, 재령광산의 광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계획보다 많은 철정광을 제철소들에 보내주었다”고 소개
- 또 철도수송부문에서는 철도성 차원에서 월 수송계획을 100.3% 달성했고 육해운성의 경우도 무역화물선 수송량은 126.3%, 국내화물선 수송량은 111.2%, 자동차 수송량은 105% 수행했다고 보도, 아울러 기계공업성도 월 계획을 102.8%로 수행했고, 경공업성에서도 월 계획을 104% 완수

■ 제11차 춘계국제상품전람회 개최(5/3, 조선중앙통신)

-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제11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전람회에는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설비, 운전기재(운송장비),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이 출품된다”고 언급

- 이번 전람회에는 중국과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 시리아, 스위스, 호주,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스페인, 베트남,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대만의 기업들이 참가

■ 제23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최 (5/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의 과학기술 제전인 제23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축전에는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지 400여개 단위의 간부와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 등 7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시·군·도 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580여 건의 연구성과와 자료가 출품
- 최태복 노동당 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용진 교육상, 변영립 국가과학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열린 폐막식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축전컵과 메달, 증서, 공적상 등이 수여

■ 노동절맞아 “경제강국 건설” 강조(5/1,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1일 ‘5.1절(국제노동절) 118돌을 맞아 “제국주의”를 비롯한 외부의 “사회주의 신념 허물기”에 “총대”로 맞서 싸우며 “경제 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
- 노동신문은 5.1절기념 사설을 통해 “오늘 제국주자들은 인민의 마음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 버리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공세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면서 “근로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짓밟는 제국주의는 오직 총대로만 타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기름’ 나는 수유나무림 수만ha 조성(4/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식용유 등의 원료로 쓰이는 기름 확보를 위해 전역에 수 만ha의 수유나무림을 조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황해북도 서흥군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기름나무림’ 조성에 나서 이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

■ 北무역상, 모든 나라와 경제 협력·교류 확대(4/29, 조선중앙통신)

- 리명산 무역상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12차 총회에서 “조선(북한) 정부는 앞으로도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평화롭고 공정한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다방면적인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리 무역상은 4월 20~25일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열린 총회에서 “조선 정부는 이미 마련된 생산 토대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대외무역을 다각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정보기술 발전에 큰 힘을 넣는 한편 국제기구들을 통한 개발협조도 장려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

라. 군사 관련

■ 北조평통, 南 ‘무력증강’ 비난(5/2, 조평통 서기국보도)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일 남한이 ‘F-15K’ 전투기와 장거리 유도탄 도입을 결정한데 대해 북한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무력증강책동”이라며 “전쟁억제력 강화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남한이 “우리(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에 이어 미국의 전투기들과 최신장거리 정밀타격용 순항미사일 수백기를 비롯한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위협천만한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평화적 망동으로서 그들의 ‘선제타격’ 론이 실지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
- 이런 결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4월 방미에서 “미제침략군(주한미군) 감축중단과 남조선의 미국산 무기구매 지위를 ‘나토’ 급으로 높여줄 것을 애절한 것”과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최신무기 도입책동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결탁하여 북침전쟁준비를 완성해 보려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족적이며 호전적인 정체를 더욱 똑똑히 드러내놓고 있다”고 주장

■ 軍力강화 최우선은 불변한 입장(5/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철한 반제계급적 입장은 총대를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군력 강화에 언제나 최대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총대 위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강성변영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민이 준엄한 투쟁 속에서 간직한 고귀한 혁명의 철리”라며 “총대를 틀어쥐고 군력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

■ 한·미, 4월 170여회 공중정탐(4/30, 조선중앙통신)

- 국군과 미군이 4월 중 북한에 대한 “공중정탐”을 170여회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주장

■ 北, 김태영 합참의장에 격한 비난(4/29,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 핵무기 대책 발언으로 ‘선제 타격론’ 논란을 빚은 김태영 합참의장에 대해 “온 민족에게 화(禍)만을 몰아오는 우환거리로 하루빨리 매장되어야 한다”고 비난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AI 방역사업 강화(5/5, 조선중앙방송)

- 내각의 농업성 수의방역소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특히 AI를 퍼뜨리는 철새들의 감시와 통보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밀집돼 있는 동·서해안 지역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조류의 유동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사소한 이상징후가 나타나도 제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방송은 언급

■ 월북 만담가 申不出 재평가 움직임(3월호, 조선예술)

- 1947년 월북, 승승장구하다 1960년대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일제시대 최고의 만담가 신불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조선예술’ 3월호는 ‘만담의 재사 신불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의 과거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최근에 경애하는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신불출의 예술창조 활동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감회 깊이 회고하시면서 그의 만담 작품들을 다시 출판할 데 대한 은정깊은 사랑을 안겨” 주었다고

주장

- 잡지는 또 김정일 위원장이 “전국적인 만담경연도 조직하여 우리 시대 새로운 만담수들을 찾아 키울 데 대한 조치”도 취했다고 언급

■ 北 함흥 31.9도(5/3, 조선중앙방송)

- 함흥지역은 3일 낮 최고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인 31.9도를 기록,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평양 29도, 사리원 28.5도, 개성 27도, 원산 31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기상관측 이래 당일 최고기온을 나타냄.

■ 2008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참가 선수 귀국(5/2, 조선중앙방송)

- 4월 26~27일 제주도에서 열린 2008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이 1일 평양으로 돌아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여자 52kg급 박명희), 은메달 1개(여자 48kg급 박옥성), 동메달 3개(남자 60kg급 김경진, 여자 57kg급 최경실, 여자 63kg급 원옥임) 등을 획득

■ 지적권 보호·장려 ‘중장기 전략’ 추진(5/2, 조선신보)

- 북한이 중장기 전략을 세워 지적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장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그러나 신문은 이 전략의 세부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조선신보는 북한 당국이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서는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주고 있으며 발명가로 등록된 과학자·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 또 상표법에 따라 제3자가 상표를 출판·인쇄·매매하거나 허위·위조상표를 붙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고,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인격적·재산적 권리’가 부여된다고 신문은 소개

※ 북한에서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는 ‘상표법’(1998.1 제정), ‘발명법’(1998.6), ‘저작권법’(2001.3),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2003.6), ‘원산지명법’(2003.8) 등이 있음. 또 북한에서 지적소유권 업무는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품질감독기관, 저작권사무국, 출판·문화지도기관, 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등이 분담

■ 베이징올림픽에 60명 이상 파견(4/30, 교도통신)

- 북한이 2008베이징올림픽에 역대 최대 규모에 버금가는 선수단을 파견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30일 리경일 체육지도위원회 국장이 “현재 50명 정도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냈고 5월 말이 되면 60명 이상이 출전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표창(4/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30일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프로그램 기술 발전에 기여한 일꾼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한 표창이 있었다”며 “그들은 최근 새롭고 능률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개발해 나라의 컴퓨터 기술 발전과 기술혁명 수행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 평양소주 뉴욕에 첫선(4/30, 연합뉴스)

- 북한의 대표적인 소주인 평양소주가 29일(현지시간) 미국에 첫선, 뉴욕의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수입한 평양소주는 통관과 검사 등 수입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뉴욕 퀸스의 보관창고에 도착, 뉴욕과 뉴저지에서 판매에 들어감.

■ 北 화장품, ‘은하수’ 수출 확대(4/29, 조선신보)

- 북한에서 개발된 기능성 화장품인 ‘은하수’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9일 보도, 조선신보에 따르면 ‘은하수’ 화장품은 현재 북한 내는 물론 러시아와 이탈리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를 통해 해외 진출을 늘리기 위해 대량 생산과 품질 개선에 노력

■ 김일성대, 나노술탄 건강음료 개발 (4/29,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실험연구소에서 나노미터(nm) 크기의 금(金) 입자를 섞은 건강음료를 개발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이 나노금 음료가 “지능활성 음료”이자 “건강장수 음료”라며 “물 1리터에 수 nm 크기의 금이 30 mg 풀려 있는데, 나노금은 쉽게 흡수돼 온몸을 순환하므로 인체의 생리활동에 신기한 작용을 한다”고 설명

■ 봉송개막식엔 김영남, 폐막식엔 김영일 참석(4/29 조선신보)

- 성화봉송과 관련하여 “조선(북한)은 오랜 친선의 전통을 가진 중국에서 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 것을 크게 환영하는 심정으로 성심성의를 다했다.”고 보도, 신문은 특히 28일 주체사상탑 광장에서 열린 봉송 개막식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데 이어 김일성경기장의 폐막 행사에는 김영일 내각 총리가 참석했다고 보도

■ 北병원, 골괴사증에 줄기세포 이식치료(4/28, 조선신보)

-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김만유병원이 골괴사증(骨壞死症)에 줄기세포를 이식해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성화봉송 저지 시도 올림픽이념 도전(4/28,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던 사실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처사는 올림픽 헌장과 이념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주장, 평양 성화 봉송은 주체사상탑, 청류교, 우의탑, 중국대사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체육관, 평양역, 평양대극장, 김일성광장, 천리마동상, 개선문 등을 거쳐 김일성경기장에서 끝나며, 성화는 오후 7시 전용기로 베트남으로 이동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6자회담 5월말 재개 가능성(4/30, 연합뉴스)

- 김숙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Hill) 차관보를 만나 북한의 시리아 핵 개발 지원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 힐 차관보는 “6자회담의 후속 조치 등 여러 가지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며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면 미국도 의무를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

나. 북·미 관계

■ 北, 테러지원국 해제에 '지극 정성' (5/2, 연합)

- 북한이 미국과의 핵프로그램 신고 협의에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되느냐'고 물을만큼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알려짐.
-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특히 플루토늄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에 '전문적인 것은 내가 모르니 전문가들끼리 얘기하게 하자'고 해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전문가들을 이끌고 4월 말 방북,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짐.

다. 북·중 관계

■ 中중소기업, 원가상승 압박에 북한에 관심(5/5, 연합)

-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남쪽에 위치한 인구 50여만 명의 작은 도시인 덩타(燈塔)시 공상연합회 대표단은 최근 북한의 조선봉화회사의 초청으로 7일 간 북한을 둘러보고 돌아왔다고 중국 언론이 5일 보도
- 이번 방북의 목적은 해외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단은 방북 기간 북한과 유성페인트공장, 의류공장, 압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각각 체결, 이중 덩타시 차이리자(彩麗佳)화공유한공사는 북한에 300만유로(약47억원)을 투자해 유성페인트공장을 짓는 계획을 추진 중
 - ※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북한 진출을 모색하는 이유는 중국에서도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 고용조건이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져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있고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채산성까지 나빠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 中후진타오에 열차사고 위문(4/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최근 열차 충돌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데 대해 위문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박의춘 외무상, 상하이 방문(4/29, 조선중앙통신)

- 2007년 5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방중기간 상하이(上海)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통신은 박 외무상이 4월 26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소식을 전하며 “외무상 일행은 중국 방문기간 베이징(北京)시와 상해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고 보도

라. 기타 외교 관계

■ 대외문화연락위 대표단 귀국(5/4, 조선중앙방송)

- 문재철 위원장 대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대표단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

■ 스위스 전국여성이사회대표단 방북(5/4, 조선중앙통신)

- 아니타 파르니 전국여성이사회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위스 전국여성이사회대표단이 3일 평양에 도착

■ 김정일, 이집트 대통령 생일에 축전(5/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일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축전을 보냄.

■ 北노동당-브라질 공산당 협조합의서 체결(5/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과 브라질 공산당이 2일 평양에서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브라질 공산당의 주체 헤나투 하벨루 전국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사인
- ※ 북한과 브라질은 2001년 수교

■ 北노동당-우간다 군사대표단 회담

- 北노동당·우간다 군사대표단 회담,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29일 방북 중인 우간다 당·정부 군사대표단과 만나 친선협조 관계의 발전 방안과 상호 관

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회담에는 최태복 노동당 비서와 우간다의 아마마 음바바지 국방장관이 참석

■ 궁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 체코 방문(4/28, 연합)

- 유럽 순방길에 나선 궁석웅 외무성 부상이 28일 체코에 도착, 궁 부상은 29일 헬레나 밤바소바 체코 외무차관과 만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 부상은 5월 5일 폴란드를 방문해 북한과 폴란드 간 연례 차관회담에 참석할 예정, 이어 궁 부상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 궁 부상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관계자들을 만나 EU 대표부 개설 문제 등 EU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짐.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北 대남비난서 “반정부 투쟁” 선동 재등장(5/4, 조선중앙방송; 우리민족끼리; 5/3; 5/2, 통일신보; 5/3, 노동신문; 5/2,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4일 ‘더욱 노골화되는 반공화국 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F-15K 전투기 21대 추가 도입 계획 등을 비난하면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고 있는 이명박 전쟁정권을 반대하는 반진, 반괴뢰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도 4일 ‘전쟁과 대결에로 질주하는 전쟁정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역시 F-15K 구입 계획 등을 비난하면서 “남조선(남한) 인민들은 친미보수집단의 전쟁책동을 더 이상 묵과할 경우 자신들과 민족앞에 어떤 파국적 후과(결과)를 초래하겠는가에 대해 똑바로 알고 ‘전쟁정권’을 반대하는 반진, 반 ‘정부’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
- 통일신보 최근호(5.3)도 “이명박전쟁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동했고, 2일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서기국 보도’를 통해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이명박 전쟁 ‘정권’을 반대

- 하는 반전, 반괴뢰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은 3일 등록급 급등문제를 거론하면서 “인민을 반역하는 리명박 ‘정권’에 하루빨리 파멸의 철추를 안기는 것”이라는 말을 했고, 평양방송은 2일 ‘북침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호전정권’이라는 논평에서 “대결집단인 이명박 호전정권을 하루빨리 파멸시켜야 한다”고, 4월 29일엔 김태영 합참의장을 겨냥해 “하루빨리 매장돼야 한다”고 극언

■ 남한의 쇠고기 개방 비난(5/2,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철저히 계산하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조선중앙방송도 최근 남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남한 당국이 (미국과) 일방적인 퍼주기식 협상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미친소병(광우병)에 걸릴 위험에 몰아넣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시위대가) 단죄했다”고 보도

■ 北, 李대통령 새 한일관계 구축 비난(4/30, 연합)

- 북한의 ‘일제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매국배족 행위”라고 비난
- 이 단체 대변인은 일제의 한반도 산림자원 약탈의 근거가 된 ‘조선임야조사령’ 발표 90돌을 규탄하는 담화에서 “이명박을 비롯한 남조선(남한) 보수 집권세력이 ‘한일관계 복원’이니, ‘미래지향적’이니 하는 망발”을 했다고 주장

나. 남북 교류

■ 남북 첫 공동문학잡지 ‘통일문학’ 南 반입(5/5, 연합)

- “수령님”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는 등의 이유로 남한으로 반입이 불허됐던 남북 첫 공동문학잡지 ‘통일문학’이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4월 29일 남한으로 반입
- 6.15민족문학인협회 남측 관계자는 5일 “남북한 문인들이 공동으로 집필·

발행한 첫 문학잡지인 ‘통일문학’ 1천400부를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4월 29일 개성을 통해 남한으로 반입했다”며 “통일부가 문제삼았던 일부 문구에 대해 북측에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원문 그대로 들여온 상태이며, 빠른 시일 안에 문학 관련 단체와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언

- 통일부 관계자도 “지난달초 ‘통일문학’ 의 반입을 승인했다”며 “잡지에 나오는 표현중 남한으로 반입하기에는 현행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협회측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혀와 승인이 이뤄졌다”고 설명

■ 백두산 관광 연내추진 사실상 불가(5/5, 연합)

-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5월부터 진행키로 합의된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이 항공안전시설 미흡 등의 이유로 2008년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밝혀짐. 더구나 정부는 지난 2005년 백두산 지구 현장답사를 통해 현재 삼지연 공항 활주로를 이용한 시범관광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참여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백두산 관광 합의를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
-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진 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백두산 관광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된 민·관 합동사전답사 결과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운항·관제·항행안전시설, 공항시설, 기상시설 등이 노후화하거나 고장”인 것으로 나타남.

■ 현대아산 대북관광 순항...금강산 10만명 돌파(5/4, 연합)

- 현대아산에 따르면 2008년 금강산과 개성 관광객은 5월 1일까지 각각 10만명과 4만명을 넘어섬. 이는 현대아산의 전망치보다 20% 이상 넘어서는 것으로 금강산과 개성의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성을 갖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짐.
- 2008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금강산 관광객은 총 10만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8천명에 비해 무려 두배 가량 늘어남. 2007년 35만명의 금강산 관광객을 유치했던 현대아산은 이처럼 실적이 좋게 나오에 따라 2008년 목표인 43만명을 무난히 달성하고 최대 50만명까지도 넘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

- 북측 주민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개성 관광 또한 폭발적인 호응, 2007년 12월 개성 관광을 개시한 현대아산은 올해 1월부터 5월 1일까지 총 4만90명이 개성을 방문해 10월이면 올해 목표인 10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北, 6·15행사, 서울 아닌 금강산서 개최 요구(5/2, 연합)

-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당초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했던 서울 대신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안했다고 남측위원회 관계자가 2일 발표
- 남측위는 기존 합의를 감안해 서울에서 열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내부 회의를 통해 서울과 금강산중 최종안을 결정해 20일께 북측과 다시 협의할 계획, 개성 협의에서 당국자 참가 여부와 같은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북측은 “민족 화해 대회를 연다는 차원에서 민간 끼리라도 행사를 열자”고 말했다고 남측위 관계자는 설명
- 북측은 금강산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정세상 난관이 있고,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가서 반대 시위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남쪽 당국이 예전만큼 강력하게 막아주지 못할 경우 우리(북)쪽도 이를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고 전언

■ 정부, 北말라리아 방역에 118만불 지원(5/2, 통일부)

-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 말라리아 방역 사업에 118만달러 상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일부가 2일 발표

■ 정부, 6·15행사 서울개최 승인 방침(5/1, 통일부)

- 정부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작년 남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를 허용한다는 입장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운용시스템 개선 추진(4/29, 통일부)

- 통일부는 29일 남북협력기금 운용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등을 반영,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 통일부는 우선 기금 지원 결정과정에서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지원 의결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결정
- 통일부는 또 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지원단체에 대한 조달청을 통한 구매제도 도입 ▲정기 감사제도 도입 ▲외무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사업평가단' 운영 등을 추진
- 또 기금 운용의 공과를 평가하고 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금 지원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금 백서를 발간하기로 함.

■ 北무연탄 실은 북한선적 29일 울산항 입항(4/28, 연합뉴스)

- 울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신연철)은 북한산 무연탄 3천333t을 실은 북한 국적 창덕호(2천496t)가 29일 울산항 석탄부두에 입항, 무연탄을 하역한다고 28일 발표, 북한산 무연탄은 서울 소재 우리나라 기업인 대신자원(주)이 수입

■ 북한군 장교 1명 판문점 인근으로 귀순(4/28, 연합뉴스)

- 북한군 장교 1명이 28일 오전 4시50분쯤 판문점 인근으로 귀순

북한 3·4월 동향 일지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3월 0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북 중국대사 류사오밍 초청 중국대사관 방문	○중통(3/1)
03월 02일	조평통 대변인, 한미합동군사연습 관련 '자위적 조치' 담화	○중통(3/2)
03월 03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러시아 대통령 당선자 메드베제프에게 축전	○중방(3/3)
03월 04일	노동당대표단(김태종 당부부장), 라틴아메리카 각국 방문차 평양출발	○중방(3/4)
03월 05일		
03월 06일		
03월 07일		
03월 0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국제부녀절(3.8)즈음 여성일꾼 등과 국립교향악단 및 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중통(3/8)
03월 09일		
03월 10일	자성남 주영대사, 영국과 문화교류확대 추진 표명	○조선신보(3/10)
03월 11일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런던공연(9/4-15)개최 예정 조선미술전시회(6-7월 뉴욕)에서 전시 예정	○조선신보(3/11)
03월 12일		
03월 13일	방북 중 공산주의청년단 베이징시장 대표단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김책공대에서 진행	○중방(3/13)
03월 14일		
03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재선 관련 축전 발송	○중방(3/15)
03월 16일		
03월 17일		
03월 18일		
03월 19일	북·쿠바 단결위 연차회의,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	○중통(3/19)
03월 20일	혁명1세대 김룡연 인민군 차수(92세) 사망	○중통(3/20)
	북·러, 하산-라진 사이의 철도와 라진항 개건 착공 합의	○중방(3/20)
	이영수 당부부장, 인도공산당 대회 등 참가차 평양 출발	○중방(3/20)
	북 외무성대변인, 티베트 사태 관련 중국입장 적극지지 표명	○중방, 평방(3/20)
03월 21일		
03월 22일		
03월 23일		
03월 24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앙골라 대통령 주제 산투스아 회담	○중방(3/24)
03월 25일	김중린 당비서, 방북 쿠바여성연맹대표단 면담	○평양(3/25)
	유럽의회 의원 일행(글린포드 영국 레이버당 출신) 및 브라질 외무성 대표단 평양도착	○중방(3/25)
03월 26일	전국 농근맹 '토끼기르기' 열성자회의 개최	○중통(3/27)
	월드컵 축구 남북예선경기 무승부 결과 보도	○조선신보(3/27)
	김영남 상임위원장, 콩고 대통령 조제프 카밀라와 회담	○중통(3/26)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3월 27일	전국 공생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3/25-27)	○중통(3/28)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주북 베트남 대사 레반크 일행 초청 친선모임	○평방(3/28)
03월 28일	최태복 위원장, 방북 유림의회의원 글린포드 일행 면담	○중통(3/28)
03월 29일	외무성대변인, 유엔의 대북인권결의 관련 '정치적 모략문서' 라고 비난 기자회견 개최	○ 중통(3/29)
	김영남 상임위원장, 우간다 대통령 무세베니와 회담	○중통(3/30)
03월 30일		
03월 31일		
04월 01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아프리카4개국 순방(나미비아, 앙골라, 민주콩고, 우간다) 후 귀국	○중앙TV(4/1)
	스웨덴 대사에 이희철 임명	○평방(4/1)
	당일꾼 대표단(백계룡 임업성 당비서), 중국 향발	○평방(4/1)
	대외문화연락위 대표단(문재철 위원장 대리), 미주국 방문차 평양출발	○평방(4/1)
	전국 대학, 전문학교, 중학교, 소학교에서 개학식 진행	○중방, 평방(4/1)
04월 02일	조선우표사,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 추대 15돌 기념우표 발행	○중방(4/2)
04월 03일	만수대 창작사 '종합미술관' 개관	○조선신보(4/3)
	북해군사령부, 우리군의 북측 영해침범 주장	○중통(4/3)
	북한군, 우리측 유감표명에대한 재답신 발송	○중통 등(4/3)
	조선노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전기' 제2권 증보판 출판	○중방(4/3)
	대외문화연락위 대표단(전영진 부위원장), 미야마와 중국방문차 평양출발	○중방(4/3)
04월 04일		
04월 05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발표 15돌 기념보고회 개최	○중방, 평방(4/5)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 제16차 민족올림픽위원회 협회 총회 참가차 중국 향발	○평방(4/5)
04월 0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350군부대 관하 중대 시찰	○중방(4/6, 06:00)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776군부대 관하 신입병사 훈련구분대 시찰	○중방(4/6, 20:30)
	백계룡 임업성 당위원회 비서, 중국방문 후 귀국	○중방(4/7)
04월 07일	UN주재 상임대표에 신선호 임명	○중통, 평방(4/6)
04월 0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493군부대 직송중대 시찰	○중통, 중방(4/8)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초 추대 15돌 중앙보고대회 개최	○중방(4/8)
	태양절 기념 중앙미술전시회,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막	○중방(4/8)
	러시아철도주식회사, 대표단 평양 도착	○중방(4/8)
04월 0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해군 제152군부대 지휘부 시찰	○중방(4/9)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회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중방(4/9)

북한 3·4월 동향 일지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4월 10일	제1차 태양절 기념 전국예술축전 개막식(4/10-18)	○중방(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337연합부대 지휘부와 제109군부대 관하 포중대 시찰	○중통(4/10)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국제의회동맹 제118차 회의 참가차 남아공 향발	○중방(4/10)
04월 11일		
04월 12일	조선올림픽위 대변인, 북경올림픽 성화봉송 지지 기자회견	○중통(4/12)
04월 13일		
04월 14일	김일성 주석 생일 96돌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중국 농림수리공회 대표단 방북	○중방, 중앙TV(4/14)
	북한-멕시코, '교육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중방(4/14)
04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태양절 즈음, 장군 진급(33명, 최고사령관명령 제0019호)	○중방(4/15)
	태양절 기념 4/15-16 연휴	○중방(4/15)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태양절 즈음 축하전문 발송	○중통(4/15)
	몽골, '자주적 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대표단 평양도착	○중통(4/15)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대표단, 귀국	○중방(4/15)
	중국 공산당 선전부장 류운산, 피바다가극단 단원 면담	○중방(4/16)
	피바다 가극단, '꽃파는 처녀' 첫 공연	○중방(4/19)
04월 16일		
04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리아 독립 62돌기념 축전 발송	○중방(4/17)
	북한-인도네시아 외교관계 설정 44돌 즈음 주북 대사관원들과 친선모임	○중방(4/18)
	이명선(무역성 부상), 제1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참가차 가나 향발	○중방(4/17)
04월 18일		
04월 19일	김용삼 철도상, 러시아 향발	○중방(4/19)
04월 20일	기네공화국 주재 북 특명전권대사로 이경선 임명	○중방(4/20)
04월 21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의 김영일 총리, 광범기, 노두철 부총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	○중통(4/21)
	의학과학원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 진행	○중방(4/21)
	주북 중국대사 류효명, 베이징올림픽성화 봉송관련 대사관 연회 마련	○중방(4/22)
04월 22일	당정간부들, 강반석 출생 116돌즈음 동상에 헌화	○중방(4/22)
	리병철(상장) 공군사령관 등 공군대표단 방중	○중통(4/22)
	독일 적십자사 위원장(루돌프 자이터스)일행 방북	○중방(4/22)
04월 23일	최태복 위원장, 제118차 IPU총회에서 연설	○중통(4/23)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임 인사차 방문한 재북 카메룬 대사 면담	○중통(4/23)
	이민천 외국문출판사 부사장, 중국 향발	○중통(4/23)
	북-중 합작 '평양백산담배합영회사' 조업식	○중방(4/23)
04월 24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방북 독일적십자사 위원장 사이머터 면담	○중방(4/23)
	북 철도성-러 철도주식회사, '철도협정', 모스크바에서 조인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4월 25일		
04월 26일	공석웅 외무성 부상, 체코 및 폴란드 향발	○중방(4/26)
04월 27일		
04월 28일	북 노동당-불가리아 사회주의당 대표단 회담	○평방(4/28)
	우간다 당 및 정부군사 대표단, 방북	○평방(4/28)
04월 29일	노동당대표단-우간다 당, 정부군사대표단 평양에서 회담	○평방(4/29)
	박익춘 외무상, 중국 방문(4/26-29)후 귀국	○평방(4/29)
	제8차 전국노동자체육경기대회,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개막	○중앙TV(4/29)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열차사고 및 인명피해 관련 후진타오 주석에게 위로전문	○중통(4/30)
	이명산 무역성부상, 유엔개발회의 제12차대회(4/20-25, 가나), 발언	○중통(4/29)
04월 30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작별 방문한 주북 이집트대사 면담	○중통(4/30)
	브라질 공산당 및 베네수엘라 주체사상연구 대표단 방북	○평방(4/30)
	당중앙위, 브라질 공산당대표단을 위해 연회	○중방(5/1)
05월 01일		
05월 0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5.1절 즈음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중방(5/2)
05월 03일	제23차 중앙과학기술축전(4/28-5/2)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	○중방(5/3)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720군부대 직속중대 및 제409군부대 관하중대 현지지도	○중통(5/3)
05월 04일	제11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 (5/12-15) 진행 예정	○중방(5/4)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